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43호 2011년 7월 6일 수요일 (음력 6월 6일 · 불기 2555년 · 주간)

나무가 저렇게 큰 데도 매년 자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나무는 말없이 일러줍니다.

–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반야용선 타고 극락왕생 하소서

조계사(주지 토진)는 7월 1일 초하루 신중기도에서 '반야용선 진수식'을 봉행했다. 이 날 반야용선은 묶여있던 오색실을 '관음도'와 '극락도'로 끊어냄으로써 진수됐다. 반야용선 이운 후, 조계사 사부대중들은 홍성지역 불우이웃을 위해 백미 20kg들이 20포대를 김석한 홍성군수에게 기부 · 전달했다. **글 = 박기범 기자, 사진 = 박재완 기자**

법개정은 불교 특혜

국립공원정책포럼서 지적… 전문가부터 취지 바로 알려야

자연공원법 개정이 불교계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공원 정책포럼'은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의 사회적 의미와 이후 과제'에 대한 토론을 6월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자연 공원법의 발전적 운용 방안이 모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불교계에 대한 특혜이고, 특정 종파를 위한 정책이다. 문화재 관람료를 주지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으로도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왜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문화재청장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이나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공원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률상 충돌에 대한 우려다.

황 소장은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 주지에 의한 입장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전문가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건립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평우 소장은 "이 규정은 개인의 제사를 위한 행위까지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사찰 발전과 자연공원 보전 ·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한다는 취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10월 시행 전에 재논의 등을 통해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요섭 국립공원내장산찾기대책

입장료·불사 관련 대국민 홍보 필요

위 법률자문변호사도 자연공원법이 개정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정이 부족했고, 불교계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윤남진 NGO 리서치 소장은 자연공원법이 취지를 살려 운용되려면 관리주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자연공원 관리에 있어 개방적이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시행과정에서 이런 협의망을 만들어야 외풍을 견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제자로 참여했던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우려일 뿐,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전통사찰 보존과 자연공원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 과장은 "법률상 충돌의 우려는 없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우선하며 예산지원이 아닌 행위허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 "이번 개정은 특정 종교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사찰이 다수 분포돼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원 과장은 이번 개정 작업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돼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문화재청과 불교계가 내부 기준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면 난개발 등 각종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문위원도 "사찰보수를 '불사'로 이해하기 때문에 종교편향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전통문화재가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개정으로 이해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행복은 환상을 깨는 것부터"

설정 스님, 가야산 성역화 운동서 법어



설정 스님은 6월 28일 백제의 미소길 걷기 행사 전 참가자들에게 법어를 내렸다. 가야산 성역화를 위한 불자들의 역할을 강조한 스님의 법어를 요약해서 전한다.

진리는 인간의 욕망, 환상을 깨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목표는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행복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는 환상을 깨는 것에서 출발한다. 오늘 우리가 걷게 될 가야산은 우수한 생태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국보급 문화재들이 산재한 소중한 곳이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남연군의 묘를 썼다. 역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서쪽의 개심사와 남쪽의 수덕사만이 남아 있지만 본래 가야산에는 4개의 큰 사찰과 66개의 사찰들이 분포돼 있었다. 그만큼 이곳은 부처님의 진리를 위해 스님과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던 곳이다. 지금 진행되는 당국의 모든 계획은 인간의 육감을 자극하는 환락의 사업이다. 인간내면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제시하는 정책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문화재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과 보람있는 삶을 위해 성역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5면 박기범 기자

불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 시급

문화부·불교문화사업단 이원화는 비효율

"불교문화의 콘텐츠화에 앞서 방향설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기구인 불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불교문화의 콘텐츠화에 대한 각종 연구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그 방향 설정과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팀 간사는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사회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불교문화콘텐츠 종책토론회에서 "수익사업화와 문화포교, 공공성강화의 갈림길에서 그 방향성을 뚜렷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신 간사는 "종단 차원에서 현재 불교문화콘텐츠 사업을 주요 종책화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추진방향이 모호하다"며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의 이런 주장은 조계종 문화부의 업무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업무 등이 향후 문화콘텐츠 사업 발달로 인해 혼선이 가중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김유신 간사는 문화포교는 종교계가 주체가 되며 포교원과 총무원 문화부가, 공공성 강화는 정부와 공공기간이 주체가 되며 기획실과 총무부가, 수익사업화는 기업이 주체가 되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관 부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낙단보 마애불 비피해 "문제없다"

집중호우로 4대강 낙동강 구간 곳곳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낙단보 마애불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문화부 심주완 팀장은 "집중호우가 있었던 6월 26일 두산건설을 통해 확인했을 때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28일 대둔사 혜국 스님에게 확인한 결과 아무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이주민 표적 단속은 종교편향"

불교계 단체들, 법무부 주말 단속 비판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불교계 단체들은 6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절차 없는 단속과 거짓 약속에 법무부는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무 산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토요일인 18일 김포시 방글라데시아 법당 보타사 인근에서 이주노동자 2명을 단속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주말 · 길거리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불교계 단체들이 이번 단속이 인종차별, 인권침해, 종교편향적 단속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법당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표적 단속은 이주민들의 종교행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기범 기자

843호 CONTENTS

현장속으로 1 백제의 미소길 걷기 5



'희망' 선물한 참 종교인 법정, 김수환, 강원용 6



선지식을 찾아서 성원 스님 16·17







제3차 백양사 야단법석

수행결사와 참스승을 찾아 떠나는 길

황벽스님이 어느 날 대중한테 법문하였다.

"너희들 대중들은 하나같이 술찌꺼기나 먹고 진짜 술을 마신듯 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行脚〕간다면 어느 날에 깨닫겠느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 안에는 선사(禪師)가 없음을 아느냐?"
그 때에 한 스님이 문득 말하였다.
"여러 총림에서 대중을 지도하고 거느린 것은 무엇입니까?"
황벽스님이 말하였다.
"선(禪)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스승이 없을 뿐이다."

질그릇이나 공예품을 만들려 하더라도 스승을 찾아나서야 한다.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구하고 스승에게 배워야 할 것이다.
지금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 수행의 길에 들어섰으나 갈팡질팡이다. 무엇 때문인가?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경전(經典)인가, 옛 선사스님들의 어록(語錄-법문)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그 해답은 야단법석에서 말해 줄 것이다.

□ **법사스님과 주제**

· 혜남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_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
· 시몽스님(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_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
· 용타스님(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_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
· 도법스님(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 _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
· 향봉스님(익산 사자암) _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

▣ **일 시** : 2011년 8월 4일(목) 1시 ~ 8월 7일(일)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동 참 비** : 20만원
▣ **주 최** : 고불총림 백양사
▣ **후 원** : 현대불교 신문사
▣ **접 수 처** : 백양사 신도국
▣ **계좌번호** : 농협 645117-51-014851 (예금주 : 백양사)
▣ **문 의** : **전화** 061)392-0434 / 392-0100
팩스 061)392-208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 개인침구류 및 편의품을 준비해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

자성과 쇄신 지속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발족

자성과 쇄신을 종단의 핵심 기조로 확립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설립됐다.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초대 본부장에 도법 스님을 6월 30일 위촉했다. 사무총장에는 혜일 스님이 위촉됐다.

종단은 민족문화수호활동을 통해 자성과 쇄신 결사가 한국불교 변화의 시대적 과제임을 알게 됐고 이를 확립하기 위한 추진본부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추진본부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5월 18일에는 결사 추진본부 설치 계획(안)과 설치령이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게 전달됐고, 6월 13일에는 추진본부 설립을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자승 스님과 현응 스님, 도법 스님 등이 참석했다. 6월 20일에는 준비위원회가 열렸으며 6월 28일 총무원장 종령기구로 설치령이 제정됐다. 7월 5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추진본부 현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종령기구인 이 기구는 앞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중앙종무기관에서 실천 할 수 있는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담당한다. 또한 운동적 성격의 결사가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총재는 당연직으로 총무원장이 맡는다.

결사의 확산과 실천 주도위해
종평위·민추본·화쟁위 통합

추진본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화쟁위원회, 종교평화위원회,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들은 개별 활동을 추진하면서 사안에 따라 추진본부와 결합해 자성과 쇄신 결사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협력한다. 또한 사부대중 결사위원회가 구성돼 추진본부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종단 내외의 신망있는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교구별로는 결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교구의 민족문화수호위원회는 교구위원회로 개편된다.

사부대중 결사위원회는 승가와 재가를 아우리는 9~11인 내외로 구성되며 결사의 범 종단적 추진을 위해 신도단체, NGO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부대중 결사위원회에서는 5대 결사의 각 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본부장에 위촉된 도법 스님은 "원장 스님과 종단이 과거와 현재를 잘 살피고, 미래를 잘 모색하기 위해 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마음들을 잘 살려서 본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 = 박기범 기자, 사진 = 박재완 기자

"한국 불교 현실에서 결사 중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에 위촉된 도법 스님



"한국 불교의 현실을 생각하면 자성과 쇄신 결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자성·쇄신·결사의 3가지를 책임지고 내용으로 담아내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도법 스님은 위촉장 수여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진본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꼭 하고 싶은 일을 맡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번에 통합되는 각 기구들의 독립성은 보장하면서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을 위한 업무에 적극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기존에 하던 일들이 축소된다면 결사를 안하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결사의 정신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통합이 되면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의 본부장 위촉에 대해 불교계에서 많은 이들이 우려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스님도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나의 행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나를 좌파와 진보로 규정하는 것들은 외부에서의 규정일 뿐, 나는 불교적 대안과 사회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며 때로는 좌로,

> 결사의 정신으로 함께 채워가자

때로는 우로 움직였다. 삶의 연장선일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스님은 또 앞으로 추진 본부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법 스님은 "80년대에 〈화엄경〉을 만나면서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불교적 해법을 고민하며 살아왔다. 화쟁과 결사가 내용적으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추진본부에 미리 짜여진 내용은 없다. 앞으로 만들고 담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 = 박기범 기자, 사진 = 박재완 기자

"불교수목원에 경전 속 나무는"

불교수목원 건립을 위한 토론회서 의견 모아

조계종이 설립 추진 중인 불교수목원에는 불교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불교문화 식생이 심어지며 공익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장에서 불교수목원 설립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이병인 교수(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를 사회로 김용식 교수(영남대 조경학과), 류광수 국장(산림청 산림보호국), 이영경 교수(동국대 조경학과)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혜경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윤여창 교수(서울대 산림과학부), 김용하 원장(국립수목) 등이 종합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영경 동국대 교수는 "수목원 건립은 친자연적 종교로서의 불교 정체성을 알리고 사찰림의 공익적 기여의 차원에서 진행되야 한다"며 "일반 대중들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한마음수련센터 '첫 삽' 마음 수련을 통한 사회 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 단양군의 지역 경제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천태종 한마음수련센터가 첫 삽을 떴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6월 27일 단양군 남천리 544번지 일원에 건립될 한마음수련센터 건립 부지에서 수련센터 기공식을 봉행했다. 한마음수련센터는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2만6714㎡(8081평)부지에 천태종 50억원, 국비 2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17억 5000만원 등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조동섭 기자

"지역사회서 신뢰받는 불교되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1일 강원도 지역의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자승 스님은 속초 신흥사복지재단(이사장 우송) 반야어린이집, 반야노인요양원, 속초시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양양 낙산사복지재단(이사장 법인) 낙산노인전문요양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종단은 54개의 복지법인과 1000여 개의 복지시설이 수탁 운영되고 있다. 종단이 정부의 수탁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비리와 사고가 생기지 않게 유념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불교가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연임 확정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후보에 現 주지 범각 스님이 선출됐다.

해남 대흥사는 6월 30일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범각 스님을 확정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여 스님이 범각 스님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새 주지 범각 스님은 금명간 총무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불자들, 서울 학생인권조례

종평위, 종자연 등 불교계 7000명 서명

무산위기까지 거론됐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불교계의 참여 속에 추가서명 작업이 완료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한불교청년회 등은 1차 서명 확인 과정에서 무효로 인정된 1만 1000명의 서명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6월 22~26일 각 사찰과 신도들에게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며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추가 서명운동 결과 불교계는 7000명 정도의 서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불교계와 서울본부의 서명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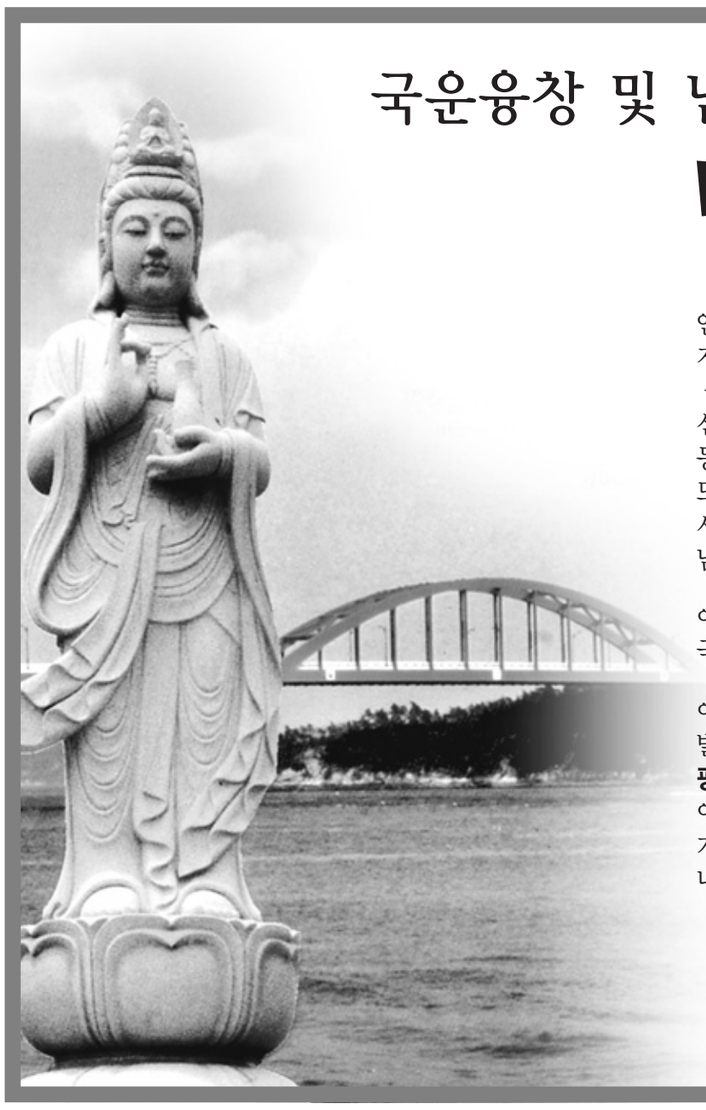
불교계는 서명지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 제출했으며 서울 본부는 현재 유·무효표 분류를 통한 최종 확인 작업 중이다. 본부측은 빠르면 4일 경 서울시 교육청에 서명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개운사길' 되찾았다

'인촌로길'이 될 뻔했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개운사 진입로가 본래 이름인 '개운사길'을 되찾았다. 성북구청은 최근 '개운사길'의 도로명 표지판과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을 모두 교체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국운융창 및 남북평화통일기원

만등불사대법회 봉행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 경인년은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고승 대덕스님들의 정성스러운 기도의 원력과 불자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가 무척이나 고맙고 편안한 한해였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웃나라 일본에서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원전 피폭 등의 자연재해로 수만명이 목숨을 잃은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아랍 등 서방국가에서는 자국민들끼리 총칼을 겨누면서 서로를 죽이는 현실을 시시각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또한 사회양극화와 계층간 갈등, 남북간의 분단된 상황 속에서 혼란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재해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어우러진 전쟁과 죽임의 문화, 온갖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부처님 근본 마음자리로 되돌아가는 수행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관음기도도량 완도 수향사에서는 부처님 전에 1만개의 등불을 밝혀 국가의 발전과 평화적 통일,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국운융창 및 남북평화통일기원 만등불사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합니다.
이 성스러운 대불사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불자여러분들이 『**만등불사대법회**』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기2555(2011)년 7월 일

국운융창 및 남북평화통일기원 만등불사대법회 봉행위원장
완도 수향사 주지 벽해 合掌

만등불사 대법회 행사 안내

◎ 일 시 : 2011년 **7**월 **24**일(음력 6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완도 고금면 수향사 야회법석
◎ 행 사 : **제1부 방생의식(오전 10시)** : 바닷물고기 치어 방생
제2부 문화공연(오후 1시) : 난타공연, 각설이, 트로트가수 다수 출연 흥겨운 한마당
제3부 육법공양 및 찬불가 합창 : 광주미륵사합창단
제4부 만등불사 전통의식 : 태고종 12명 작법스님 출연
증 명 : 지 암 큰스님(한국불교태고종)
환영사 : 정 암 큰스님(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법 어 : 시 몽 큰스님(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 주 최 : 대한불교선각종 완도수향사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중앙포교원 수향사신도회
◎ 후 원 :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대한불교일승종 광주전남종무원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완도불교사암연합회 좋은나라포럼 국제불교대학 광주일보
주간불교신문사 불교TV 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 문 의 : 수향사 종무소 **(061)553-0990, 011-9616-1303**

만등불사 동참금 : **1인 1등 1만원**



불교의 정의는 소외계층 돌봄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6월 29일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서 지적

"한국불교가 사회참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왜 나오는가? 사회정의 실현이란 공정사회의 길목에서 불교는 사회철학의 새 차원을 열고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다."

최근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의 삼성 부정부패 척결 발언, 마이클 샌델 교수의 〈JUSTICE〉 열풍은 사회정의 실현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윤리와 공정성의 원칙이 담보가 된 사회정의 실현에 앞서 그 이념적 바탕에 불교의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승가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가 6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6월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병기 교수는 "경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적극 요구되지만 불교계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한국사회는 아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님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박 교수의 이런 발언은 '자신의 지위나 부에 걸맞는 도덕성을 지니고 있느냐'로 판가름하는 분배적 정의관에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경제발전의 짧은 성취로 시민윤리를 내주어야 했고, 공정성의 원칙을 지도층부터 훼손하는데 앞장서는 참

불교의 사회참여 위해선 연기적 독존주의 필요해

나의 자유와 소수자의 인간다움 보장이 사회 정의

담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회참여에 앞서 일차적으로 불교 사회철학과 이념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불교적 이념으로 연기적 독존주의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모든 사람은 개인의 존엄성인 독존주의를 기반으로 연기성을 통해 세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독존주의, 즉 나의 자유·권리뿐만 아니라 사회 소수자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정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의 논의는 도시빈민의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 등이 첫 번째 대상이 되야 한다"며 "자연과 동물들에게 까지 사회정의 고려의 대상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교계의 역할로는 불자다움을 제시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불자다움은 모든 존재자들에 대한 총체적 연민을 전제로 하는 자비실천의 자세다.

박 교수는 "이런 관점 하에 생명산업 상업화와 의료서비스 분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용하며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법안 스님도 "그동안 우리는 국민들의 실질적 고통을 외면해 왔다. 그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정의실현을 위한 자비실천의 방법은 개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 받는 개인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종학 교수도 "하소연 할 데가 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것 처럼 종교가 상처받는 서민들 옆에서 그들을 지켜준다면 한국사회는 보다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민경국 강원대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대장경의 천년을 돌이켜 새 천년을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성료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과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6월 27~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은 개회사에서 "한역 대장경은 물론 티벳, 팔리 삼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어들의 불전과 다양한 매체들의 정보들이 통합될 날이 멀지 않았다"며 "이번 행사는 다른 종교나 학문과의 관계설정을 위한 유용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대 정병조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장경의 전산화와 복원작업은 정보와 문화의 융화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이번 행사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문화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축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대대손손 영원히 전해질 것이지만 고려대장경의 활용은 오로지 후손들의 몫일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현대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인류의 평화와 생명,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새로운 가치와 역사를 고려대장경에서 발견하고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고려 초조대장경이 목판이라는 틀 속에 갇힌 무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몸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생명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꿔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학술행사는 대장경을 ▷제1분과: 역경과 전승 그리고 전산화(오치아이 토시노리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교수, 정승석 동국대 교수, 김천학 금강대 소장, 고려대장경연구소 중현 스님) ▷제2분과: 언어와 역경 그리고 유포(가라시마 세이시 일본 창가대 교수, 신상환 인도 비스바바라띠대 교수, 정진일 독일 괏팅겐대 교수, 두웨이장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 ▷제3분과: 고려대장경의 재조명(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버클리대 교수·사진), 이태승 위덕대 교수, 후나야마 토루 일본 교도대 교수, 석길암 금강대 연구교수) ▷제4분과: 동아시아에서의 대장경(장홍웨이 중국북경고궁박물원 연구원, 이부화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제5분과: 경전과 지역성(지루시 미국 포모나대 교수, 원혜영 대진대 외래교수) 등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관련기사 14면

조동섭 기자

이나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한국불교, 리처드 기어 티베트 인권 호소 귀 안열어

조계종의 한 중진 스님…"리처드 기어는 달라이 라마의 특사였다"

할리우드 유명배우 리처드 기어의 방한 때 한국 불교계가 취한 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페이스북 부루나가 떠들썩하다.

한 회원이 한겨레신문(6월 30일자)에 보도된 '한국불교, 리처드 기어 티베트 인권 호소에 귀 안 열어'를 소개한 것.

한겨레신문은 "리처드 기어는 방한 중 영화배우로만 화제가 되는 상황에 답답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처드 기어는 지난 20여년 동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대변자로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불교에 대한 탄압 등을 서구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애써왔다"고 보도 했다.

이 신문은 또 6월 21일 리처드 기어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의 만남에서 '티베트'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조계종 내에서도 안타까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조계종의 한 중진 스님의 말을 빌려 "리처드 기어는 사실상 달라이 라마의 특사나 다름없는 인물인데, 그를 할리우드 영화배우로만 대하고 정작 고통 받는 티베트불교와 달라이 라마에 대해 종교지도자로서 자비심을 담은 의례적 언급조차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리처드 기어의 통역을 맡았던 혜민 스님이 티베트인들의 실상을 전하고, 한국불교에 대해 차분히 공부하고 싶었던 리처드 기어가 가는 곳마다 영화 이야기만 나와 답답해했다는 발언도 전했다. 실제로 리처드 기어의 방한을 담당했던 기획사측은 사전에 기자들에게 정치적 질문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부루나 회원들은 리처드 기어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고 있다.

P씨는 "스님들도 배우로 대접했다는 이야길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다. 스님들께서도 그랬으니 다른 분들은 더욱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그동안 불교계가 얼마나 가위눌려 불교다운 이야기를 못해왔는지 다시금 반성하고 불자를 불자답게 대접하는 문화가 빨리 자리 잡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씨는 "리처드 기어의 한국방문의 목적이 티베트에서 기어가 찍은 사진전을 (완곡하게)표방한 것 자체가 리처드 기어의 이번 한국방문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심전심도 필요없을 정도로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며 "실망스럽게도, 스님들은 정치적인 입장계산인지 엉뚱하고 멍청한 눈치로 알아서 입을 다물었다. 기어는 적잖이 한국불교 대표라는 조계종단의 지극히 정치적으로 실리적인 분위기만 절감하고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K씨는 "아무 생각 없이(준비없이) 리처드 기어를 맞이하고 정부가 싫어할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는 종단의 저자세, 굴욕적 자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대장경 천년홍보 각계에서 나서

명예홍보대사에 탤런트 박상원 등 8인 선정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명예홍보대사에 탤런트 박상원, 인제대 교수 이만기,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강제규, 시골의사 박경철,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등 8인이 선정됐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두관)는 9월 23일 경남 합천에서 열리는 축전의 성공개최와 국민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스포츠, 연예계를 대표하는 8인을 축전 명예홍보대사에 위촉했다. 또 축전 해외 홍보를 위해 세페리노 발데스 주한 파라과이 대사와 남문기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도 명예홍보대사로 함께 위촉됐다.

이들 8인의 명예홍보대사는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국내외에 알리고, 대장경 천년의 의미와 가치를 전파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축전 명예홍보대사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이희아 씨가 포함됐다. 이희아 씨는 지난 6월 19일 열린 대장경천년기념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희아 씨는 "팔만대장경은 우리 선조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1천년 동안 보존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축전이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포교사(승려,재가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일 주 문



천태종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천태종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산 스님은 7월 1일부터 서초구 우면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우면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한다.



제28회 호국영령위령대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6월 25일 5군단 호국 금강사 제28회 호국영령위령대재에서 봉행위원장으로 천도법문했다.



고운사 한국사찰음식 문화연구소 개소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6월 25일 고운사에서 부설 한국사찰음식 문화연구소를 발족했다.



봉은사 김재일 소장 49재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7월 2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49재를 봉행했다.



금선사 청년회 창립법회
서울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은 7월 3일 금선사 대적광전에서 금선사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대불련 군포교지원단 기념법회
윤제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회장은 7월 17일 군포교지원단 설립 2주년 기념법회를 육군 제11보급대대 안국사에서 봉행한다.

〈인사〉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에 본오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7일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에 본오 스님을 임명했다.

본오 스님은 종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사미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용문사 주지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인사〉 조계종 종책특보단 법무위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7일 종책특보단 법무위원에 정석원 변호사를 위촉했다.

정석원 변호사는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조계종 법무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조계종측 선암사 종무실장으로 있다.

노덕현 기자

천년지키는데 급할 것 없다

서울 흥천사 주지로 임명된 정념 스님… 강북 기도도량으로 발돋움

"천년 역사를 지키는 일은 수 년이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6월 21일 조계종 미입주 사찰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흥천사 주지로 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이 임명됐다. 스님은 주지 임명에 대해 "마음이 무겁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강북 중심 도량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흥천사는 조선 태조 4년(1395)에 정릉의 능사로 창건됐다. 창건 당시 흥천사는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던 170여 칸 규모의 큰 사찰이었다. 특히 흥천사 극락보전은 조선후기 사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화려한 목조 건축으로 뛰어난 건축기술을 보여주는 등 서울에서는 보기드문 사찰 건축으로 평가된다.

당초 조계종에서는 前 주지인 자재 스님이 JD홀딩스와의 불법매



매계약으로 받은 돈 문제와 흥천사에 입주해있는 타종단 스님과 사하촌 정리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토지 일부를 매각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토지 매각을 제외한 정상화 방침을 세웠다. 정상화 비용은 최소 1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념 스님의 흥천사 주지 취임은 낙산사 복원 불사를 이끈 스님의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정념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당부했던 말씀이 절대 토지를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복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모든 문제는 합리적이고 순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시간에 구애받아 문제해결에 급급하면 일을 그르친다고 생각한다"며 흥천사 문제에 대해 여유를 갖고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입주 스님들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흥천사 입주 스님들이 오랜동안 도량을 지켜온 부분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약속한 것은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흥천사가 정상화가 되면 서울 강북지역의 기도중심도량으로 불교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님은 "입지에서부터 강북지역의 중심사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필요한 사찰이 되고 특히 문화와 복지 분야에서 불교역량이 강화되는 단초가 되는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성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2년과 1987년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사회국장, 사회부장, 재무부장, 보현의집 원장, 봉정암 주지, 낙산사 주지, 보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 낙산사 회주로 있다.

노덕현 기자

순천 선암사 주지에 정만 스님

"태고종과 상호 신뢰에 바탕해 일처리 할 것"



순천 선암사의 조계종 측 주지에 기획실장 정만 스님이 새로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8일 선암사 새 주지로 정만 스님을 임명하고 "태고종과 원만한 합의로 선암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만 스님의 임명은 서울 흥천사 주지로 임명받은 전 주지 정념 스님이 사퇴하며 생긴 공석으로 인한 것이다.

자승 스님은 이날 태고종과의 원만 합의를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서로 간 욕심을 내면 다툼 생기니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하길 바란다"며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 모두 중요한 사찰인 만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만 스님은 "태고종과 대화를 충분히 갖고 상호 신뢰하에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 선암사는 조계종 제20교구이자 태고종 총림본산으로 최근 순천시청의 문화재 관리 부실을 계기로 태고종과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정만 스님은 벽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과 1979년 각각 사미계과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부장과 호법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무원 기획실장, 범어사 부주지로 있다.

노덕현 기자

김형중 교법사, 영랑문학상

평론 '한글 선시의 현대적 활용'으로



김형중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여중 교법사가 제16회 영랑문학상을 수상했다. 월간 순수문학사(발행인 박영하)는 6월 28일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제16회 영랑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평론부문으로 김형중 교법사에게 상을 수여했다.

김형중 교법사의 〈한글 선시의 현대적 활용〉은 근래 학문적으로만 정립돼 온 선시를 문학적으로 실용화할 가능성을 제시한 평론이다.

심사위원들은 김 교법사의 작품에 대해 "〈한글 선시의 현대적 활용〉은 우선 한국 현대시에서 취약점으로 방치되어 있는 영역인 선시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천착력을 보여주었다. 으레 서구적 이론과 모더니즘 기법에 치우친 나머지 비평의 척도마저 구미에 얽매인 여느 비평가들과는 대조된다. 무엇보다 한국 전통시의 원류를 불교적 상상력과 연관해서 접근한 노력을 높이 사고 싶다. 불교 경전과 한글 선시로 이어진 만해, 무산의 시작품을 들어 평설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 교법사는 "한글 선시의 추구는 한국 현대시를 올바로 세우고 거듭나게 하는 지름길을 찾는 일"이라며 "불교계도 한문 선시보다는, 우리글인 한글 선시를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상은 이옥희 시인, 본상은 나숙자 · 이방원 · 홍은숙 시인, 우수상은 김채원 · 김민정 시인이 각각 수상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계 일꾼들, FC붓다 창단 26명으로 구성·월 2회 경기



불교계 일꾼들이 축구동호회 'FC붓다'를 창단하고 교류 활동에 나섰다. FC붓다는 6월 25일 남양주 광동고등학교에서 법회 형식의 창단식을 열고 이동격 현대불교신문사 부장 등 운영진을 선출했다.

이동격 회장은 "불교계 일꾼들이 축구를 통해 교류와 화합을 이끌어내고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FC붓다는 불교계 언론매체 및 신행단체, NGO 등에 종사하는 불자들이 모인 단체로 월 2회 이상의 자체 경기와 친선 경기, 각종 아마추어 대회 출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총 26명의 회원으로 동호회 상징은 금강역사다.

이날 FC붓다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축구모임 사자후, 봉은사 · 불광사 연합팀과 함께 창단 축하 경기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공불련, 사회봉사의날 봉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는 6월 25일 '공불련 제8차 사회봉사의 날'을 맞아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감사원불자회 조동호 회장, 보건복지부불자회 이상인 회장 등을 비롯해 6개 기관의 20여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공불련 회원들은 김포시종합복지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례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집안청소 등을 도왔으며, 쌀과 휴지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이은정 기자

만해 스님 열반 67주년 추모다례재 선학원서 봉행

만해 스님 열반 67주년 추모다례재가 6월 29일 서울 선학원(이사장 법진) 중앙선원에서 봉행됐다.

다례재에는 만해 스님의 친딸인 한영숙 여사와 부군 정택근 거사 등 유족 관계자 및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신명철 북부보훈지청 지사장, 신명철 전 청와대 국정홍보처 처장,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 대행 전덕윤 씨 등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새 불자가 시작되는 '777'大이벤트

7월7일 오후7시 희망이 시작됩니다



법림 법회는 신선합니다!
법림 법회는 아름답습니다!
법림 법회는 감동이 가득합니다!
법림 법회는 정법만을 추구합니다!
법림 법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새 신행모임 '법림(法林)' 마포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첫 법회
한국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법림의 장도에 동참합시다

'재가의 선지식' 적연 이제열 법사를 스승으로 한 새로운 불교신행모임 '법림(法林)'이 창립됩니다. '법림'은 적연 이제열 법사의 지도아래 매월 1회 정기법회(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를 열고, 담마, 즉 법(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을 중심으로 교학과 수행을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해탈과 열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의 모임입니다.

법림은 월 1회 정기법회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된 불교공부를 위한 경전강좌 및 불교교리 강좌, 수행법회 등을 기본 골격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금강경 강좌(인천), 반야심경 강좌(서울), 수행법회(서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서산 마애삼존불 옆 수행도량 '유마선원'이 법림의 근본 수행도량이며, 앞으로 법림 회원들의 수행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법림은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오는 7월 7일(목)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역사적인 첫 법회를 '만남'을 주제로 해 봉행합니다.

법림 법회의 법사는 적연 이제열 법사님이며, 설법과 함께 즉문즉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림에는 불자는 물론이고 불교의 정수를 제대로 바르게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활짝 연 신행모임을 지향합니다. 법림은 단순한 신행모임을 넘어 한국불교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진리의 모임'으로 발전해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법회의 형식 및 법회 진행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림만의 색깔을 드러낼 것입니다. 법림 법회의 시간을 평일 저녁으로 정한 것은 직장인들과,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도 마땅한 배울 곳과 불교를 가르쳐줄 스승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도 바른 불교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흐름, 정법불교 선양을 지향하는 법림의 첫 출발을 인연 있는 소중한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희망과 행복으로 가는 법림의 장도(壯途)에 모두 길벗이 되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문의 02)737-8227

내포 가야산 함께 걸으며 부처님의 뜻을 느낍니다

제5회 '백제의 미소길 걷기 행사'

가야사지에서 서산마애삼존불까지 순례

조계사와 수덕사의 '내포 가야산 성역화' 협력은 불교계에 잔잔한 화제를 낳았다. 두 사찰이 사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8일 가야산에서는 '백제의 미소길 걷기 행사'가 열렸다. 스님과 재가자 등 600여 참가자들은 가야사지에서 보원사지까지 5㎞ 구간을 함께 걸으며 가야산 성역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 참가자들이 서산 마애불 앞에서 법회를 열고 있다.



'백제의 미소길'을 스님과 재가자들이 함께 걸으며 내포 가야산 성역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된 가야사지는 예산군과 서산시 경계에 있는 가야산 석문봉의 동쪽 골짜기에 있는 절터다. 당초 이곳에는 가야사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자신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이장할 곳을 찾던 중 가야사지가 명당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가야사를 불태워 없애버린 뒤 남연군 묘를 이장했다. 불교계로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가야산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걷기 행사는 그동안 수덕사가 주최해왔으나 올해는 조계사가 성역화 활동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조계사, 화계사, 호압사, 미타사, 옥천암, 춘천 정법사 등 수도권 불자들이 대거 합류했다.

수덕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은 조계사 등 수도권 불자들이 도착하자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했다. 이들은 서로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내포 가야산 성역화와 보원사 복원 등을 위한 한마음을 느꼈다.

걷기 행사에 앞서 가야사터에서는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 수덕사 총무국장 지오 스님은 '백제의 미소길 걷기 행사'의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 했다. 옥천암 신도회 명예회장 청연화 보살은 수덕사측에 내포 가야산 성역화와 백제의 미소길 행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내포가야산 성역화추진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인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관통도로를 생태탐방로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사부대중의 힘이 컸다. 가야산 성역화를 위한 활동에도 사부대중이 소명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공동준비위원장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남연군 묘는 미움보다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걷기 행사가 원만히 끝나 국민들이 부처님의 미소를 떠올리며 용서를 배우는 성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 후 참가자들은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외치며 걷기 대회를 무사히 마칠 것을 다짐했다. 산행 준비를 마친 참가자들은 스님들이 앞에서 길을 걷고, 재가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600여 명 이상이 참가한 행렬이 산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자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법향을 찾아 떠나는 순례단의 풍모가 느껴졌다.

> 가야사 불태워 남연군 묘 조성
> 참가자들 한마음 성역화 다짐

보원사지 발굴 부처님께 참배

5㎞를 걷는 동안 참가자들은 가야산에 깃든 역사성과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며 발걸음을 옮겼다. 참가자들은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함께 참가한 도반들의 땀을 닦아 주고, 물과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한 시간여 정도를 걷자 참가자들은 산 정상에 도착했다. 산 정상에서는 더위에 지친 참가자들을 위한 수박이 한 상 가득히 마련돼 있었다. 무더운 날씨와 산행을 지친 상태에서 먹는 수박은 산해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맛이었다.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1시간여 정도를 걸어서 보원사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사적 제316호로 지정돼 있고, 보원사지 부도는 보물 제105로 지정돼 있다.

가야산 서북쪽에 위치한 보원사지는 통일 신라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절터에서 발굴된 금동불입상은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백제 불상으로 추정돼 보원사가 6세기 중엽에 창건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 하고 있다. 최치원은 〈법장화상전〉에서 보원사가 화엄 10찰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서산시는 2006년부터 보원사지 발굴 작업에 착수, 현재까지도 계속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10세기 무렵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석조(보물 제102호)와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5층 석탑(보물 104호), 법인국사보승탑(보물 제105호), 법인국사보승탑비(보물 제106호)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물과 초석 등 이 남아 있다. 또한 1968년에는 백제 시대의 금동여래입상과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이 각각 발견됐다.

> 마애불앞서 첫 공식법회 봉행
> 설정 스님, 성역화 의미 강조

참가자들은 보원사지 발굴현장과 현재 남아 있는 문화유물들을 둘러본 뒤 이곳에서 출토된 고려철불좌상과 철조여래좌상의 괘불 앞에서 참배를 올렸다.

서산마애삼존불 앞 첫 공식 법회

참가자들은 다시 마애삼존불을 향해 길을 나섰다.

서산마애삼존불은 백제 말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보원사지 입구 좌측 가야산 고란사 왼쪽 바위에 조각돼 있다. 이 불상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미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백제의 미소'로 알려져 있다.

마애삼존불은 마애불 전래 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많은 마애삼존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산시는 마애삼존불이 국보 제84호라는 이유로 일체의 종교적 행사를 금지해왔다. 정경 스님 등이 꾸준히 마애불을 찾아 기도를 올리며 부당성을 지적하자 올해 처음으로 법회가 허용됐다.

보원사 기도처인 마애삼존불에서는 옥천암 육법공양팀의 준비로 육법공양을 올리고 마애삼존불과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애불 앞에서의 역사적인 첫 법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에 설레임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마애삼존불 법회에서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우리 문화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남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찬란했던 문화를 지켜야 한다. 가야산의 전통과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자"고 강조했다.

글 = 박기범 기자, 사진 = 박재완 기자

백제의 미소길은…

백제의 미소길은 가야산에 100여 개가 넘는 사찰이 있던 조선시대에 선방 수행승들이 포행을 하던 길이었다. 서산과 예산에 거주하던 주민들도 물물교환을 위해 서로 왕래하던 길로 이용했다.

충청남도는 이 길을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를 하나로 잇기 위해 가야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 계획이었다.

관광객들이 가야산을 쉽게 차로 이동해 양쪽의 문화재를 손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길을 도로화 할 경우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생태와 역사의 보고로 불리는 가야산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한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이 관통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노력 끝에 2009년 충청남도는 관통도로 계획을 철회하고 생태탐방도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들이나 불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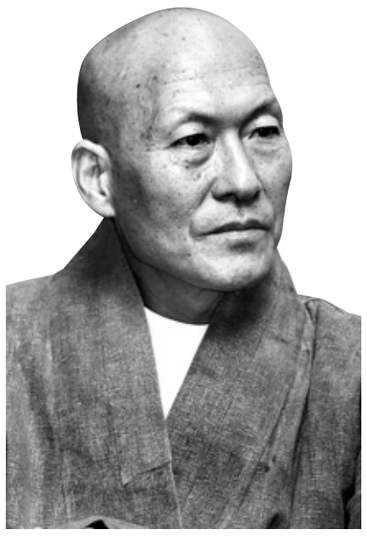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든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뵙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희망’ 선물한 참 종교인

맑고향기롭게·김수환추기경연구소·대화문화아카데미 종교간 대화의 장 마련 눈길

“법정 스님(1932~2010)과 함께하면 격식이 없어 시간과 거리개념을 초월했다. 가톨릭 신자인 나는 2000년 관음상을 길상사 마당에 세우면서 종교의 경계를 떠나 일체에 여여한 법정 스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최근 사회의 심난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진다. 두 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저 너머 무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죽음을 초월한 여유와 ‘희망’이라는 선물일 것이다.”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강원용 목사(1917~2006)는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 이해와 상호협력의 기반을 다진 분이었다. 강 목사는 평소 ‘하나님은 기독교를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왔으며, 하나님의 행동의 장은 교회가 아닌 세계’라며,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며 교세의 크기만 연연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형태에 경종을 울렸다. 종교본연의 가치는 교리의 현실 실현일 때 비로소 종교인의 참모습이 드러난다.”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

#“김수환 추기경(1922~2009)은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서민적이면서도 고결한 품격을 지니고 계셨던 분이었다. 권력의 핵심부터 청계천 철거민, 소록도 한센환자까지 아픔 슬픔 상처가 있는, 위로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고 아무리 큰 세력이라 해도 잘못이 있으면 꾸짖는 사람이었다. 추기경이 이웃 종교와 교단을 넘어 종교가 서로 교류하고 친교하면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모습을 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대한성공회 김성수 대주교

우리시대가 원하는 참종교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법정 스님 · 김수환 추기경 · 강원용 목사 같은 ‘참 종교인’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떠난 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이 보여준 존중과 화해, 상생과 평화의 메시지는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었다.

일체에 여여했던 법정 스님
고결한 품격의 김수환 추기경
종교간 협력 다진 강원용 목사

맑고향기롭게(이사장 현장), 김수환추기경연구소(소장 고준석),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강대인)는 6월 30일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참 종교인이 바라 본 평화’를 주제로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 원불교 성직자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 1부에서는 생전 참다운 행복과 종교간 대화를 이끈 법정 스님 · 김수환 추기경 · 강원용 목사와 함께 했던 종교인들이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한국에 미친 영향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평화를 위한 이웃종교간 어울림’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과 원불교 중앙중도훈련원장 이선종 교무, 서울대 교구청 복음화 사목국 차장 양해룡 신부, 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이정배 교수가 종교와 종교간 평화, 한국사회의 평화를 모색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원불교 중앙중도훈련원장 이선종 교무는 종교본연의 모습 회복을 주장했다. 이선중 교무는 “큰 것, 큰 법당, 많은 신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세 어른은 편안함을 버리고 세상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며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이선종 교무는 “고독한 구도자의 삶, 헌신적인 삶을 실천으로 옮기는 종교인들이 많아져야 우리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개신교의 계급적 특성, 폐쇄성, 배타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이정배 교수는 “개신교는 내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해야할 때”라며 종교의 권력화에 심각성을 인정하고 개신교 내부의 자성을 요구했다.

서울대교구청 복음화사목국 차장 양해룡 신부는 일부 종교지도자 뿐 아니라 일반 신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해룡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의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기에 지금의 김수환 추기경이 있는 것이다. 내적으로 희생과 사랑과 봉사, 이름없는 서민들이 한국 사회를 튼튼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종교들이 모여 참 평화를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평화를 위해서 그 씨앗을 심고 가꿔야 하지만, 씨앗을 아예 심지도 않거나 늘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그 말에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언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나존자를 찾아서

포교도 봉사도 “피곤하지 않아요”

군부대 돌며 전법에 여념 없는 조계종 포교사 이재상씨



“힘들지 않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려고 반짝이는 기운들을 느끼면 쌓여있던 피로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조계종 전문포교사 이재상(사진)씨는 주중에는 은행원으로 바쁘게 생활하고, 주말이면 군법당과 조계사 지역법회 상임 포교사로 활동한다. 10여 년 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는 한 번도 피곤하다거나 힘들다고 느껴 본 일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불자로 지내던 이재상 포교사는 어느 날 좀 더 전문적으로 불교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불교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서 포교사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고, 2년 동안 주말도 없이 공부한 결과 2000년 3월 일반 포교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재상 포교사는 홍천 76사단, 양평 20사단 등에서 포교사로 활동 중이다. 군법당에서는 장병들이 법회 때 졸더라도 굳이 깨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재상 포교사는 졸고 있는 장병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고 끝까지 깨운다. 아무리 피곤해도 부처님 말씀을 배울 때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훈련에 지쳐서 피곤한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늘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포교사는 일반 포교사 자격 취득 후에도 꾸준한 노력 끝에 2007년 10월, 전문 포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한다. 2007년은 전문 포교사 1기가 배출되던 해이다. “포교사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면 교감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기본인데, 전문 포교사로서 활동하다보니 그런 것들이 더 원활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반 포교사 시절에는 제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져있었던 면이 있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소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상 포교사는 매월 한 차례씩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선다. 봉사활동은 1981년 처음 은행에 입사한 뒤 ‘은행 불자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 아동들을 보면서 윤회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생도 윤회도 아직 잘 모르는 아이들이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장애 아동들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이재상 포교사는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한다. 30여 년을 이어온 봉사활동 끝에 그는 이제 좀 더 철이든 자신의 모습을 느낀다.

이재상 포교사는 은퇴 후에도 부처님 말씀에 대한 공부와 봉사활동, 포교는 지속할 계획이다. 봉사는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봉사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참여하면 더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기범 기자

속세 찌꺼기, 음악으로 씻어요

전통불교문화원, 7.29~31 음악템플스테이

개원 2주년을 맞은 공주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이 휴가철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뮤직샤워 템플스테이는 7월 29~31일 클래식 음악 공연, 음악과 명상을 접목한 프로그램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29일 저녁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김이곤 음악감독(유클래식 대표, 극동아트티비 음악감독)이 진행하는 ‘Funny! Funny! Classic!’로 시작한다. 김이곤 음악감독의 설명이 곁들여져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날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이 마음치유음악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박현숙 숲해설가의 자연소리듣기 체험이 진행된다. 같은 날 저녁에는 미니 클래식 콘서트도 진행한다. 31일에는 한국차명상협회 상임이사 지장 스님의 ‘찻 잔 위의 클래식’이 마련됐다.

참가비는 2인 가족 35만원, 3인 가족 50만원, 4인 가족 이상 60만원이다. 개인은 성인 20만원, 청소년 15만원이다. (041)841-5050

이상언 기자

포교원, 어린이청소년 중심도량 111곳 선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차 어린이청소년 포교 중심도량 현판 전달식 및 우수 중심도량 지원물품 전달식’을 시행했다.

포교원은 이날 안양 한마음선원, 서울 도선사 등을 비롯해 어린이청소년포교의 핵심이 되는 중심도량 사찰 28곳을 추가 선정해 현재까지 총 111곳을 중심도량 사찰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사찰 스님들이 △어린이청소년어린이집 마련기금 지원 △불교서적 및 불교용품 할인판매 △어린이교사 및 인력 지원 등에 관한 포교원의 현실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은정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8월 3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8월 4일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신 치유프로그램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 템플스테이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 39회(20년전통) 여름계절 학기를 개최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 스님의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엔터테인먼트 선무도 공연단 “사천왕”
공연시간 : 오전 11시, 오후 3시



※ 언 제 : 2011년 07월 24일 ~ 2011년 08월 20일 (4주간)
※ 모 집 인 원 : 매주 일요일 10시~15시 입소. 토요일 12시 퇴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 련 회 비 : 1주-49만원 · 2주-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1-021211 (예금주 :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모자 · 개인 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744-1689 / Fax 054)775-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환 불 규 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7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건강회복 • 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3.심성정화 :108배, 참선, 운력
4.정서치유 : 명상치유,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치유, 무용치유,음악치유(판소리,전통악기),생태체험치유
5.교양수업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 일 과 표 >>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00	기상	10:00	선무도 수련	13:00	독서와 사색	17:30	저녁 공양
5:30	새벽 예불 · 좌선 · 행선	11:00	108배 참회기도 · 자아를 찾는 명상	14:00	승마, 다도, 활쏘기, 선무도, 치유프로그램	18:30	저녁 예불
6:30	아침 공양 (주 1회 발우공양)					19:00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8:30	영어회화 · 불교 강의	11:30	점심 공양	16:30	울력(도량 청소 및 정리)	21:00	점호 및 취침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말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평화를

한국불교학회 만해축전 불교학술심포지엄서 불교의 평화사상 학문적 조명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6월 24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만해축전 불교학술심포지음을 겸해 '불교의 평화사상과 소통-원리와 방법' 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선근 동국대 교수, 최유진 경남대 교수, 이거룡 선문대 교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최종석 금강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노덕현 기자



김선근 교수

"석가모니는 중도로 사회를 회통했다."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이날 '고대종교의 회통으로서의 석가모니 인식과 실천' 발제에서 석가모니의 실천은 팔정도이며 이는 욕망과 고행의 중도라고 강조했다.

김선근 교수는 "석가모니는 당시 시대 사조의 두 주류인 짜르와까의 쾌락설과 자이나교의 고행설 이 두 극단을 회통하고 중도에 의해 깨달음을 얻었다"며 "팔정도에 의한 중도의 실천은 고정적인 입장에 의거 하지 않음"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인식은 연기설에 근거해 있다. 연기의 인식으로 중도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 당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실천방향으로 계정혜 삼학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석가모니는 출신을 묻지말고 행위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결정됨을 주장했고, 그래서 계·정·혜 삼학의 실천을 강조했다"며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선 계학에 의해 생활을 가지런히 함이 중요하다. 계학이 기초되 선정을 실천하면 그것이 정학이고 이로서 혜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유진 교수

"원효의 평화사상은 화쟁"



최유진 경남대 철학과 교수는 '원효의 평화사상' 주제발제에서 원효의 평화사상을 내면적 평화와 사회적 평화로 나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원효의 평화사상 중 내면적 평화의 이상적 경지는 일심"이라며 "일심은 탐욕과 어리석음이 없는 단계로 그 근원은 상대적이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원효는 사회적 차원의 평화를 화쟁사상을 통해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원효의 화쟁사상이 다종교 사회인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인 화쟁의 방법으로 △부정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집착을 없앨 것 △긍정과 부정을 자유자재로 할 것 △동의와 동의하지 않음을 자유자재로 할 것을 들었다.

최 교수는 끝으로 "그 무엇보다 원효는 민중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실천했다"며 "직접적인 실천이 없다면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거룡 교수

"정교분리로 평화 이끈 팃낫한"

이거룡 선문대 통합의학대학원 교수도 '팃낫한의 평화사상' 주제발제에서 팃낫한 스님의 평화사상이 오늘날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은 스님이 보여준 실천행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거룡 교수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면서 경험한 것들만 썼습니다"는 팃낫한 스님의 글을 먼저 소개했다.

이거룡 교수는 "팃낫한의 가장 특이한 점은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엄격히 구분한 점"이라며 "팃낫한은 베트남의 모든 운동 중에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사회운동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팃낫한은 1963년 베트남 전쟁 이후 불교정당 창립의 목소리에도 불교정치인을 비롯한 어떤 정치세력과도 결연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정교분리의 원칙이 결국 베트남 디엠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원동력이 됐으며 그 이후 불교인들은 베트남 사회에서 원치 않았어도 정치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진관 스님

"호국불교사상에서 평화 나온다"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한국의 분단현실에서 불교의 평화사상이 통일의 근본 이념이 된다고 말했다.

진관 스님은 불교 평화사상의 시발점을 호국불교사상에서 찾았다.

진관 스님은 "신라·고려 시대 등에 있어 호국불교사상은 한반도 평화를 이끈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2000년에 진행된 6·15 남북공동선언이 호국불교사상을 이은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자주화·민주화·평화통일의 3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즉,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념차이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이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불교평화운동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불자들은 이런 평화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석 교수

"자기비움에서 모든 종교의 평화시작"



최종석 금강대 불교복지학부 교수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평화실천' 발표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평화사상이 자기비움에 기반하고 있음을 들었다.

최 교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은 바로 '자기비움의 완성'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또한 춘다의 공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춘다의 공덕 기회를 뺏지 않기 위한 그런 행위 자체가 철저한 자기비움, 즉 무아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히 불교에 있어서의 평화는 이런 무아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지혜의 사랑에서 이뤄지는 점을 들고 그 실천행은 자비로 대변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 실천행으로 팔정도의 실천을 들었다.

최 교수는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우리는 팔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팔정도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님이 걸어온 무아적 삶과 무아적 평화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자기배움을 통한 인격완성은 모든 종교인의 지향점으로 사회통합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덕사 만공탑 문화재 된다

"만공 스님의 사상 상징적 구현한 걸작"



만공탑

근대에 세워진 만공 스님의 부도탑이 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6월 29일 만공(1871~1946) 스님을 기념하기 위해 1947년에 세운 '예산 수덕사 만공탑'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밝혔다.

만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를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스님으로 만공탑은 전통적 승탑 형식을 탈피한 현대적인 기념탑이다.

만공탑은 육각의 지대석 위에 원형의 괴임돌을 놓고, 그 위에 세 개의 기둥을 평면 Y자 형태로 세운 후, 그 위에 구체(球體)를 올려놓았다. 기둥 세면의 빈 공간에는 오석(烏石)으로 면석을 조성했다. 면석의 정면에는 한글로 '만공탑'이라 음각했고, 좌우측 면석에는 '世界一花'(세계일화), '百艸是佛母'(백초시불모)를 비롯한 만공 스님의 친필과 행장(行狀), 법훈(法訓) 등이 새겨져 있다. 탑 주위에 두른 육각의 돌난간은 후대에 만공탑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만공 스님이 추구한 사상을 상징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함으로 문화재청은 근현대 시기 사찰 조형물로 가치가 있는 점과 각 부재의 구성 요소들이 안정감 있는 비례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문화재 등록은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록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노덕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회 금관상 수상

진정환 학예사, '후백제 불교미술 특징과 성격'



불교미술을 주제로 쓴 논문이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 실시한 학술상 공모에서 금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유창종)가 6월 28일 실시한 제5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모에서 불진 정환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의 '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징과 성격'이 금관상을 수상했다.

진정환 학예연구사의 논문은 '동학미술사학' 제11회에 실린 것으로 후백제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왕실 발원 불사를 살펴보고 그 분석을 통해 후백제 불교미술의 성격 및 형성배경을 고찰했다. 특히 진정환 학예연구사는 후백제 불교미술의 백제적 요소가 일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점을 들고, 이러한 점은 통일신라시대 백제 불교미술 양식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후백제 견훤에 의해 촉발된 백제 계승의지를 표출로 특정형식만 차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논문에는 대상 '천마상'(상금 1000만원)의 장용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서일본지역에 있어서 용별(溶別)기법 계통'를 비롯해 '금관상'(상금 500만원)에 진정환 학예연구사의 '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징과 성격', 윤태영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관의 '부여 구봉리 유적 출토 사에 대한 고찰' 등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동산불교대학 39기 신입생 모집



"끝없는 열정"

신행 교육 포교 전문도량 동산

동산불교대학은
각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통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각종 수행을 통하여 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성인들의 배움의 공간입니다.

▶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18과목
교 수 진	무진장 대종사 학장스님, 주명철 교수, 정엄스님, 김형준 교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최종석 교수, 윤열수 교수, 김호귀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김상현 교수, 묘주스님, 정성준 교수, 권경희 교수, 박종 교수, 정병조 교수, 차차석 교수 외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불교학과 (180명) (토요반 · 목요반 · 통신반 각 60명) · 불교다도학과 (3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 (30명)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11년 6월 27일~8월 6일 [9월 개강학과] 2011년 7월 1일~9월 8일 입학금 250,000원	[불교학과]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토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목요반) (통신반)은 교재와 테이프 제공.

▶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11년 8월 6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6일(화), 사찰음식문화학과 9월7일(수), 불교한문학과 9월8일(목)
불교미술학과 9월8일(목) 개강

▶ 원서문의 · 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고음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경봉문도회 영축선문화재단 설립 추진

“제2의 경봉 출현 발원”

경봉문도회(회장 원산, 이하 문도회)는 6월 28일 열린 제7회 정기총회에서 “‘영축선문화재단’을 설립해 스님의 뜻을 기리면서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제2의 경봉 스님의 출현을 발원하며 인재불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도회는 “2012년 경봉 스님 탄생 120주년, 열반 30주기를 맞아 영축선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며 “법문집과 육성법문CD, 미공개 사진 기록을 취합한 화보집 등을 발간해 스님의 생애를 엿볼 수 있도록 하고, 출재가자 모두에게 간화선 이론과 실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양산 통도사 극락호국선원(선원장 명정)은 6월 28일 통도사 무량수각에서 경봉 스님 입적 29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영축총림 대덕스님들과 경봉문도회 스님 및 불자들이 동참해 경봉 스님의 육성법문을 듣는 등 스님의 향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법회에 이어 2011학년도 재단법인 경봉장학회(회장 원명)의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6명, 동국대 학사과정 9명, 중앙승가대 학사과정 13명, 통도사 강원 8명, 선원 및 율원 4개소에 3000여 만원을 전달됐다.

경봉장학회는 승가 인재 양성을 목표로 1989년 법인을 설립한 이래 올해로 21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는 등 교육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심려끼쳐 죄송”



원산 스님
경봉문도회장 · 통도사 제28대 주지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은 추모법회 인사말에 앞서 최근 주지 취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1974년 선방 수좌로 통도사를 드나들며 공부에 매진하던 당시, 통도사 종무소로부터 재무 소임을 맡게 돼 경봉 스님께 조언을 구했다. 스님께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진흙이 손과 발에 묻을 수밖에 없듯, 주어진 소임에 성실히 임하되 너무 오래 맡지는 말라고 조언하셨다. 지금까지도 귀중한 경책이 되고 있다.”

원산 스님은 최근 통도사 주지 취임과 관련해 “심려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전화위복이 되어 향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불사는 세계화의 첫 걸음”

정관 스님, 동국대에 장학금 3억원 쾌척

조계종 종회의원 정관 스님(부산 영주암 회주)과 부산지역 재가불자들이 인재불사에 뜻을 모으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장학금 3억원을 쾌척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6월 24일 동국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관 스님 이하 부산지역 재가불자들이 ‘불교 세계화 장학기금’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

정관 스님은 최근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불교 세계화를 위한 인재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발원했다. 스님은 뜻에 따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허인구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디에스아이엔씨 대표이사), 최금식 선보공업사장, 조성재 비엔그룹 회장 등 각 6000만원씩 출연해 기금을 조성했다.

장학금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추진하는 불교 세계화 인재 육성을 위해 인도 다람살라 등에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유학 온 외국인 학인스님 및 불자 재학생들의 학업을 지원비로 쓰이게 된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원로인 정관 스님은 평소에도 인재 불사를 강조해 왔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며 “스님이 전한 큰 뜻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훌륭한 불자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종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소중한 뜻을 전해 주신 정관 스님을 비롯한 부산 불교계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외국의 학인 스님들과 젊은 불자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세계 각국의 불교문화 관련 기관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장래 촉망되던 공학도의 외도

부산 선양시니어빌리지 원장 허재원



불교계 사회복지의 두각은 부산에서 두드러진다. 부산 내 사회복지법인 최대규모를 운영하는 것도 불교계다. 활동면에서 이웃종교와 비교해도 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계 법인 사회복지관 기관장에는 38살 최연소 기관장이 탄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선양시니어빌리지 허원재 원장.

6월 24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문을 연 선양시니어빌리지 허원재 원장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공학도였다. 경희대 공과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가 불교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어머니인 김수현 이사장의 힘이 컸다. 사회복지법인 선양 이사장이자 도서출판 백광 대표,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사무총장 등 부산 교계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를 어머니로 둔 그에게 어머니는 인생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부자 어머니 덕 본 엄친아지만 부처님 일 값지다는 생각에…

“원래 제 꿈은 청렴한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글씨는 잘 못썼지만 그림만큼은 곧잘 그렸던 기억을 더듬어, 불교미술을 배워 불화 및 개금불사 등 불단을 조성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절집의 일은 단조로웠다. 더욱이 사업으로 번 돈의 대부분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쓰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복지관의 차량을 운전하며 독거어르신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해 간사 소임을 거쳤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마쳤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법인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대표, 방문요양센터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했다. 그는 두 시설을 한데 모아 사회복지법인 선양이 탄생하는 힘을 보탰다. 하지만 아직 불교계의 나아갈 길에 염려가 앞선다.

“불교계 부산 청소년 복지시설은 이웃종교 사회복지에 비해 탄탄한 편입니다. 그러나 외형에만 치중해, 오히려 작은 규모의 친숙하고 실속 있는 공간은 이웃종교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불교도만의 남다른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허 원장은 불교계의 고질적 병폐인 청년인재 부족과 결속력 약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재교육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선진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앞선 기술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한 지역 특색을 고려해 지역민이 즐겁게 시설을 이용하는 동네사랑방과 연계해 편하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원하고, 식사하고 놀다갈 수 있는 마을회관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내부적으로도 법인 사무국과 선양시니어빌리지 직원들이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법당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부자 어머니의 덕을 보며 살아가는 소위 엄친아라고도 하지만, 내 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사회복지법인 선양을 대표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051) 711-0102, www.sycare.or.kr

박지원 기자

홍법사, 백중49일 릴레이법문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동련 이사장)는 백중을 맞아 수행정진을 다짐하는 릴레이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홍법사는 7월 6일~8월 14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대웅보전에서 ‘백중 49일기도’를 봉행한다.

7월 6일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스님 법문을 시작으로 13일 중앙승가대 교수산 스님, 20일 전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 27일 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 8월 3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10일 통도사 사명암 감원 동원 스님이 차례로 법석에 오른다. 8월 14일 백중 회향 법회에는 주지 심산 스님이 법문을 할 예정이다.

심산 스님은 “제방 대덕스님들의 설법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수행하는 삶을 발원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508-0345, www.busanbuddhism.or.kr

박지원 기자

백용성 생가 성지 순례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와 대구지역 공무원 불자회(회장 이상국)는 6월 26일 전라북도 장수에 있는 백용성조사 생가를 성지순례했다.

이날 성지순례는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동국대 불교학술원장),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동국대 이사장) 등 10여 명의 스님과 대구 고검 김용주 부장검사, 대구 과학대 권상조교수 등 약 4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백용성조사탄생성지 장수죽림정사에서는 성지순례단을 위한 조실 도문 스님의 즉석법석도 마련됐다.

이상언 기자



UN전몰용사 추모헌화제 ‘불교식’ 봉행

한국전쟁 61주년을 맞아 UN군 전몰용사를 추모하는 불교식 헌화제가 개최됐다.

부산 잎사귀회(회장 문상임)는 6월 24일 부산UN기념공원 상징구역에서 제61주년 UN전몰용사 추모헌화제를 봉행했다.

정각 스님(일붕선교종정,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은 “먼 이국 타향에서 고이 잠든 호국영령에게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부처님의 평화와 자비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법전사 (주지 혜륜)는 칠곡군 다부동 전적비 기념관 앞 광장에서 제30회 순국선열 및 호국 전몰군경 무명용사 합동위령대제를 봉행했다.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회의장 관보 스님은 대회사에서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대비할 불교인의 사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스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순국한 영령들과 일체 고혼, 애혼들을 위로하고 천도하여 겨레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박지원 · 손문철 대구지사장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부처님을 찾아서
스님들과 함께 떠나는 불교 성지 순례단



1차 성도, 티벳(라샤), 아미산, 낙산 대불 6일 (확정)
출 발 : 2011년 8월 17일(수요일) 인천 출발
동 참 금 : 2,050,000 원 (일체경비포함)
접수마감 : 7월 24일 (일요일)

2차 중국, 위해, 석도, 연대 (장보고 유적지) (예정)
출 발 : 2011년 10월 4일(일요일 부산출발). 국적기 이용
동 참 금 : 890,000 원 (일체경비포함)
접수마감 : 9월 4일

3차 출발 10월 23일. 출발예정

※15명이상 단체는 언제라도 출발가능 하오니 문의 바랍니다.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여행사 JCC
전화 02)778-5412 / 팩스 02)771-7165
김재한 010-5514-7852

조선왕조의 역사를 지켜낸 '희생'

내장사,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희묵 대사와 충의사 추모다례재 봉행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이안하고 수호하는데 큰 공을 세운 정읍 지역 선조들에 대한 추모 행사가 봉행됐다.

내장사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과 한국전쟁 61주년을 맞아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결연히 일어난 정읍지역의 승병들의 활약과 유생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승병장 희묵 대사와 안의, 송홍록 등 정읍지역 충의사 추모다례재'를 6월 25일 마련했다.

이날 추모다례재는 지역의 스님과 김생기 정읍시장, 김철수 시의장, 안의, 홍종록 선생 후손, 정읍대대 군 장병 등 200여명이 동참해 선조들의 애국충절을 기렸다.

추모다례재는 상단불공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육법공양, 희묵 스님 행장소개, 영산작법, 추모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의 안위를 위해 일어선 의승군은 물론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수호자로서 희묵 스님의 역할과 의미를 선양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를 대중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돼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장사는 다례재의 정례화를 통해 희묵 스님과 안의, 손홍록으로 대표되는 정읍지역 유생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정읍 지역 역사와 문화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희묵 스님을 비롯한 의승군이 수호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에 이르는 25대 472년, 17만 2000여 가지의 일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조선왕조의 공식 국가기록서이며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 역사서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선정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 실록은 당초 춘추관 사고 외에 지방 사고에도 1부씩 보관돼, 전란 중 춘추관, 충주, 성주 사고가 소실되거나 왜적에게 침탈당했다. 그러나 전주사고 실록은 희묵 스님을 비롯한 의승군의 공로로 내장산에 옮겨져 무사히 보관될 수 있었다. 내장산으로 옮겨진 뒤 안의와



손홍록은 매일같이 교대로 실록을 지키면서 사고를 떠나지 않았다. 당시 영은사(현 내장사)의 희묵 스님과 의병 100여 명도 함께 실록을 굳건하게 지켰다. 이후 국가에서는 이 전주사고본을 근거로 채조에서 명종까지 13대에 걸친 실록을 다시 제작했다. 마니산에 보관된 전주사고본은 병자호란 때 크게 훼손됐으나 현종 때 보수해 숙종 4년에 정족산성에 사고를 지어 옮겨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남원 불교를 모범 신행지역으로"

前 남원불교청년회장 황인술 거사



전북 지역에서 신행단체들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고 하는 남원지역에서 제2대 청년회장을 지낸 황인술 거사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작은 인연이 큰 인연으로 발전하게 된 경우다.

17년 전 남원에서 황인술 거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광고사로 한 스님이 불교행사에 사용할 현수막을 주문했고, 그렇게 황 거사의 불교와의 인연은 시작됐다.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황인술 거사는 스님의 권유로 마침 개원을 준비 중인 남원불교대학에 1기로 입학했고, 본격적인 불교활동이 시작됐다.

"당시 마땅한 건물도 없이 예식장 건물을 빌려 운영 중이던 당시 선원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던 정도 스님이 지역의 젊은 불자들을 모아 남원불교청년회를 창립하면서 본격적인 청년회 활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청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초대 서기수 회장에 이어 2대 남원불교청년회장의 소임을 맡게 됐다. 황인술 거사는 청년회장을 맡으면서 회원들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춘향골 수련원에서 전북지구 청년회원들의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회원들과 가족들의 단합에도 힘썼다.

지역의 불교와 관련된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나서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황 거사는 해마다 한 달 이상의 준비시간을 들여 장엄등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불교청년회를 비롯한 젊은 불자들이 많이 늘어야 지역 불교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황인술 거사는 특별한 수행보다도 생활 속 불교 활동이 곧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황 거사는 현재도 남원불교청년회 지도위원과 남원불교대학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인술 거사는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남원 지역이 가장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신행회, 일미 스님 특강 개최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광주지역 불교계 자원봉사자 회원들을 위한 일미 스님 특별강연을 6월 29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강좌에서 일미 스님은 '서구사회의 불교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미국의 불교현황의 특징 등을 설명했다. 강연에서 일미 스님은 "미국 불교의 특징은 개방성, 수행중심, 진정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는 한국 재가불자들이 고민해야 될 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구체적 실천으로 "진리나 사회적 현상 등을 먼저 알고 열린 시각을 갖고, 일상 속에서 수행을 통해 불교적 체험의 시간을 일반화할 것, 마지막으로 스스로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하는 진정성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한의술로 자비 나눔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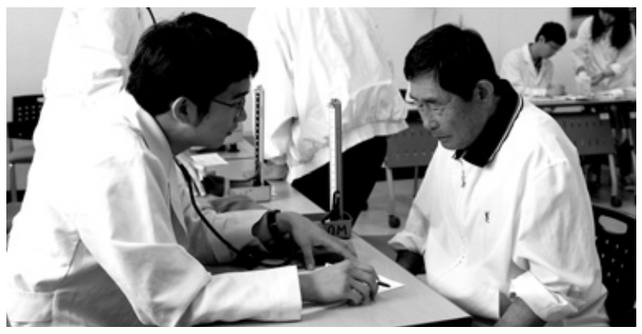
우석대 한의과 350여 어르신 무료 진료

우석대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동아리 F.O.O.M.가 6월 27~29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과 연계해 지역주민을 위한 한방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락형 교수를 비롯해 한의학대학 학생 24명이 참여했으며, 복지관과 지역경로당(대성경로당, 제일경로당)에서 350여 명의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와 침구시술을 실시하고 건강의약품을 전달했다.

치료를 받은 박규례(75세, 성송면 무송리) 할머니는 "오랜 농사일로 온몸이 쑤시고 아팠는데, 손자 손녀같은 학생들이 침을 놔주고 뜸도 떠주니 몸이 한결 가볍고 좋아졌다"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도완 스님은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으며 베푸는 만큼 돌아오게 된다"며 "농어촌 지역주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이 함께 호흡하는 세상을 만드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관은 6월 30일 'MBC 드림장학금'과 '난치병어린이돕기' 지원 사업에 선정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장학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요양원 '송광실버하우스' 개원

순천 지역 노인복지 발전 기대

순천지역 어른들의 노후를 모실 불교계 요양원이 개원됐다.

순천지역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교계 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송광실버하우스가 6월 29일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 현고 스님을 비롯해 많은 대중이 참여했다.

개원식에서 현고 스님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내 집보다 좋은 시설과 가정 같은 분위기, 자식된 마음으로 어른들을 공양하는 요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한 송광실버하우스는 지역의 우수종합병원 및 노인전문병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풍부한 지



식과 오랜 경험을 지닌 우수한 전문 인력의 상담, 간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 서비스 내용은 목욕, 일상생활지원, 이미용서비스를 하는 요양 서비스와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서비스 그리고 재활사정,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비롯해 치매예방교육, 노래, 영화, 종교지원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기능회복서비스, 영양서비스, 지역사회 지원 개발 등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포항 불교사암연합회 신임 회장

제12대 회장에 포항 보경사 주지 효웅 스님

포항불교사암연합회가 6월 27일 정기 이사회와 정기 총회를 열고 12대 회장에 포항 보경사 주지 효웅 스님을 추대했다.

새롭게 추대된 12대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효웅 스님은 1982년 10월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출가, 총무원 사회국장, 감사국장, 재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불국사 사회국장, 호법국장을 거친 뒤 2006년 불국사 선원에서 수행정진해오다 올해 초 포항 보경사 주지로 임명됐다. 사암연합회장에 추대된 효웅 스님은 앞으로 포항불교사암연합회의 결속과 경북 동해안 지역 불교계와 교류할 계획을 밝히는 등 포교에 대한 남다른 원력을 피력했다. 또 지역불교계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효웅 스님은 7월 1일부터 시작해 앞으로 3년간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직을 수행한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젊고 패기 넘치는 새로운 회장의 추대로 앞으로 연합회의 활동 모습들도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로 고무돼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단기출가자 및 행자 모집

◑ 기간 : 일주일 이상 자유, 전액무료
◑ 대상 :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행자 생활에 준하며 사찰의 기도, 참선, 공부, 울력 등 모든 수행에 동참
◑ 단체 시간외 1인 1실, 삭발
◑ 수련 후 바로 출가할 경우 모든 뒷바라지
◑ 대구큰절과 감포 무문관 선방에서수행

※ 행자(예비스님)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무문관 재가수행자 및 스님 모집

◐ 입방 후 문 폐쇄, 하루 한끼 공양 제공
◐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 기간 : 보름이상 자유
◐ 입방날짜는 개인별로 함
◐ 동참금 있음
◐ 문의 : 054)753-8228

※ 감포무문관에서 동안거 입방하실 스님 모십니다.
• 대상 : 법랍 10년 이상인 비구, 비구니
•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2488-8228

회주 우학스님의 신간
"하루 한가지 마음공부법", "감사하고 사랑하며"

쾌적한 법당형 극락 납골 봉안당
문의 : 053)474-8228, 010-6296-0108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3

문화예술 음악전공자 대부분이 개신교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소장



아이들은 문화교육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인간관계, 심적유연성,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 회복 등을 갖게 된다. 사진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의 공연 모습니다.

다문화자녀는 다문화 1.5세대, 2세대로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문화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이들에게는 자라나면서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 마음을 상하는 발언, 왕따와 차별행위를 경험하면서 원초적인 당혹감과 의아스러움이 서려있다. 그래서 다문화자녀에게는 공부 하나 더 가르치기 보다는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면서 심리적 치유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권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바쁜 이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이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서구나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필리핀 정도 외에는 삶에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가 국내 최초의 다문화자녀를 위한 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을 운영하다보니, 다문화자녀의 위축되고 구겨진 마음을 펴줘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아이들은 문화교육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인간관계, 심적 유연성, 자기계발,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회복 등을 갖게 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인데. 오히려 다문화자녀의 경우, 왕따나 따돌림 등으로 심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거나 수근거림, 인종차별, 왕따, 놀림,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경험한 아이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우울증, ADHD(과잉행동), 반항장애, 품행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문제의 경험빈도가 더 많다. 이러한 아이들은 비사회적으로 커나가면서 적개심과 자살충동, 공격성, 총기난사, 대중살포 등으로 비화되어 나타날 소지가 크다. 이러한 다문화자녀의 모습은 그들의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보편적인 성향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교육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어쨌거나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지휘자, 반주자를 구하는 일이다. 음악전공자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문을 두드리지 않으려는 필자의 고집을 부리려다 번번히 낙담하곤 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음악대학에 진학하기 힘든 세상인 것이다. 어느 교회출신이냐가 그들의 전공을 가늠하는 과정 중의 하나로 여겨질 정도이며, 교회에서의 활동이 그들의 네트워크활동에 큰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불자이면서 지휘자를 찾는 것은 햇빛이 쨍쨍한 날 우비입고 다니는 격으로 우매한 상황이었다. 적어도 불교종립대학에 음악대학이 있는 곳이 없으며, 불교에서의 음악은 천박하고 상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자세도 이 시대에 맞지 않다.

멋진 음악은 종교를 더욱 세련되고 멋지게 승화시키는 도구이다. 한국의 문화예술의 대부분은 불교문화로 버텨나가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이 그냥 멈춰서버린 상황이다. 참신하고 새로운 창조와 발전 · 승화시켜 나가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계화시대, 다문화시대에 과연 불교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연구와 기획, 전개방식, 전략 등에 대한 지혜가 모아지고 실행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때이다.

정치전 건강칼럼⑧

왕들도 매일 먹은 쌀밥의 효능



영양학적으로 보면 쌀은 단 맛으로 맛이 좋고 수분이 많아 먹기 쉬우며 다른 곡물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다. 게다가 질적으로 우수한 영양소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고, 반찬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의 과잉 섭취를 막을 수 있으므로 비만이 방지된다. 특히 쌀의 지방 함유량은 밀가루의 1/3에 불과하다.

이처럼 쌀이 맛좋고 영양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달리 한평생을 매일같이 계속해서 먹어도 싫증나지 않고 물리지 않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한의학에서 '쌀'의 의미를 이해하면 결정적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모든 음식과 약은 '한열온량(寒熱溫涼)'의 성질이 있는데, 쌀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 성질(평: 平)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쌀은 오래 먹어도 몸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중용(中庸)'의 성질을 가졌다. 그러니 열성이나 한성이나 어느 체질의 사람이 먹어도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기운을 더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쌀이 천지간의 중화(中和)시키는 기운을 받고 자랐기에 모든 것을 '조화(調和)'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쌀은 몸에 들어가면 인체의 12경락(經絡) 가운데 주로 비위장으로 들어가 작용을 나타내지만 오장을 조화시켜서 두루 평화롭게 하고 생기를 주어 혈맥과 정수가 충실해지고 뼈와 근육, 살집, 피부가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콩이나 팥 같은 다른 곡식은 물론이고 나물이나 버섯, 야채를 비롯하여 어느 것을 섞어 밥을 해도 좋을뿐더러 비빔밥을 해도 좋고 다른 어느 반찬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쌀은 우리 몸의 근본의 하나인 비위장을 보익하는 으뜸이 되는 '약(藥)'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근본이 둘 있으니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정기를 간직한 곳인 '신장(腎臟)'으로 '선천(先天)의 근본'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켜 영양을 공급하게 하는 '비위장(脾胃腸)'으로서 '후천(後天)의 근본'이라 한다. 선천이든 후천이든 근본이 무너지면 목숨을 지탱하기 어려운데, 비위장의 기가 극도로 쇠약해지면 백약으로 다스리기 어렵다.

비위장을 보익하는 약이 '오곡(五穀 : 쌀, 보리, 조, 콩, 기장)'인데, 그 중 으뜸이 쌀이다. 쌀이 한방 건강에서 가장 중시되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중용의 덕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곡식 곡(穀)'에 '벼 화(禾)'가 들어 있는 것이고, 만물을 움직이는 동력인 '기운 기(氣)'에 '쌀 미(米)'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밥이 보약이다'는 선인들의 말이 결코 빈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흰 쌀밥보다 잡곡밥이 더 좋다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쌀이 들어가지 않은 잡곡밥을 매일 먹을 수는 없지 않을까? 물론 쌀에다 각자의 체질에 맞는 곡식을 넣은 밥이 더 좋겠는데, 어쨌든 쌀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음식을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쌀밥'이 아닐까 한다.

한편, 왕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자말자 '자리조반'으로 먹은 것도 바로 '쌀죽'이었다. 점심에도 죽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비장의 습기를 물리쳐 주며 몸에 쌓인 묵은 노폐물을 몰아내고 위장을 쾌청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중국 청나라의 황제들도 매일 잣, 호두, 검은깨 등을 넣은 '약죽(藥粥)'을 즐겨 먹었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12 – 팔정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괴로움은 싫어하고 행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달콤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 음악, 좋은 향기,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감촉 등의 감각적 쾌락에 열중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갈망들은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망, 아름답고 멋진 이성과의 성적인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잠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의 오욕(五慾)이 대표적인 것이다.

범부들은 이런 오욕을 통해서 달콤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지만 범부들은 감각적 욕망은 마치 예리한 칼날 위에 발라진 꿀과 같이 달콤한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감각적 욕망의 본질은 끊임없는 집착과 만족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위험함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행복보다 더 나은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행복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이 되지 않는다.

붓다께서는 탐욕은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고 하셨다. 뿐만 아니라 욕망은 집착하여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행복이 사라지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자신이 경험한 행복이 크면 클수록 고통도 더 크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큰 부자로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여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다가 인기를 잃어버려 사람들에게 잊어져가는 연예인들의 경우는 매우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심한 경우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결국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실제로는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순간은 행복하지만 행복이 사라질까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은 범부들이 즐기는 저열한 행복이며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국 우리를 지옥, 아귀, 축생 등의 악처로 인도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팔정도를 행하는 것, 즉 계율을 지키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을 통하여 경험하는 행복이 있다. 이것은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일어나는 행복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에서 버리고 포기하고 벗어남으로써 일어나는 행복이다.

팔정도를 닦는 마음은 항상 알아차림(sati)과 지혜가 함께하는데 이때 경험하는 행복은 현상에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일어나는 행복이다.

또한 변하는 것[無常]을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특성을 가졌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는 행복에 집착 하지 않고 행복이 사라지더라도 괴로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팔정도를 닦는 마음은 수행을 하는 현재 이 순간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생을 마무리하고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할 때 인간세상이나 천상의 선처(善處)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팔정도를 통해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은 저열한 행복
팔정도 닦는 자체가 결과에 관계없는 행복

그래서 붓다께서는 팔정도를 행하는 것은 처음도 즐겁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불교수행을 하는 것은 팔정도를 닦는 것이고 팔정도를 닦으면 행복해진다. 이는 팔정도를 닦는 것 자체가 결과에 관계없이 행복임을 의미한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수행을 통하여 삼매를 얻거나 지혜가 향상되는 것은 더 큰 행복이고 그로인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탐욕에서 오는 행복인가? 아니면 팔정도를 실천하는 수행을 통한 행복인가?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참선 삼매체험 수련회 · 단기출가 단식

대학생
"삼매체험" 수련회 8일
단기출가 30일

개산 3주년 기념 특별개방, 국민단식으로 반토막 참가비

여름휴가
몸과 마음 쾌청하게

어렵다는 참선 화두공부를 물 흐르듯이 매듭 풀듯이 길 따라 술술 익혀가는 활인선원
– 입재부터 회향까지 선원장 스님 직접 참선법문으로 초보에서 고참까지 공부길 인도 –



참선 단식의 놀라운 효과
– 바로 끊고 바로 먹고, 요요현상 제로 –

○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 면역력 강화, 고혈압 당뇨 체질개벽
피부미용 여드름 · 아토피 여성병(생리불순, 폐경, 생리연장)
○ 금연,금주,위장,대장,소장 등 각종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
○ 통찰로 지혜의 극치에 도달, 운명 천성이 바뀜.
○ 심신개벽,자신감,신념증대,창의성,능력개발,성격개조
○ 우울증,신경쇠약,정서안정,공포불안,대인관계
인내심,집중력,기억력
○ 물만 마시고도 각종 난치병 · 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금강단식으로 몸과 마음이
활기회복
○ 예비감식 보식 없음. 단식부담 없음

〈특징〉
卍 대학생,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힘의 소모를 없애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흐트러진 정신 상태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卍 집중력이 성적으로 이어지는 태도 전환을 갖게 됩니다.
卍 사고력의 확장으로 정서, 자신감, 정신적 안정에 도달하며, 정신적 신체적인 확고한 토대를 이룹니다.
卍 참선을 통한 인생관을 확립합니다.

대학생 수련회 단기출가

수련명	날짜	기간	대상	장소
수련회	7. 4(월) – 7. 11(월)	8일	대학생	안성활인선원
단기출가	7. 4(월) – 8. 3(수)	30일		

삼매체험 수련회

수련명	날짜	기간	대상	장소
삼매체험수련 1차	7. 8(금) – 7. 15(금)	8일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안성활인선원
삼매체험수련 2차	7.22(금) – 7.27(수)	6일		
삼매체험수련 3차	7.29(금) – 8. 5(금)	8일		
삼매체험수련 4차	8.17(수) – 8.24(수)	8일		

단 기 출 가

수련명	날짜	기간	대상	장소
단기출가 1차	7. 8(금) – 8. 6(토)	30일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안성활인선원
단기출가 2차	7. 8(금) – 8.27(토)	50일		
단기출가 3차	7.29(금) – 8.27(토)	30일		
단기출가 4차	7.29(금) – 9.18(일)	50일		
단기출가 5차	7.29(금) – 11. 9(수)	100일		제주원명선원

2011년 9월 수련 및 단기출가 일정, 추석연휴포함
9월 9일(금) ~ 14일(수) 6일간

문의신청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참선전문도량 활活인人선禪원院 (제주 원명선원) 안성맞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

(사)전통불교조계종 종정추대 및 총무원장 취임 대법회



총무원장 혜성 원산 종사



종 정 공해 경호 대종사
(무형문화재 제 9호 보유자)



종회의장 법화 종헌 대종사

원로회의의장 경일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성조
부총무원장 보현
총 무 부 장 혜화
총 무 국 장 법경
문 화 원 장 은봉
문 화 부 장 보경
문 화 국 장 수연

교 육 원 장 율원
교 육 부 장 대원(약천사)
교 무 국 장 지봉

의 전 국 장 법연

포 교 원 장 건성
포 교 부 장 지관
포 교 국 장 정일

사 회 부 장 성산
사 회 국 장 광섭

규 정 원 장 혜공
규 정 부 장 초일
규 정 국 장 법장

감 사 부 장 도안
감 사 국 장 관재

재정위원장 돈오
부재정위원장 법선
재 정 국 장 진광

서울 • 수도권종무원장
대 원(남양주 대원사)

중부권종무원장
청 해(정복사)

남부권종무원장
정 만(검단선원)

(사)전통불교조계종 종도 여러분께 알립니다. 본 (사)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부산 총무원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유자 경호(김송택) 큰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하고 사단법인 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이사장 혜성 원산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총무원에서는 여러 종도님들의 뜻을 모아 명실공히 한국불교의 근본이 될 수있는 거듭나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번 새모임의 날에 종도 여러분들을 뵙고 실천하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날 짜 : 불기 2555년 7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 (음, 6월 11일) ■ 장 소 : 부산시 범일동 1454-17번지 총본산 영축사
(교통부 로터리에서 산복도로 범일 초등학교 중간 / 범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이용)

(사)전통불교조계종 종 도 모 집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있는 (사)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영축사에서는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입종 구비서류 :
  입종신청서 1매(종단구비),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증 사본 1통.

(사)전통불교조계종 총 본 산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 (바라. 작법무)

부산시 범일동 1454-17 귀 영축사 총무원 : 010-2563-5550. 051)635-8975. 070-4128-8975, 팩스 051)635-8975 (계좌번호 : 부산은행 034-01-053502-6 예금주 : 전통불교조계종)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월과정 단기반)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특 강
• 이론 및 실기.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수	5~6시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경호 큰스님 직강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 속성반 (010-2563-5550) 1. 바라, 작법무, 사물. 2.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승무. 3. 사주 명리(성명)학, 신수, 조상영가 찾는 법.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청게(천수바라)	목	5~6시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 다게작법, 삼귀의, 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수. 목	4~5시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의 바라. 작법무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 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발표회, 영산대재, 산신대재, 수륙대재 등)

■ **입학서류 :** 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1장
■ **접 수 일 : 2011년 6월 20일 - 7월 20일** (수시)

(사)전통불교조계종 총 본 산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 (바라. 작법무)

부산시 범일동 1454-17 귀 영축사
총무원 : 010-2563-5550. 051)635-8975. 070-4128-8975. 팩스 051)635-8975

등록 제 40-0863341호
(REGISTRATION NUMBWR)

구단구궁법

위의 표장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RADEMARK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1년 05월 03일

특 허 청 장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 종교법인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부산녹야선원장
· 부산불교전법대학 불교학과 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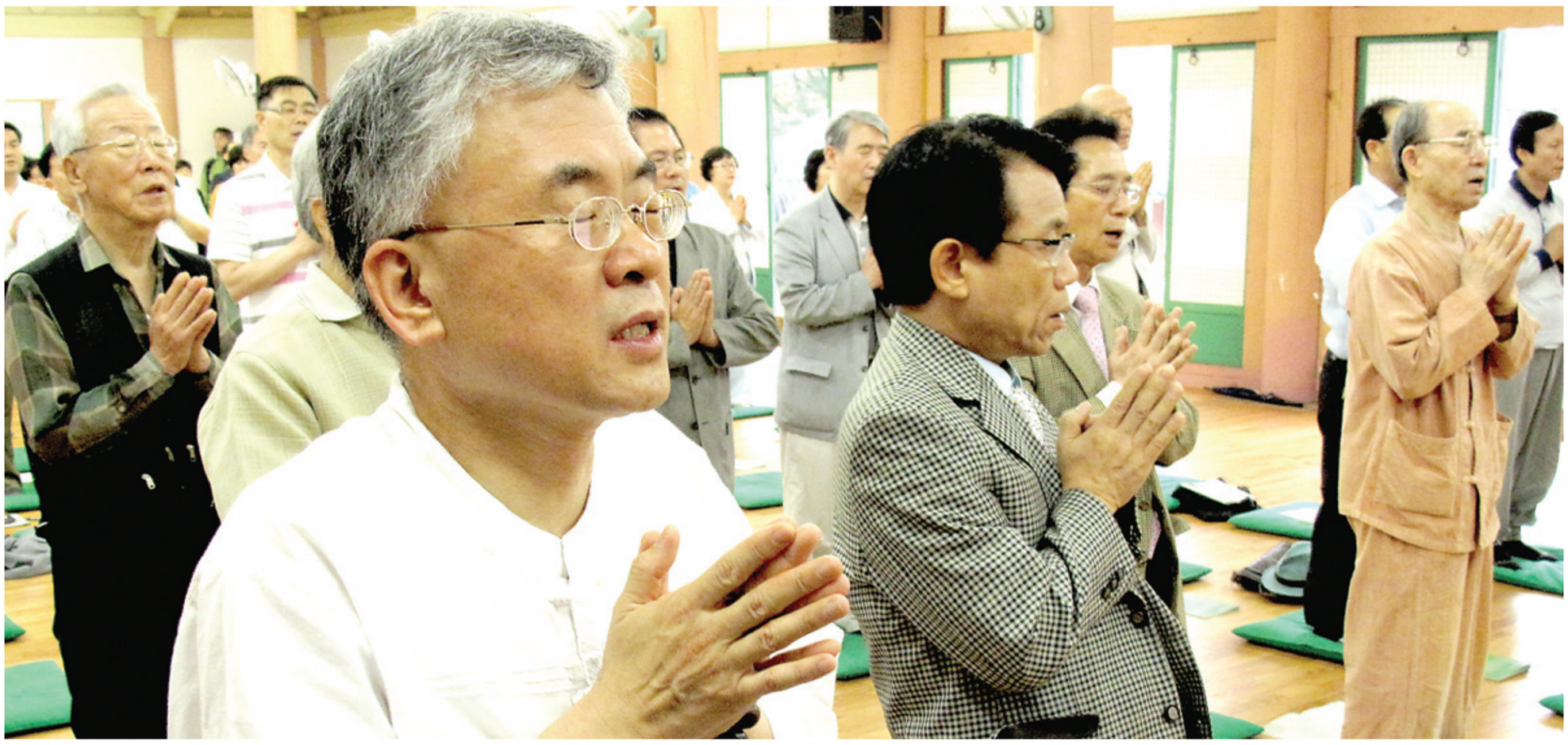
저 작 권 등 록
제 C-2011-003967호
저 작 물 의 명 칭 및 제 호 :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등록사항
성명 : 정흥교, 창작 : 1989.01.01, 공표 : 1998.12.2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통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 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지자 50%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24시간 상담가능
직접상담 : 010-7415-0803

부산불교전법대학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
051)467-4665 / 010-7725-1024



21C 화두, 교수들이 풀어낸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수원 용주사서 교수불자대회 개최



교수불자대회에 참여한 교수들

이 시대의 참가치 실현을 위한 불자교수들의 진지한 구도열기가 화성 용주사를 가득 채웠다.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한 장맛비가 내린 6월 27일. 다양한 이념과 사상, 그리고 계층 분화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교수들이 모여 사회 정의와 복지, 남북통일과 같은 굵직한 화두를 불교적 시각에서 조명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준)가 개최한 교수불자대회에는 100여 교수와 불자들이 참여해 2박 3일간 불교 학술강연을 비롯해 선 체험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진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21C(세기) 화두의 불교적 조명' 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의 5대 결사 일환으로 매월 사회현안의 각 주제를 바탕으로 대토론회가 진행되는 등 불교계 내부적에서 사회이념의 불교적 대안 제시가 주요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날 축사를 위해 참가한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도 불자교수들의 이론적 대안 시와 함께 불자후학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호 스님은 "리처드 기어의 방한을 보면 불자 1명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각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곁에 불교를 퍼뜨리는 이가 훌륭한 포교사며 부처님 제자"라며

2박3일간 낮에는 토론 밤에는 불교문화체험
경쟁 심화 사회에서 불교가치 필 것 서원해

"불교적 가치와 이념을 녹여 학문연찬과 후학양성으로 승화시켜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도 법어를 통해 "교수들의 연구와 노력 또한 부처님의 수행과 다르지 않다"며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인 불망지(不忘知)를 얻어 행동거지 하나 하나에 부처님의 법향이 퍼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교수들은 용주사 효행문화관에서 2박 3일간 각종 학술행사와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첫째 날에는 김규칠 동국대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선(禪)피아니스트 임동창씨의 공연이 저녁 9시까지 이어졌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숲명상학교 교장 마가스님의 지도하에 자비명상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마가 스님은 "교수 불자들이 각종 연구활동 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며 "자비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도록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평화와 경제, 미디어, 사회정의, 복지 등의 분야에서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펼쳐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제가 진행됐지만 주된 관심은 날로 심화되는 경쟁 사회에서 불교적 가치를 어떻게 필 것인가였다.

김규칠 교수는 '21세기 복합시대 생활세계의 화두' 에서 "참된 자유주의가 제대로 확산되려면 경제적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가치 향상 추구가 진행돼야 한다"며 문제의식을 던졌다.

김규칠 교수는 "현대적 가치추구로 인간존엄, 생명존엄, 공동체 의식을 들고 이를 위해서는 깊이있는 사유와 종교성을 넘는 구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근 동국대 교수, 박세일 서울대 교수,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 김용환 충북대 교수, 이인자 경기대 명예교수 등이 나와 '불교와 평화' '한반도 통일과 불교의 역할' '시장경제와 불교 윤리' '불교와 미디어' '불교와 사회정의' '한국 노인복지의 불교 이념적 접근'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불교와 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기독교 사상에 근간한 자유주의 사상과 불교 사상에 근간한 공동체의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류 교수는 "기독교 윤리를 바탕으로 직업의식과 소명감이 나왔다면 불교 경제윤리에서는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에 공평성을 도입할 수 있다"며 "기독교 시장경제의 합리성과 불교 공평사회의 합당성을 조화해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공시민성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순 동의대 교수도 '경제발전 · 경제성과 측정의 불교적 이해' 발제에서 "주류 경제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며 "소득격차 확대 및 갈등 증폭을 해소할 수 있는 불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불교의 핵심논리는 경제, 사회, 자연, 구성원 각자의 건강과 삶을 통합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불교의 기여는 양적 성장에 대한 논리적 반증을 제시하는 대서 시작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인터뷰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대학 불자네트워크에 교수들 참여 절실하다"

21세기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된 2011교수불자대회, 그렇다면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화두는 무엇일까.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불자 교수와 대학생들의 참여 저조로 인한 대학 불교 신행활동의 쇠퇴를 들었다.

최근 대학가에는 취업률 악화로 동아리 활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업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수들의 연구 및 지도활동도 예전과 달리 성과 위주의 평가제가 도입되며 각종 인문활동이 타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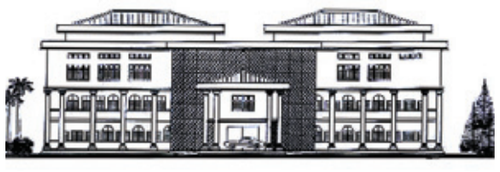
최용춘 회장은 "불자교수들에게 활동을 제안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바빠서' 란 말"이라며 "대학 불자네트워크는 교수들이 이끌어줘야 하는 역할이 큰 만큼 이런 참여저조가 불교의 미래인 대학생 불교네트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창립 당시부터 80년대 까지 130여개에 달했던 지회가 110여개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불교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 그중 부산대에 조차 최근 대학생동호회가 없어졌다.

최용춘 회장은 "이런 와중에 원력을 가지고 직접 후학들을 이끌고 불교유적 답사를 비롯한 경전 공부 등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을 보면 감사할 뿐이다. 불자연합학회지 원고지급을 비롯해 신행활동 지원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교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시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임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불제자를 모시고 싶습니다.
재물 보시도 중요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 또한 값진 보시이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적 봉사입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제자들이 됩시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회 장 목탁 혜은
부회장 금당 법성
포교원장 불도 천장 교육원장 현담 송광 감찰원장 일해 공심

전화 02)730-5670
국민은행 023-501-04-147581

‘정’과 ‘혜’가 하나 되니 허공이 가득 찼구나!



58 선의 중흥 도량 수덕사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定)과 혜(慧)로써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해 혜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혜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바로 혜의 몸이요, 혜는 바로 정의 작용이니, 혜로 나아갈 때 정이 혜에 있고, 또한 정에 나아갈 때 혜가 정에 있느니라. (중략)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지혜와 선정이 동등함이 아니요, 마음과 말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선정과 지혜가 곧 동등함이니라.”〈육조단경〉(월호 스님 역)

우리는 늘 양쪽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흰 것과 검은 것, 좋고 나쁨, 극락과 지옥, 성공과 실패…. 그렇게 극과 극에서 방황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한 목소리로 두 끝을 여의라고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마저도 양쪽 끝으로 밀쳐두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두 끝을 여읜 중도에서 바라보는 실상이 그대로 진리”라고 혀가 닳도록 말하면서, 정작 마음으로는 이리 재고 저리 계산하며 욕망의 그림자를 좇고 있습니다.

그런 중생들을 향해 육조 혜능(惠能) 대사는 수행과 실천이 둘이 아닌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간곡하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누구나 선지식이요 보살이며 아라한이고 부처이기에 미리 “선지식들이여” 라고 불러주는 스승의 아량(雅量)이 무궁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

순례자는 지금 수덕사를 거쳐 덕숭산 중턱 정혜사 아래 만공탑(滿空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덕사는 조선 말기에 흐려질 대로 흐려진 한국 선불교에 새로운 꽃을 피운 경허 성우(鏡虛惺牛; 1849~1912) 선사의 선맥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도량입니다. 달마에서 육조 혜능으로 이어지고 혜능의 법이 다시 이 땅으로 넘어와 아홉의 산자락에 아홉의 문을 열어 면면히 흘러온 선풍이 옹골차게 맺힌 도량인 것입니다. 높지 않아도 높게만 보이고 넓지 않아도 넓게만 보이는 산과 도량, 그 정수리에 정혜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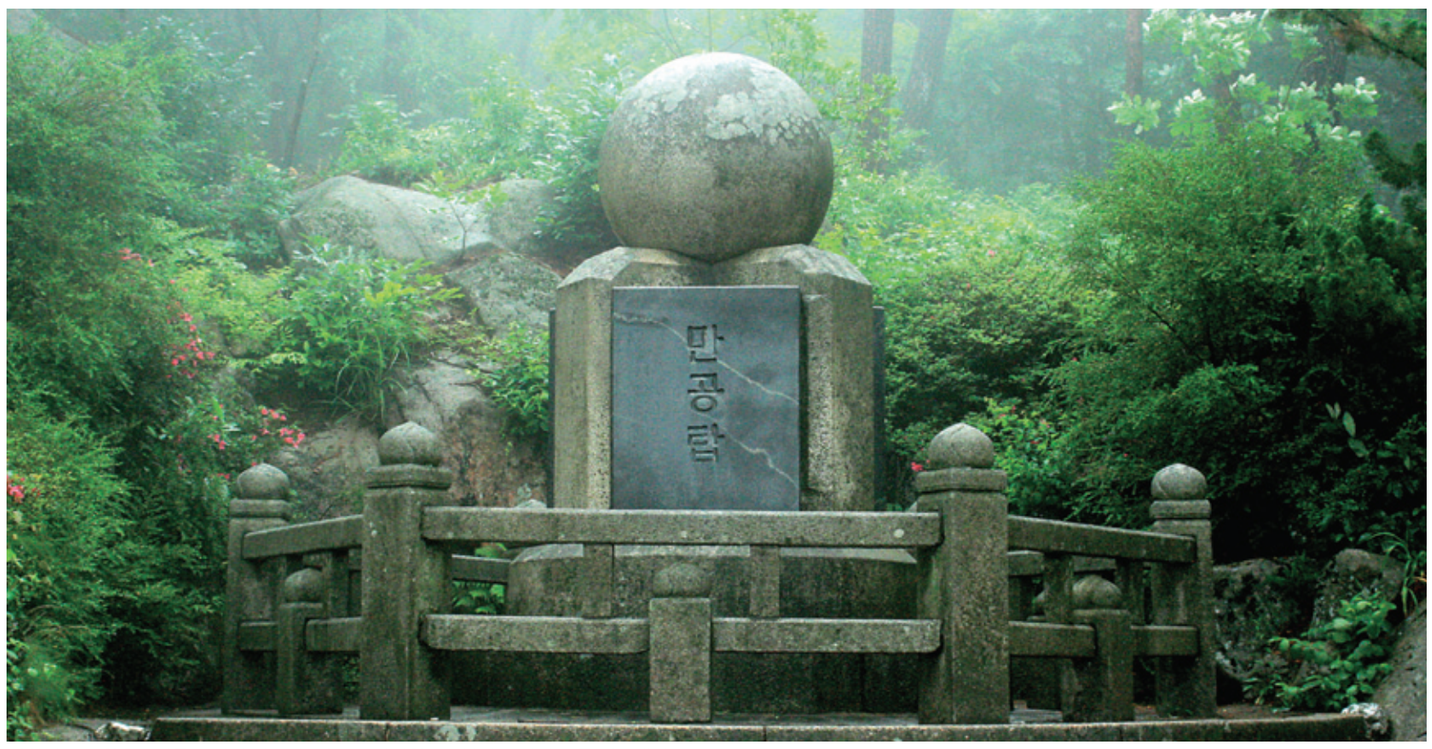
절 이름인 ‘정혜’와 사리탑 주인의 법호 ‘만공’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정과 혜가 둘이 아닌 경지에서는 텅 빈 허공도 가득 차게 되는 것이구나! 무엇으로 허공이 가득 찬다는 것일까? 허공은 허공으로 가득 찰 때 진짜 허공이겠지. 거기에는 정도 없고 혜도 없어서 만공 또한 없으리.

만공탑은 만공 월면(滿空 月面; 1871~1946) 선사의 부도입니다. 선사가 입적한 다음 해에 제자들이 세운 현대식 부도입니다. 둥그런 지대석 위에 팔각의 난간이 둘러쳐져 있고 그 안에 팔각 기단이 놓이고 그 위에 다시 3개의 팔각기둥이 서서 둥근 원상을 받치고 있습니다. 만공 스님의 제자로 동경미술학교 출신인 박중은 스님이 설계한 이 부도의 조형언어는 원형과 팔각형이 주를 이룹니다.

건축이나 탑에 있어 팔각형은 원형의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부도에 있어 ‘팔각원당형’이라는 말은 팔각이 곧 원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공탑은 원형 그 자체이며 정과 혜가 둘이 아님과 허공으로 가득 찬 허공(만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3개의 팔각기둥은 삼보(三寶)를, 팔각기둥은 팔정도(八正道)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사의 생애를 표상하는 부도이고 보면, 삼보와 팔정도 더 나아가서는 부처와 조사마저도 삼켜버린 대기대용의 진면목이 하나의 둥근 돌덩어리로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공 선사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의 제자인 만공 선사는 간절하게 수행하고 활발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정과 혜를 둘로 가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간절한 수행으로 중도실상의 묘용을 얻은 자리에서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법문을 드러냈고, 역동의 시절인연을 따라 중생교화와 애국애족의 정도를 밝혀나가는 길에서



일원상으로 원융무애를 표현한 만공탑.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등록 예고됐다.

만공탑의 조형언어 선불교의 정맥 고스란히 담아
역대 방장들의 부도 모시면서 ‘부도밭 역사’ 시작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대체 그 한 가지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를 화두로 정진에 몰두 했습니다. 25세에 온양 봉곡사에서 새벽종을 치며 깨달음을 얻고 읊었다는 오도송을 되새깁니다.

빈산의 이치와 기운은 예와 지금의 밖에 있는데
흰 구름 맑은 바람은 스스로 오고 가누나.
무슨 일로 달마는 서천을 건너 왔는가.
축시엔 닭이 울고 인시엔 해가 뜨네.

만공 스님은 이 세상과의 인연을 마칠 때가 되어 거울 속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자네 나와 이별할 때가 되었네 그려.”

수행자는 생각하는 모든 것과 움직이는 모든 것이 수행의 결정(結晶)이어야 하고 수행의 귀결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가고 결국 하나 조차 떨쳐 버릴 때 “자네 나와 이별할 때가 되었네” 하며 자신과 이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공탑 앞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장맛비에 태풍까지 겹친 날의 아침나절입니다. 덕숭산은 그윽한 운무에 갇혀 땅과 하늘의 경계도, 바위와 나무의 춤사위도 삼켜 버렸습니다. 짙은 운무 속에서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그 있음과 없음의 모호함 속에 만공탑이 서 있습니다.

계곡물 소리에 실려 솔향기가 산길을 채우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미끄럽습니다. 만공탑 앞에서 잠시나마 사색에 젖었던 순례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 세상에는 더 미끄러운 길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제부터 조금 더 조심하자고 다짐합니다.

수덕사 일주문 옆에 부도밭이 있습니다. 부도밭 터는 제법 넓지만 산 쪽으로 3기의 부도가 서 있을 뿐입니다. 절의 역사는 유구하지만 고승들의 자취가 전해지지 않은 탓입니다. 수덕사 부도밭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덕사 부도밭에는 역대 방장 스님의 부도가 모셔져 있다.

3기의 부도는 덕숭총림의 1~3대 방장을 지낸 혜암(惠菴; 1884~1985), 벽초(碧超; 189~1986), 원담(圓潭; 1926~2008) 스님이 주인입니다. 혜암 · 벽초 스님의 부도는 종형이고 원담 스님의 부도는 팔각의 기단 위에 6개의 기둥을 표현한 중대석과 낮은 연잎을 받침 삼아 일원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만공탑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것은, 원담 스님이 만공 스님을 지극히 모신 제자인 탓일 것입니다.

원담 스님의 부도 정면에는 원담 스님이 친히 쓴 ‘원담’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순례자는 이 이름에서 육조 혜능 대사가 힘주어 말한 ‘정과 혜가 둘 아님’의 도리와 텅 비어서 오히려 가득 찬 ‘만공’의 도리를 다시 발견 합니다.

덕숭산이 둥근 못[圓潭]에 잠겨 세계일화의 꽃을 피우는 상상을 하다가 부도밭을 나옵니다. 늘 미소를 지어 보이시는 인자하신 방장, 원담 스님. 생전에 몇 번 친견했던 기억을 더듬다가 어제 읽은 임종게가 생각났습니다.

올 때에도 한 물건은
온 일이 없고
갈 때에도 이 한 물건은
갈 일이 없다.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일 없어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르름이로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 · 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 제2010-서울성동 0204호 ·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



대장경을 통해 붓다를 만난다

"우리는 대장경을 통해 마술 같은 논리의 붓다를 만나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다."
소흥렬 포항공대 명예교수는 한국 철학계의 태두로 불리는 인물이다. 1936년생으로 원래 개신교 신자였던 그는 불교에 귀의한 지성인이다. 만년에 이르러서야 불교를 만났던 소 교수는 자신의 구도 역정을 담은 〈불심초〉를 펴내기도 했다. 6월 27일,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소흥렬 명예교수는 '대장경에서 만나는 붓다' 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소 명예교수는 "대장경은 붓다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는 매체"라고 말했다. 소흥렬 명예교수는 우리가 대장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붓다를 ▷자비로운 마음의 붓다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 ▷마술 같은 논리의 붓다로 설명했다. 다음은 소흥렬 교수의 기조연설이다. 정리=조동섭 기자

소흥렬 포항공대 명예교수, 2011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학술대회서 기조연설

인류역사가 남긴 소중한 보물 하나가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의 가치를 말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그 중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대장경이 붓다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대장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붓다와 만나게 되느냐고 하면, 무제한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경에서 만나는 붓다를 '자비로운 마음의 붓다' 와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 그리고 '마술 같은 논리의 붓다' 로 말해보고자 합니다.

종교적 믿음에는 기적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체험을 수반하는 것이 종교적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 종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종교적 믿음으로서의 공통점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기적의 체험은 또한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힘에 대한 신비로움의 체험이 되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의 붓다

종교적 믿음은 관념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믿음은 체험적이어야 하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관념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있어야 하고, 그런 실천이 종교적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붓다가 자비심의 실천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극한 자비심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심의 실천을 위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려대장경' 을 만드는 불사로서 재난과 국난을 피하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도 그런 기적의 힘을 믿었습니다.

붓다가 보여준 자비심이 특별했던 것은 자비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 상황 또는 자비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하고 충분하게, 폭넓고 깊이 있게 관련된 모든 상황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붓다의 능력이 그의 자비심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붓다의 혜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문제상황에 대해 대충 이해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버리는 것은 자비의 실천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적인 자비의 실천이 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붓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비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입니다.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의 대상이 되는 우리 이웃에 대한 의식에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기만당한 사람, 배신당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재앙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차별과 대립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심한 좌절감과 벼랑 끝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환각에 시달리고 망각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소외감과 허망함으로 인생무상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붓다의 자비심은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현실 세계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자비를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의 세상에는 여전히 자비의 실천을 요하는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와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종말의 위기에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의 모순과 고독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허무감을 이겨내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붓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런 붓다의 대자대비하심, 붓다의 자비로운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결코 자만할 수도, 오만할 수도 없습니다. 결코 종교적 광신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종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만들게 하는 붓다의 자비심이고,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하는 붓다의 자비심이지만, 그 자비심을 우리 스스로 실천해야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적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붓다의 자비는 그러한 우리 마음을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의 또 한 가지는 영혼 불멸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불멸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줍니다.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게 되면, 나중에 그곳에서 영혼으로 다시 만나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의 생애에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몸이 생명을 다하면, 두뇌 기능이 멈추고, 마음의 기능도 끝나버리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영감을 받는 체험, 영혼으로 감동하는 체험, 영력을 느끼게 하는 체험, 영혼과 영혼이 교감하는 체험은 특이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감하는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적 소망 때문에 종교에는 영혼불멸을 약속하는 내세의 신앙이 있습니다. 영혼불멸의 천국을 말하면서, 영혼불멸의 지옥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한편의 작품이 되게 하면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게 한 수도자들이 있고,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념적인 실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영혼의 힘이라고 할 어떤 힘에 끌려서 헌신적으로 살아간 삶입니다. 영력으로 실천하며 살아간 생애가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 마음에 살아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장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붓다는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입니다. 대장경은 한편의 작품이 된 그의 생애를 그려주면서, 아름다운 붓다의 영혼과 만나게 하는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붓다의 영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대장경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붓다는 우리의 영혼과 교감하게 하면서, 붓다의 자비로운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붓다는 어떻게 말했을까. 붓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진한 감동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나는 붓다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붓다의 마음이 수반하는 아름다운 붓다의 영혼입니다. 자비심의 실천으로 보답하게 하는 붓다의 영향력 못지않게 아름다운 붓다의 영혼과 만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예술적 감동으로 느끼게 합니다.

붓다의 아름다운 영혼은 끊임없는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돼왔습니다.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미술 등 조형예술 또는 공간예술의 영감이 되어 왔다는 것은 특이합니다. 붓다와 만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재현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모든 예술작품은 작품의 예술성, 즉 작품의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면서 또한 예술작가의 영혼과도 만날 수 있게 하는 매체가 됩니다. 끊임없는 불교 예술에의 영감은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와 만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대장경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붓다의 영혼을 조형예술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하는 불심의 힘입니다.

불사로 국난 극복하고자 했던 힘, 대장경에 담겨
붓다는 자비롭고 영혼이 아름다운 논리의 마술사

마술같은 논리의 붓다

종교가 우리에게 특별한 힘이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혜의 보고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 경전은 그러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보고는 지식의 보고가 아닙니다. 축적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으며, 인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의 진리라면, 지혜의 진리는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데는 그 지혜에 이르게 하는 사유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안내하는 대화에서는 논리적 설득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종교에서 지혜를 전하는 방법에는 그런 논리적 설득과 이해보다는 종교적 권위에 의존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경에서 만나는 붓다는 그런 점에서도 아주 특이합니다. 붓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술 같은 논리로 설득하는 힘입니다.

붓다는 인류 역사상 10명의 수학 천재 중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인물입니다. 수학의 논리 또는 연역 논리에서의 그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붓다의 논리는 연역 논리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비연역 논리의 적용이 그의 설득력을 풍부하게 하고 강하게 해줍니다. 비연역 논리에는 아직 우리가 유형화하지 못한 종류가 많이 남아 있는데, 붓다의 논리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비연역 논리를 유효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역 논리와 비연역 논리는 모두 합리성의 논리입니다. 합리적 사유의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합리적 사유와는 다른 정서적 사유가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아닌 정서적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 설득만이 아니라, 정서적 설득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이유나 정서적 설득에 논리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정서의 논리가 됩니다. 붓다의 논리에는 이런 정서의 논리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붓다는 그야말로 공간 논리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분위기와 공간의 정서에 맞는 논리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분위기는 붓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붓다는 그런 공간 분위기, 공간 정서마다 그것에 맞는 공간 논리를 선택할 수 있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붓다와의 대화를 기록하고자 한 경전이 방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설득의 논리로 안내해준 붓다의 지혜는 철학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논리적 설득에 근거한다는 공통점을 넘어서면, 붓다의 지혜는 철학적 지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논리가 붓다의 논리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와 같은 철학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종교적 신비의 세계에까지 설득의 논리로 접근하게 합니다. 논리적 이해와 설명의 가능성과,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한계성을 명확히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비의 실천으로 그러한 세계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마술 같은 붓다의 논리와 바다처럼 넓고 깊은 붓다의 자비로움에 다시한번 감동하게 되는 우리는 아름다운 붓다의 영혼과 만나게 됩니다. 붓다의 영혼과 만날 수 있는 조형예술의 공간을 찾게 됩니다.

붓다의 논리는 그가 존재하게 된 공간의 분위기와 정서에 맞게 그가 선택하는 공간 논리입니다. 그것은 조형예술의 논리이면서, 대화예술의 논리입니다.

대장경에서, 대장경을 통하여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의 붓다를 만나서 종교적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붓다를 만나서 마르지 않는 예술적 영감을 얻게 됩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9〉

마음에 달통하면 선사다

학승이 물었다.
"일구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은 "응" 하고 대답했다. 학승이 한 번 더 물었다. 그러자 조수 스님이 말했다.
"나는 귀머거리가 아니야."

問 如何是一句
師應諾 僧再問
師云 我不患聾

일구는 선사들이 찾아오는 객승에게 한 마디 던지는 어떤 '한 마디'이다. 그 한 마디는 우주를 함축 해놓은 한 마디일 수 있고, 지상에서 가장 깊고 오묘한 도리가 담긴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정답의 힌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그냥 "응" 하고 누군가에게 응대하듯이 한 마디 툭 던지고 말았다. 학승은 조주 스님이 분명 일구를 던져주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거듭 물었다가 선사의 핀잔을 받고 말은 것이다. 분명 일구는 맞지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선사들의 선문답은 어떤 경우는 너무 깊이 생각하면 답을 지나치는 수가 있다. 특히 조주 선사는 일상사에서 대답을 가져 와서 들려주곤 했다. 이 일구도 깊이 나아가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답이 풀릴 것이다. 동시에 모든 이치와 통해 있는 오묘한 것까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갓난아기도 6식(六識)을 갖추고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급류의 물위에서 공을 친다."

問 初生孩子 還具六識也無
師云 急流水上打毬子

사람이 급류에 떠내려간다면 어찌 거기서 한가히 공을 칠 생각을 하겠는가? 보통 떠내려가지 않으려는 생각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금생 한 생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수많은 세월을 윤회하며 길들여지고 습관 된 생명체이다. 그런데 어찌 어린 아이라고 습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육식(六識)은 눈·귀·코·혀·몸·뜻이 받아들인 것을 헤아리고 분석하고 느끼는 의식(意識)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이든 어른이든 별 차이가 없다. 우리의 의식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흐르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낀다.

그런데 이런 의식의 작용은 어린아이에게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면서도 공을 치는 것과 같다. 급하게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는 것이 바로 전생부터 배인 습성이라는 말이다.

학승이 물었다.
"하나하나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직 노승과는 백보(百步)나 차이가 있다."

問 頭頭到來時如何
師云 猶較老僧百步

어떤 사람이 하나하나 동양의 철학과 불교를 알아서 나중에 전체를 다 통달했다고 해도 선사와는 항상 백보나 차이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사는 아는 것을 떠나있기 때문이다. 선사는 앎에 의지해서 진리를 설하고 사람과 대담하지 않는다. 앎은 전체를 알 수 없다. 앎은 오로지 아는 것만 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때문에 앎으로는 우주의 진실을 꿰뚫을 수 없다. 알 수 있는 세계보다도 알려지지 않는 모르는 세계가 더 많기 때문이다.

선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스승이 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통달해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세상은 마음이 만든 세계이다. 때문에 글자는 몰라도 마음에 대해서 달통한다면 언제 어느 곳에 가도 그 일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선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다. 삶에 연연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경시하지도 않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매순간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마치 어머니는 어린 자식을 끝까지 돌보듯이 선사의 중생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하니 그가 붓다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50
한국선과 선어록 20

무경실중록(無竟室中錄)

때와 장소에 걸림이 없어야

무경자수(無竟子秀: 1664~1737)는 전주 출신으로 성은 홍(洪)씨이고 호는 무경(無竟)이며 자는 고송(孤松)이다. 12세 때 문식(文式)한테 출가했고, 추계유문(秋溪有文)의 법을 이었다. 저술로 〈무경집〉 3권, 〈무경실중어록〉 2권, 〈불조진심선격초〉 등이 있다.

〈무경실중어록〉 2권은 1738년 임실 신흥사 개판본이 전한다. 제1권에는 시문으로서 게시(揭詩), 고시(古詩), 절구(絶句), 율시(律詩), 게찬(偈贊), 고사(古詞), 고어(古語) 등 226수가 수록돼 있다. 제2권에는 8편의 문(文), 3편의 〈선가일용〉과 부록으로 선교대변(禪教代辨)이 수록돼 있다.

특히 제2권의 내용에는 무경자수가 이해한 선법 및 그 요의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인들에게 제시해준 횡수법(橫竪法)의 대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초의 일심에는 두 가지 횡수(橫竪)가 있다.

먼저 생멸문의 횡수는 교언(教言)에 의거한 것으로 때와 장소[時·處]의 횡수이다. 말하자면 때와 장소에 걸림이 없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원융문(圓融門)이다. 이것은 곧 불혜(佛慧)로서 조(照)·적(寂)을 쌍차(雙遮)하는 것이다. 다음 진여문의 횡수는 법언(法言)에 의거한 것으로 이것과 저것[彼·此]의 횡수이다. 말하자면 피차가 상망(相望)하는 것은 수(竪)이고 피차가 불상망(不相望)하는 것은 횡(橫)으로서 이것이야말로 항포문(行布門)이다. 곧 이것은 조의(祖意)로서 조(照)·적(寂)을 쌍조(雙照)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佛)·조(祖)가 융통하고 차(遮)·조(照)가 불이한 도리야말로 곧 일심에 즉한 것이다. 이에 그 일심이라는 이름[名迹]을 내세우는 것은 여래선이고, 그 일심의 흔적[痕朕]마저 초월한 것은 조사선이다. 만약 이것을 일용생활에 비유하면 여래선은 한낮의 달에 해당하고, 조사선은 한낮의 태양에 해당하며, 이 둘을 융통시킨 선법은 한밤중의 삼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무릇 일심의 두 가지 횡수법을 모르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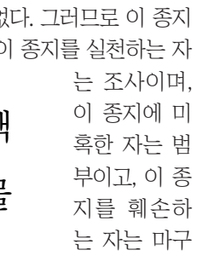
> 무경자수가 이해한 선법과 요의를 다룬 책
> 유·불·도는 하나라는 삼교설 주장한 인물

다음은 천태원돈의 관심법의 대목에서는 삼제원융이 곧 일심을 바탕으로 성취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서 격외참선의 대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선은 곧 고인의 조정(祖庭)으로서 참선납자로 하여금 곧바로 격외도리에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격외도리에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린다면 의리(義理)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종의 선교방편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몰자미한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다. 무릇 납자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공안을 제기해 공안을 참구하라고 말한다.

한편 선가의 정편설(正偏說)의 대목에서는 본래부터 사람들 모두한테 원만하게 구비되어 있는 성품에 대해 설한다. 곧 무극(無極), 성품을 지니고 있는 하늘은 그대로 원원적적(圓圓寂寂)해 애초부터 현현하고 묘명하다. 그 가운데서 처음에 정(正)과 편(偏)이 회호한 것이 선도가 비롯된 까닭이었고, 홀정(忽正)·홀편(忽偏)으로서 정편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선도의 작용이었으며, 능정(能正)·능편(能偏)으로서 편정이 끝이 없는 것이 선도의 바탕이었고, 바탕[體]과 작용[用]이 일리(一理)로서 자취를 남겨 놓은 것이 곧 선도의 종지였다. 그 선도의 종지야말로 삼세제불이 출현해도 설할 수가 없고, 십지보살의 지위에 오르더라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으며, 분별로도 알 수가 없고 무분별로도 알 수가 없으며, 관찰할 수도 없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으며, 외외하고 탕탕해 천고에 미치고 만세에 전승되면서 분명하게 홀로 우뚝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일체의 진찰에 두루하는 무량한 불조와 팔만의 법장과 1700가지의 공안이 항사의 진묵겁토록 모든 존재가 선도의 종지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이 종지를 터득하는 자는 부처이고, 이 종지를 실천하는 자는 조사이며, 이 종지에 미혹한 자는 범부이고, 이 종지를 훼손하는 자는 마구니이다. 비록 이처럼 불·조·범·마가 다를지라도 종지는 동일하다. 때문에 그 종지의 일(一)·이(異)를 초월하고 그 초월까지도 초월하면 그대로 반야가 현전한다. 이에 물(物)·아(我)가 동일한 근원이고 두두물물이 심체(心體)이고 묘용이다. 그래서 그 종지에 대해 침묵하면 곧 공왕의 증명이 되고 설법하면 노사나의 법륜이 되며, 바탕이 없는 바탕으로서 십허(十虛)를 두루 덮고 작용이 없는 작용으로서 십계에 널리 미친다. 이에 납승이라면 그 뱃속이 마치 드넓은 바다와 같고 금강의 안목을 갖추며 하나의 불덩어리와 같은 정진으로 그 정편의 도리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선가의 참학를 마쳤다고 말할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설령 팔만대장경의 암송을 바다가 뒤집힐 때까지 하고 대법을 설해 자연물이 성불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본분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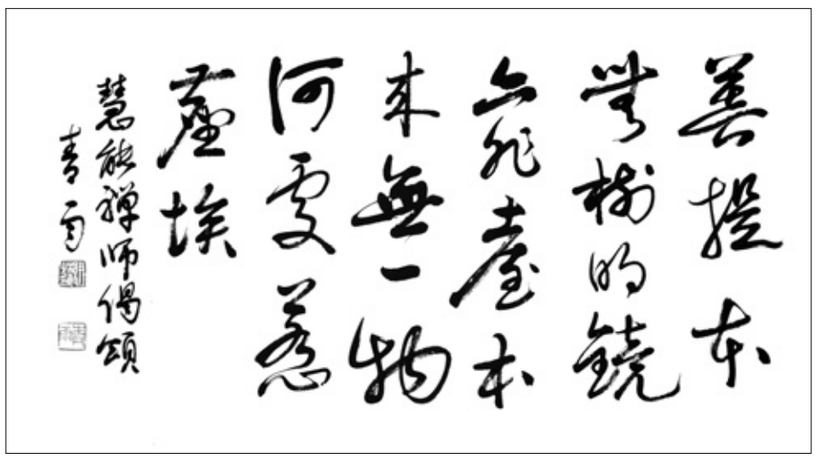
기타 삼왕(三王)·삼주(三珠)·삼신(三臣)이 호용에 대해 각각 세 수의 게송으로 도합 아홉 게송을 설하는 삼위호응호조(三位互應互照), 이회(里會)융통·도회(圖會)융통·총회(總會)융통의 삼위융통(三位融通), 순당(純堂)·향벽(向壁)·문답결의(問答決疑)의 선가일용(禪家日用)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선교대변(禪教大辨)을 수록해 선교에 대한 무경자수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⑱ 육조단경구

본래 한 물건도 없다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진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밝은 거울도 또한 형체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 육조 혜능 대사의 〈육조단경〉

樹: 나무 수
鏡: 거울 경
臺: 대 대
處: 곳 처
埃: 티끌 애

청혜진하래역무보
우능애처무비수리
선사야일대명본
사게물본경
송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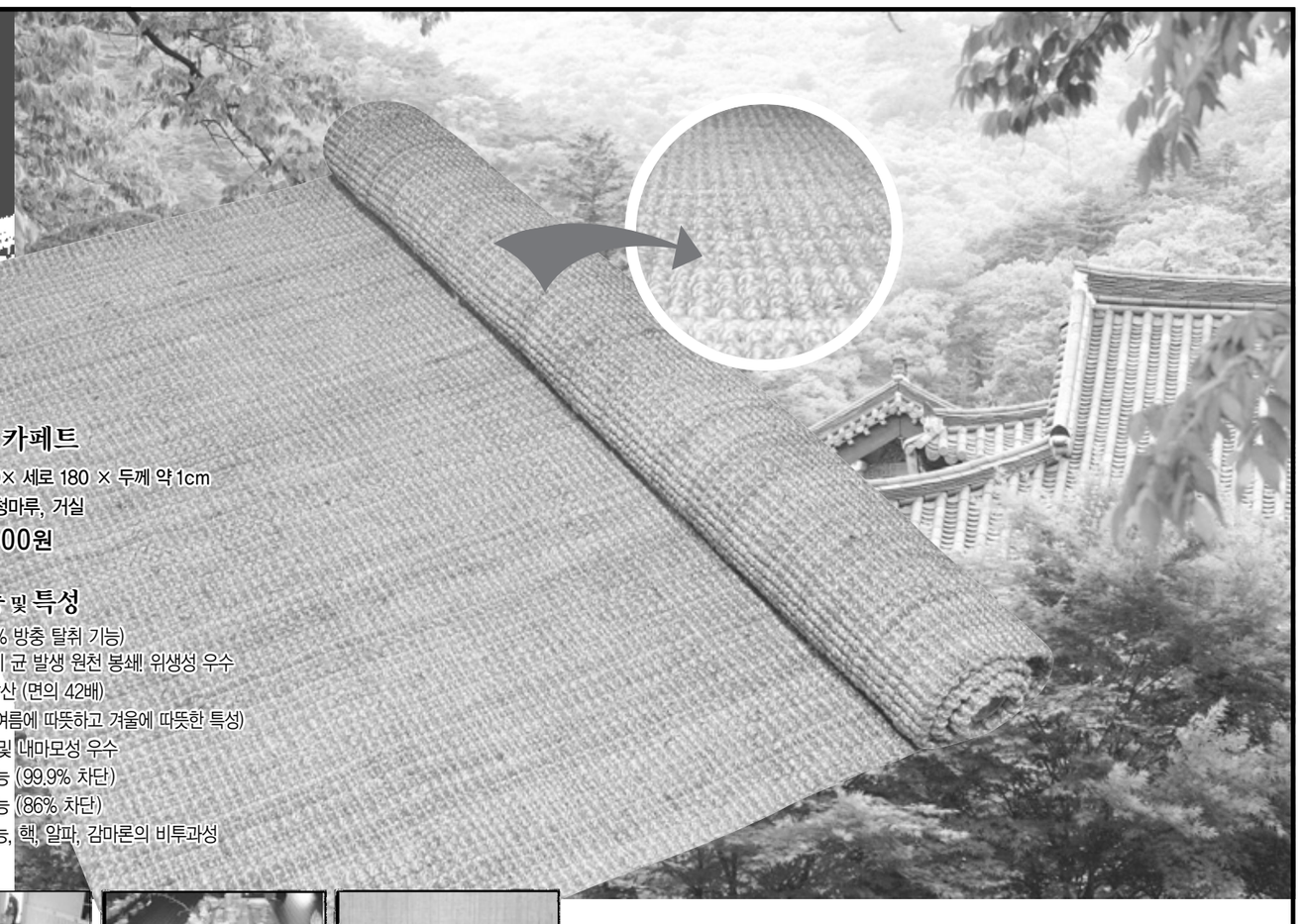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기,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상만사 신경쓸 것 다 쓰면서 소는 언제 키워?

산청 안적사 한주 성원 스님



성원 스님은 … 1958년 불국사 석굴암으로 출가하여 다음해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대종사의 문하로 입실했다. 1961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은 뒤 30여 년 동안 각종 종무소임을 맡았다. 소임을 맡은 가운데 〈금강경〉 10년 독송의 발원을 성취했고 일종식과 장좌불와의 관음100일기도 성취, 1000일 간의 〈반야심경〉 사경과 〈금강경〉 〈법화경〉 사경 등을 원만 회향 했다. 1988년 이후 제방 선원과 토굴 등지에서 수행에 전념해 오고 있다. 〈수행 날개를 달다〉 등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장마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여 전화를 드렸다. 여전히 밝고 건강한 목소리로 "그렇지 않아도 자네를 생각하고 있는 참"이라고 하셨다. 반가움의 표현이거니 생각했는데 "마침 양평에 올라와 있는데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바짝 침이 말랐다.

작년 지리산 매화가 눈을 뜰 무렵에 산청에서 뵈었을 때, 온 힘을 기울여 쓰시던 글이 완성되었음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평생 수행의 결실을 한 권의 책으로나마 남겨 "후배들이 좀 덜 헤매고 밝은 길을 가길 바란다"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던 것.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아침, 도봉산 언저리에서 성원(性元 85)스님을 만났다. 먼저 A4용지에 꼼꼼하게 쓴 글을 복사하여 묶은 얇은 책 하나를 내놓으셨다. '정법송(正法頌)'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 왔다.

조계학인의 바른 수행 길은
정법안장에 있네.
범천왕의 간절한 요청으로
불법이 비로소 시작됐네.

부처님 법의 요지는
세 곳에서 전하셨는데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신
염화미소이고
다자탑 앞에서 나투신
반자리를 나눔이요
사라쌍수 아래서 곽 밖으로 나투신
두 발이시네.

능엄에서 설하신 설산의 대력백우는
진성의 출현 소식이요
진성의 첫 걸음은
두정(頭頂)의 니환궁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네.
업식의 본래 고향은
배꼽아래의 명문이요
업을 벗어나기 위한 첫 출발에는
능엄신주를 반드시 외어야 하고
진성과 업식의 동행쌍수라야
생로병사가 있는 화택을
가히 벗어날 수 있다네.

소를 찾는 목동 조계의 학인아!
삼처전심하신 수행정로에 들어와
용맹정진하여서 환골탈태하는
영방(靈方)을 찾아 나가소서.

글은 읽겠는데 뜻은 이해할 수 없군요.

"자네가 잘못되었거나 내가 잘못된 것이겠지? 우리가 이 한 구절 글로 말이 필요 없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지난 열반재일에 이 글을 완성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평생 짊어지고 오던 짐을 일순간에 내려놓은 기분이랄까? 아무튼 차근차근 읽어보면 뭔가 열리는 것이 있을 것이네."

그동안 생각해 오던 삼처전심(三處傳心)과는 좀 다른 관점이 아니가 싶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나? 우선 정법안장(正法眼藏)이란 말을 먼저 봐. 뭐가 보여?"

좀 난해했다. 갑자기 혼란스러웠다. 정법안장이니 삼처전심이니 하는 단어야 기본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콱 막히는 느낌 내지는 목 줄기가 켕겨 오는 기분. 정법안장이야 선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부처님의 바른 법이 교외별전의 수단을 통해 전승되어 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삼처전심은 말 그대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것이니 염화미소를 비롯한 유명한 세 가지의 일화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삼처전심은 정법안장의 시원(始原)으로 부처님이 가섭에게 비밀하게, 교외별전으로 전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성원 스님이 지은 '정법송'을 눈으로 읽자니 이 두 단어의 개념이 상당히 난해하게 다가왔다. 머리를 긁적이고 물을 한 잔 마셔야 했다.

글쎄요. 특별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보이나' '먼저 봐' '보여' 라는 말로 자네에게 질문을 했지? 그 짧은 질문

삼처전심은 결론 아닌 수행과정
정법안장의 근본원리 설명한 것

에 본다는 말이 세 번이나 들어 있어. 정법안장의 안(眼)자는 눈을 뜻하지? 해석하면 눈에 감춰진 바른 법이 되잖아? 여기에 삼처전심의 의미를 풀어가는 중요한 힌트가 있어. 자, 먼저 염화미소(拈花微笑)야.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시니 가섭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꽃을 들고 가섭이 웃었다는 것만 생각했지 부처님이 든 꽃이 어떻게 가섭에게 전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어. 가섭은 눈으로 그 꽃을 본 거야. 부처님이 든 꽃을 눈으로 인식하고 눈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의미를 간파하고 웃었던 것이지. 그렇게 부처님 마음이 가섭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두 분의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이지. 먼저 안장의 단계, 눈 안에 감춰진 진성(眞性)을 파악하는 지혜를 드러낸 단계가 완성된 것이지."

그러고 보니 우리는 '본다'는 말에 인식하고 느끼는 받아들이는 감각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팔정도의 맨 처음이 정견(正見)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신의 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야. 불교는 마음 닦는 종교라고 하지? 너도나도 마음, 마음 하고 입만 열면 마음타령이야. 마음이 어쨌다고? 마음이 저절로 병들고 악해지고 비겁해지고 그러는가? 참 마음 이라는 말도 자주 쓰던데 마음에 참 거짓이 따로 있다는 것인가? 아니지. 마음, 그러니까 진성이나 반야는 병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병들고 고장 나서 마음작용을 흐리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다고 소란피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잘 알고 몸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마음과 원융하게 하는 것이 수행의 바른 길이야."

염화미소의 일화는 진리를 상징하는 꽃을, 눈으로 바로 보아, 본래청정한 마음을 증득하는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무슨 말이 그렇게 장황해?"

잠시 침묵. 그리고 스님이 '다자탑전시분반좌(多子塔前示分半坐)'를 설명 했다. 염화미소에서 눈 안에 비밀스럽게 감춰진 진리를 터득했으니 부처의 자리와 가섭의 자리가 하나로 계합되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부처인 나와 제자인 네가 함께 있어야 중생병이 고쳐진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스님이 '정법송' 해설부분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다.

'염화미소로 얻어진 진성(眞性)을 눈을 통하여 영입(迎入)하여서 사대육신의 현장에 들어오도록 유인하여서 명궁(命宮)에 살고 있는 목녀(木女, 業識의 비유)의 유혹을 받아 명궁에 합궁(合宮)하게 되면서 진기(眞氣)가 발생하고 그 진기의 위력으로 허물어져가는 인체육신을 수리하고 다니는 그 묘상(妙狀)을 그려낸 것이다. 인식을 통해 들어 온 진성과 명문에 살고 있는 업식이 합가(合家)하면서 묘력을 발생하고 그 묘력으로 업장을 소멸해 가는 묘행이 시작된다.'

'분반좌'의 일화에서 부처는 절대진리 즉 진성이고 가섭은 의식의 상징이니, 중생심을 벗어던진 가섭이 부처의 경지에서 함께 노니는 것이다.

곽시쌍부는 '생사의 초월' 내지는 영원한 진리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 누가 아니라고 하겠나? 진성을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된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곽이라는 껍질을 깨고 두 발로 나간다 이거야. 사대육신의 인체 안에 저장된 업식의 유전자를 지워가는 것이 수행이야. 그런데도 마음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는가? 삼처전심은 그저 세 군데서 비밀히 전한 결론이 아니고 그 자체가 수행의 과정인 것이야. 부처님은 이미 생전에 수행의 길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속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겉모습에 정신을 팔고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하지만 마음도 반야도 병드는 것이 아니야. 육신의 업식이 정화되지 않아서 끌려 다니면서 고통 받는 것이지. 〈능엄경〉에서는 히말라야 설산의 '대력백우(大力白牛)'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놈이 보리(菩提, 진리)의 종자거든. 알고 보면 우리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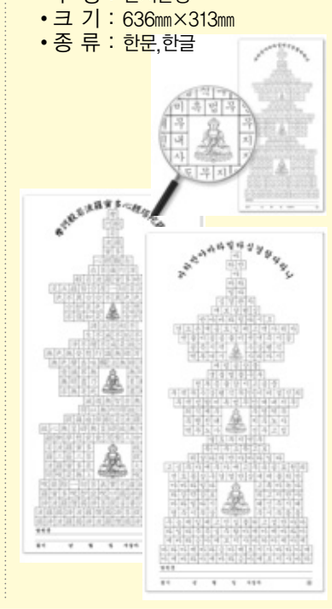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435㎜×300㎜

사경지

반야심경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한글



종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할인가 1,200 (100벌 이상)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할인가 950 (100벌 이상)
C형-남 정가 1,200원



할인가 900 (100벌 이상)
D형-여 정가 1,1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10권 이상)
정 가 40,000원(1015페이지)



불자수지독송(칼라)
할인가 500원 (200부 이상)
정 가 850원 (양면코팅)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 크기 : 53×180cm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옷/여자옷/위패



종이신발(남/여) 종이짚신 1켤레
할인가 1,300원 (100켤레 이상)
정 가 1,600원

앞으로 소를 길러봐. 이 사람아

몸의 구조 또한 삼처전심의 묘행을 보여주고 있어. 전통 사찰의 가람배치도나 티베트의 태장계도, 우리나라의 지형도 역시 이러한 이치를 도상의 기본으로 하고 있지."

스님의 설명은 자세했지만 듣는 귀가 어두워 다 이해할 수 없었다. 진성과 업식의 계합과 출입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수행의 요체라는 입장에서 들은 바는 이렇다.

두정(頭頂), 즉 정수리에는 진성이 드나드는 문이 있다. 불화에서 불보살의 정수리에서 우주의 온갖

진성·업식이 한 집에서 만나
묘행의 힘 기르는 것이 수행

기운이 들어오고 나오는 모습이 그려진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인체로 드나드는 진성의 표현인 것이다. 인체도에서 사람의 머리 부분이 가람배치도의 법당자리이고 불화에서는 부처의 자리다. 한반도지형으로는 백두산 천지에 해당된다.

두 눈을 통해 정법안장이 드러나는 것이니 가람에서는 석등을 밝혀 우주로 빛을 내보내고 불화에서는 좌우의 협시보살을 통해 진성의 빛을 중생계로 비춘다. 한반도는 백두대간의 줄기를 따라 진성이 흐르고 있으니 자장율사의 5대 적멸보궁이 그 기운의 출현이다. 몸의 신장 부분은 가람에서 양쪽 계단으로 설치되어 가교가 되니 불화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그곳에 위치해 있으며 한반도에는 끊임이 없이 산맥이 흐르고 이어지며 정맥을 형성한다.

인체의 단전은 가람의 보제루다. 진성과 업식이 합궁하는 곳이라 했으니 명궁(命宮)인 것이다. 불화에서는 보살의 세상에서 중생계로 통하는 부분으로 묘사되고 한반도의 지형상으로 보면 지리산과 영축산 등 대간과 정맥의 기운을 갈무리하는 큰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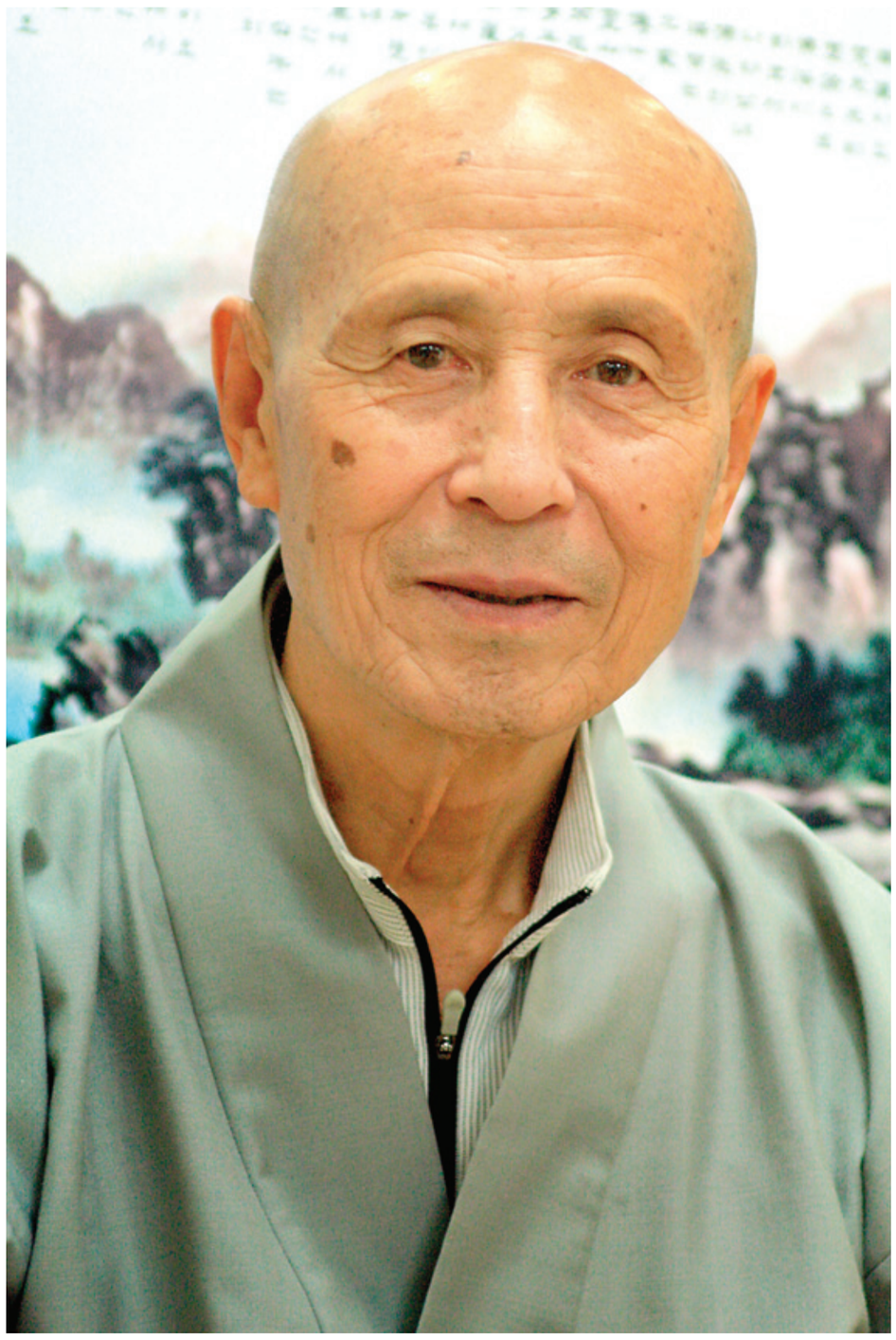
단전에서 융합한 진성과 업식이 두 다리로 내려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람에서는 계단을 통해 일주문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표현 된다. 곽시쌍부다. 불화에서는 연꽃이 만발한 중생계이니 이미 중생계에 극락이 갖춰져 있음이다. 묘하게도 한반도에는 남쪽에 수많은 섬이 있고 바다 멀리 제주도가 솟구쳐 있다.

스님은 '정법송' 해설집의 뒷부분을 잠시 읽어보라며 펼쳐 주셨다. 스님의 진심이 담긴 대목이었다.

" 새벽을 여는 목탁소리 산사의 적요를 뒤흔들고 있다. 동창이 점차 밝아지면서 인기척이 점차 높아진다.

중생병을 고쳐 보려고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이 세상 어딘가에 절절한 수행방법이 있을 법 하여서 세속의 인연을 끊고 찾아 헤맨 세월이 그 얼마였던가?

가고 오고 허우적거리면서 걸어 온 험난했던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더러는 웃고 더러는 울고 이 길목 저 길목을 기웃거리면서 동서사방을 무척이나 드나들다가 이제 겨우 정법안장을 알아서 걸어가고 있다.

아, 아까울사. 날이 저물어 땅거미 지니 이제 그만 나래를 접어야 할 인생의 종착역에 기대 서 있네. 주마등처럼 지나간 나날들의 회상 속에 잠겨 그래도 아쉬움 남아 뒤돌아보니, 어허 서산에 붉게 타는 해는 수미산에 걸려있네. 그 위를 나르는 외기러기 저녁 길을 재촉하고 있구나.

언젠가는 이 길에 다시 돌아와서 그 옛날 부처님께서 밟으셨다는 니련선하의 강가에서 모래를 밟으며 하얀 발자국을 남기면서 지난 시간들을 헤아려 보고 싶구나….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네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지 설산의 '대력백우'를 기르는 목동은 아니잖아. 앞으로는 소를 길러 봐. 이 사람아. 그렇게 세상만사 신경 쓸 것 다 쓰면서 소는 언제 키워? 하하하."

임연태 논설위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할(喝)



동국대 선학과 교수

사람마다 기호(嗜好)가 다르듯이 심신의 치유방법도 각양각색이다.

필자는 지친 육신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새로이 모색하고 있다. 클래식을 감상하는 것이다. 음악감상을 하다 보면 음악의 아버지 바흐도 만나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쇼팽의 〈이별의 왈츠〉도 정작 시공을 초월하여 쉽게 대하게 된다. 모차르트의 신동으로서의 음악적 재능도 후대에 와서 재평가 받고 있다.

'숙달된 작곡가의 기준에서 볼 때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가장 초기에 나온 것은 대개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차 발전해 왔다.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에 작곡한 협주곡, 특히 처음 일곱 편의 피아노 협주곡은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재배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걸작으로 평가 받는 진정한 모차르트의 협주곡은 스물한 살 때부터 만들어졌다. 이는

소리내지 않는 묵할의 경지 이르러야
성적내는 기간 학생·교수간 해후 바래

그가 협주곡을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고 심리학자 마이클 호위(M. Howe)는 그의 저서 〈천재를 말한다(Genius Explained)〉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역시 천재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성공이란 반복적 학습의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선수행을 함에 지도방법이 다양하다.

그 중 하나가 잘 알려진 할(喝)이라 하겠다. 할이란 일반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이다.

선문(禪門)에서 처음 할을 한 경우를 보자. 〈전등록〉 제6권에서 하루는 백장회선사가 대중에게 말했다. '불법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난날에 마조도일선사의 두 번째 할을 듣고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귀가 먹고 눈이 멀었느니라.' 하였다. 이 할을 인용하여 제자의 지도 지침으로 잘 활용한 이가 임제선사이다.

임제는 수행자를 지도하는 수단으로 할을 〈임제록〉 감변(勘辨)에서 네 종류로 나누어 말했다. 감변이란 선승의 문답상량을 말하며, 서로의 견해를 시험하고 깨달음의 깊고 낮음을 살펴본다는 뜻이다.

첫째 금강왕보검(金剛王寶劍)과 같은 할이다. 이 할은 견고하고 예리하며 어떠한 것이라 해도 단번에 일도양단 할 수 있다. 그래서 미혹, 사견(邪見), 망상(妄想)을 한 찰나에 끊을 수 있는 능동적인 할이다.

둘째 거지금모사자(踞地金毛獅子)와 같은 할이다. 백수의 왕으로 황금의 털이 덮인 사자가 땅에 웅크리고서 먹이를 낚아채려는 자세는 주위를 정적으로 몰아넣고 위압하는 듯한 할로 수동적인 할이다.

셋째 탐간영초(探竿影草)와 같은 할이다. 탐간이란 낚싯대 끝에 찌를 매달아 놓고 물속을 노니는 물고기를 부초 즉 영초 아래에 모이게 하여 고기를 잡는 어구(漁具)이다. 결국 상대의 모양을 엿보아 일할(一喝)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하는 할로 유도적인 할이다.

넷째 부작일할용(不作一喝用)의 할이다. 이 할은 앞의 세 할과 같이 소리를 내지 않고 상대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는 작용을 한다. 굳이 말한다면 침묵의 할로써 묵할(默喝)이라고 함이 적절할 것이다. 이 할은 임운무작(任運無作)의 할이나 무공용(無功用)의 할이라 하겠으며 자연 그대로의 어떠한 조작도 더해지지 않은 할이다. 임운이란 '그대로', '자연스럽게' 정도의 뜻으로 운(運)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 할이야말로 무할(無喝)의 할로서 최상의 할이다. 이러한 할이야 말로 깨달음의 경지로부터 토해내는 일구이다.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침묵으로 불이(不二)의 법문에 들게 했을 때의 침묵의 할이다. 이 묵할이 자연류할(自然流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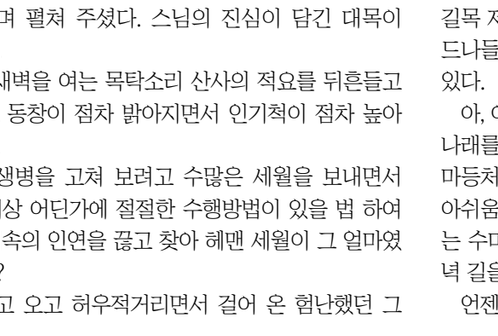
이맘때쯤이면 학생은 한 학기를 결산하는 기말고사를 마치고 교수는 성적을 매기는 시기다. 학생에게는 초조함이 교수에게는 번민이 따르기 마련이다.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묵할로써 서로의 심지(心地)를 헤아린 유마와 문수처럼 학생과 교수간에 홀가분한 마음의 해후가 있었으면 한다. 성적의 결과를 놓고 어느 학생은 앙달머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흥정으로 타산이 맞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저자거리의 상행위가 아님이 성적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인생은 히말라야산에 사는 한고조(寒苦鳥)와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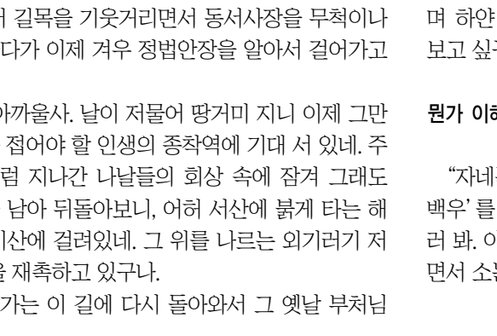
찬덕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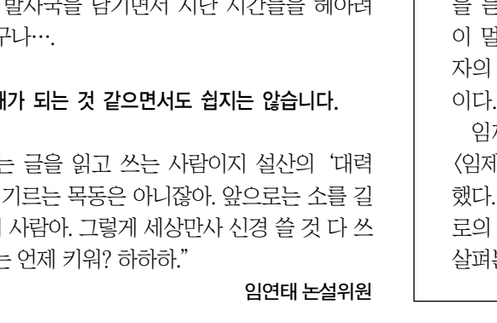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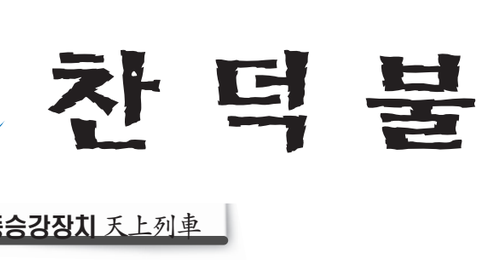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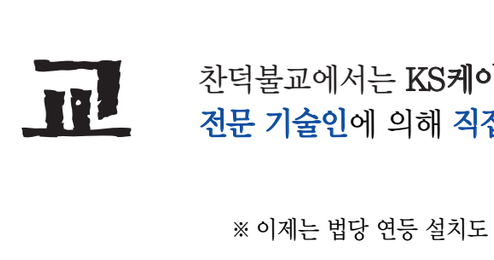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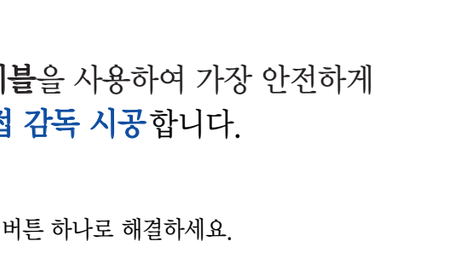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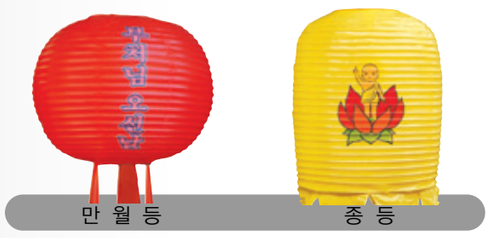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 만월영가등


공 단 등 / 오색공단등


만 월 등 /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사찰이미지 200% UP! 法 법과 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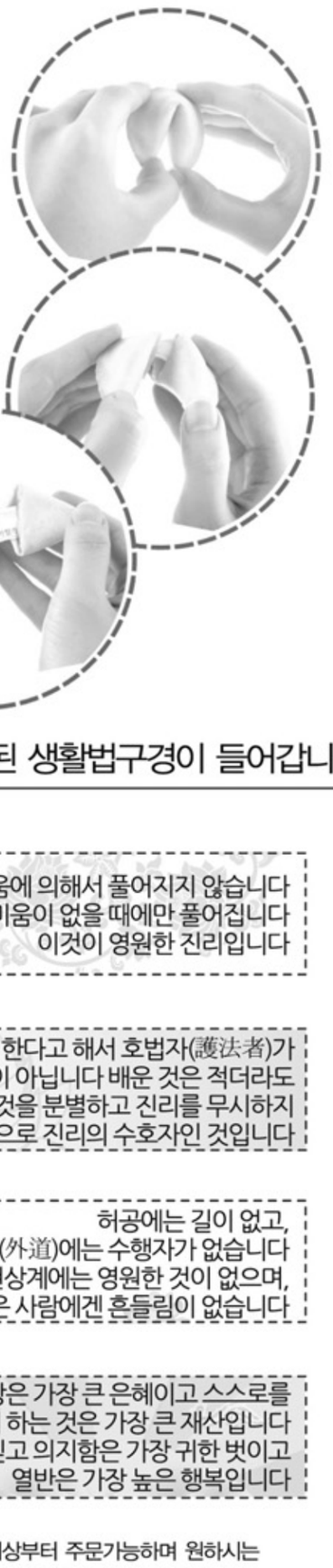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있는
보광사에서 불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광사
02)2603-1005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010-4732-7835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한국불교태고종 수정암
010-9334-3967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주지일광
www.kidobal.com 051)442-6556
소원성취
인등기도 하십시오
신중기도를 간절히 하십시오
대광명사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달음산 정관암 017-571-0097
대한불교조계종 절 어린왕자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051-783-3037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명부전 건립 불사 동참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051)416-4603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암
봉 부처님 오신 날
www.bssw.or.kr
법수선원 02)445-9911, 3411-1139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부산포교원 오세암
051) 751-6103
www.oseam.or.kr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여여선원
052-264-5810/011-9525-9843
봉 부처님 오신 날
www.veoveo.net 051)853-5486~7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010-744-0808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ycookie.com (02) 333-1984 (011) 9724-4565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gunindra.com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dosolam.co.kr 052)287-3308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bba.or.kr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yeongchuksa.or.kr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desungsa.co.kr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beomeosa.co.kr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yeongchuksa.or.kr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yeongchuksa.or.kr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yeongchuksa.or



“살면서 계획한 대로 이뤄진 적 있습니까?”

봉은사 강주 초청 법회, 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

6월 26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실상사 약수암)의 법회가 진행됐다. 스님은 현대사회 불교가 제시해야할 바름[正]의 윤리적 실천은 보시하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정리=이상언 기자

고통의 연속, 인생은 본래 그러한 것

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일까요. 살면서 계획한 대로 이뤄진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본래 어떤 것도 계획된 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괴롭죠? 그래서 인생을 고(苦)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삼라만상이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인의 삶은 각자의 방식으로 연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일은 이뤄질 수도 없는 것이며, 인간의 존재가 고(苦)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적 존재인 다른 사람들이 한 대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업장이 있는 다른 생명과 충분히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적 인간의 실천 도리로 팔정도(八正道)와 같은 ‘바름[正]’을 이야기 합니다.

불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담론의 뿌리에는 항상 ‘고’와 ‘연기’ ‘바름’ 이 있습니다.

이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반야, 중관, 유식, 여래장, 밀교, 천태, 화엄, 선, 정토 등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다양한 내용들은 초기불교 당시 제기되는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와 시간, 공간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현실 진단과 불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부처님 열반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도와 지역적 특성도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하는 대안 모색이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는 출가자 뿐 아니라 재가자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자본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본으로 평가되는 지금 이 시대를 ‘자본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능력도 효율성으로 평가하는 시대니까요.

자본의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할 만한 불교 이론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시대에 연기적 실천과 바름의 실천에 대한 온전한 모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본의 시대에 바름의 실천은 ‘분배’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대승사상가들은 바름의 올바른 실천을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이라고 했죠. 불교적 실천은 자본의 극대화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적 실천은 보시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즉 연기적 실천 과제는 ‘분배’라고 합니다.

분배의 실천을 위해서 이 시대에 걸맞는 바름의 실천에 대한 온전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름의 실천에 대한 온전한 모임은 곧 윤리로 이어집니다.

자본주의 시대 윤리는 연기적인 것을 염두해 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윤리와 정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 상대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 강제적인 요소들까지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2600년 역사와 광활한 지역에서 이미 연기적 실천과 바름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또 다양한 대안을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과거의 것 중 적당한 것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염두하지 않고 있다면 적극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성을 망각한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 자본주의… ‘분배’ 바탕한 바름 실천 필요
> 분배는 바름으로, 바름은 윤리로 이어져야
> 세상은 변한다. 변화를 염두에 두라

불교와 역사는 흡사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 속 대처 가르침을 얻습니다. 늘 변화를 염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역사성을 망각하고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불자는 물론 스님들 사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다고 해도 근본 이치는 변하지 않는 거에요” 라며 역사와 변화를 염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근본 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이고 연기성이 있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삶 속에서 이상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찾아가는 데에는 바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류에 편승하면 갈등없이 무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류에 편승하지 않을 때에는 갈등이 따르고 10~30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善)은 착하고 악(惡)은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착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예나 지금이나 내 삶 속에서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각자 다릅니다. 연기하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자로서 이 시대 불교의 이상성, 이상적인 불교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마땅합니다.

깨달음은 변화…열반의 종교

불교에 대한 깨달음의 종교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깨달음은 무아 · 무상 · 연기 · 반야 · 중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무아 · 무상 · 연기 · 중도에 대한 자각을 통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한 점도 모자람 없이 변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종교보다는 ‘열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전한 자각을 바탕으로 고의 문제가 해소된 상태, 해소 되어가는 변화와 가치를 중시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열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원만(圓滿)의 반대는 치우침입니다. 원만하다 · 치우치다는 말의 기준도 바름을 온전하게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 입니다. 관계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으면 원만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우침이 됩니다.

사람들은 원만보다는 치우침에서 꿀맛 같은 달콤함을 더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꿀맛 같은 치우침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무미건조하더라도 원만함을 실천하고자 해야합니다.

불교의 이상적인 모습은 불교 역사 속에서 많이 변해왔습니다.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각한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했습니다. 아라한은 바름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초기대승 운동가들은 신구의(身口意) 삼업 청정수행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열반에 이르고자하는 보살의 수행인 바라밀을 실천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지혜와 원력 복덕을 원만히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상적이 모습이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으로 모든 지혜와 복덕, 원력을 갖춘 이상적인 인간으로 비춰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생각 속에서 도를 닦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업과 연기적 실천

연기적 실천을 왜 해야 할까요.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은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업은 윤회의 근본원인이고, 출발점입니다. 업은 과보를 만들기 때문에 업이 있으면 반드시 윤회를 합니다.

업이 윤회를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한다면 업이 나[我, 아트만]를 형성하는 실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이 윤회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나의 사람됨이라는 것 속에는 업이 있습니다. 내용에는 예외 없이 하나도 모자람 없이 습관, 성품 모든 것들에 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인격이고 인격이 바탕이 돼 또 다른 나의 삶을 만들고,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 냅니다. 행위나 사고나 습관 모든 것들이 잘못돼 바름의 실천을 염두 하지 못하고 하는 행위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까요. 내 인격의 연기적 실천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을 때, 나의 인격이 연기적 인격, 불교적 인격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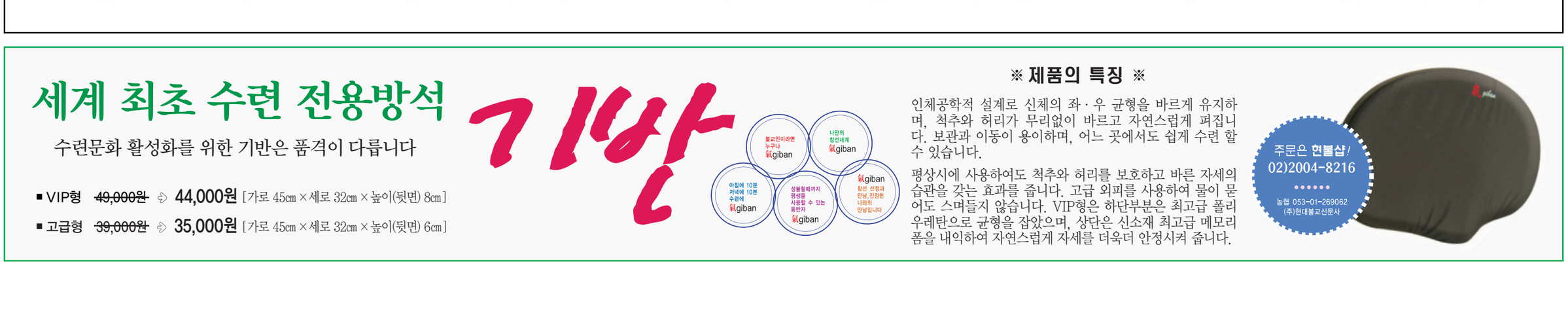
연기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보지 않고 원만함을 버리고 치우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끝없이 왜곡됩니다.

업에 대해서 개인의 운명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은 지금 현재의 연기적 삶을 보다 적극적 윤리적 삶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것이고, 연기적 삶으로 향상시켜가는 가능성입니다.

연기성은 관계성입니다.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 동체로 규정짓는 것입니다. 연기성에 기본을 둔 이상적인 관계를 동체대비(同體大悲)라고 합니다. 분배라는 것도 연기성 바탕으로 바라보면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나의 것의 소멸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준 것’이 됩니다. 이것이 연기적 실천의 기본 내용입니다.

현대 자본의 사회에서 불교의 적극적인 연기적 실천을 고려한다면 보시로 이어집니다. 분배를 바탕으로 하는 보시가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직장생활 똑똑하게 하는 법

번뇌하는 직장인들에게 일러주는 '꽃미남 스님'의 일 처방전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요즘 회사에 나갈 때마다 불쾌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힘들게 대학을 마치고 큰 꿈을 안은 채 대기업에 입사를 했건만, 정작 자신이 하는 일이라곤 선배들이 하다 만 서류정리를 도와주는 일 뿐이다. 중요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드라마의 '실장님'들처럼 멋진 샐러리맨이 될 거란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특히 "이 서류 좀 정리해줘"라는 직장 상사의 말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남에게 부탁할 때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거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저렇게 건방지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직장 후임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신문사에 다니는 B씨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너무 싫어, 그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져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B씨는 그가 너무나 미워 교묘하게 칸막이를 치고 상대방과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더욱이 그 사람과 같이 식사라도 자리가 생기면, '차라리 혼자 밥 먹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 때문에, 혹은 사람들 때문에 "잔소리 해대는 동료가 있어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 일은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잇는 일명 '꽃미남 스님'인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사진)이 최근 번뇌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일 처방전'을 제시했다.

스님은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을 통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잘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 견딜 수 없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울 때 등등 번뇌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스님은 동경대를 졸업한 후 회사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절의 시봉, 수험 강사 등 자신이 일에 치이고 세상에 치여 피폐한 인간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하는 의미와 직장에서의 감정조절, 일에 대한 의욕, 일을 할 때의 자세, 부정적인 습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목표를 못 찾아 멍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등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스님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 '분노'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번뇌는 '나는 이런 일을 하기엔 너무 대단한 존재야'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해' '나를 인정해주는 더 좋은 직장이 있을 거야' 라는 잘못된 번뇌를 만들어 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런 번뇌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결국은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스님은 "내 몸은 지금 여기, 현재를 살고 있지만 머릿속은 어제의 실패나 분노, 내일의 불안으로 끊임없이 방황하는데 이건 마음이 생각에 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마음이 생각에 가 있으면 자연히 번뇌가 많아지고 번뇌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도 행복감이나 충실감을 느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책은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에 집중하기' '마음을 명명백백하게 들여다보기'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일을 하는 데서 거창한 의미를 찾지 않기' '눈앞에 닥친 일부터 하나씩 처리하기' 등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일을 하면서 겪는 고민과 번뇌에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준다.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코이케 류노스케 지음|박현미 옮김|랜덤하우스코리아 펴냄|1만2000원 이은정 기자

사이버 공간서 표류하는 현대인을 위한 책

명상삼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명상시대가 도래했다. 명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늘어가며, 명상과 심리학을 접목한 학계의 연구도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걸까.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은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고,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밤낮으로 성취에 대한 압박감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제 사람들은 일시적인 휴식이 아닌, 영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라며 "그래서 현대는 명상불교시대다"라고 설명했다.

인경 스님은 우리나라에 위빠사나 명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90년대부터 명상과 심리학을 연결해 명상상담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스님은 그간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일반인들이 쉽고 편안하게 명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를 출간했다.

스님은 명상체험과 활동 등을 통해 느낀 점들을 일상 혹은 상담에서 쉽게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명상들을 소개하고 있다. 책에 실린 글들은 그간 스님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명상상담연구원 회원들에게 보냈던 '명상편지'를 엮은 것으로, 서정적인 시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불어 스님이 1년 반 동안 직접 찍은 사진들은 '보는 명상편지'라는 특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책은 제1장에서 '알아차림'에 대한 기반 명상으로 호흡, 걷기, 먹기, 이완 자애 명상이 등을 기본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스님은 책에서 '알아차림'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스님은 "요즘 명상과 관련해 '마음챙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알아차림'과는 반대의 의미"라고 말했다. "'호흡을 느끼고 알아차리다', '생각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또 다시 마음을 챙기라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챙김'보다는 '알아차림'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장에는 명상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상으로 듣기, 느낌명상, 스트레스 관리, 바디스캔, 타임아웃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명상수행을 활용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본래면목을 강조하는 간화선 등 전통수행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스님은 "현대인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지지를 받으며 함께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면 소외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를 느끼게 된다"라며 "때문에 간화선을 통해 본질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명상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않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답함을 느껴왔다면, 책은 속세의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들에게 선문답처럼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인경 지음|명상상담연구원 펴냄|1만2000원 이은정 기자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은?

185개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구절'



"중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산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심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보리행경〉

8만4천권의 경전 가운데 불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명구들을 한데 엮은 책이 출간됐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구절〉은 불교 경전 중에서 마음, 말, 자비, 나눔, 배움, 인연 등 종교나 시대를 초월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구절만을 가려 엮었다.

〈법구경〉 〈숫타니파타〉와 같은 운문 형식의 초기 경전에서부터 〈법화경〉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 속에서 뽑아낸 구절들을 비롯해 〈백유경〉처럼 서양 우화들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이야기들까지 모두 50여 권의 경전들 중에서 185개의 운문과 짧은 이야기들을 모았다.

책은 동국대 역경원에서 법회, 인터넷 등에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경전 300여 개를 우선으로 가려, 이를 다시 前 조계종교육원장 무비 스님, 불학연구소 소장 원철 스님, 유나방송을 운영하는 정목 스님이 200여 개로 추렸다. 이렇게 추려진 원고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번역 · 윤문됐다.

이 책 한권을 보는 것만으로 경전을 모두 읽었다고 할 수 는 없지만, 책은 독자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경전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경전 가운데 현실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주제별로 묶어져 있어, 독자들은 책을 통해 복잡하고 불안한 사람을 사는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적인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엮음| 무비 · 원철 · 정목 감수| 불광출판사 펴냄|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잘됐다. 지금이 삶의 반전 일어날 때"

'올댓 마음공부' 지도법사 법상 스님의 글·사진 담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자꾸만 꼬여서 괴롭고 답답하다' 고 느낄 수 있다. 혹은 부유함은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체념한다거나, 내 운명은 어차피 진흙탕 속이라고 좌절하거나,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주저하거나, 악행을 저지른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 수도 있다.

〈날마다 해피엔딩〉의 저자 법상 스님(고성 운학사 군법사)은 그런 사람들에게 "잘됐다. 지금이 바로 삶의 경이로운 반전이 시작될 시점이다. 내 생에 가장 큰 공부가 시작될 것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깊게 삶을 지켜보라"고 말한다.

책에서 스님은 예기치 못한 사고 · 사건의 발생, 주변사람들과의 불화, 건강의 악화 등 우리가 겪는 생활 속의 경계를 연기(緣起), 업(業),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등 불교적 가르침으로 설명한다.

스님은 마음공부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중도를 잃기 쉬우며, 집착에 빠져들기 쉽다고 한다. 몸과 마음에 힘을 빼고 가볍게 휴식과 여행을 즐기듯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일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터에서 일을 하듯 생활 속 수행을 강조한다. 하지만 스님은 수행법으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습관을 경계한다. 스님은 "법계의 측면에서 보면 내보내는 것과 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시간이 걸린다고 믿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책에서 스님이 소개하는 즐거운 마음공부의 길은 '받아들임' '내려놓음' '끌어당김' '알아차림' 등 네 가지 주제로 묶어 다시 33가지 실천법으로 안내한다.

날마다 해피엔딩|법상 지음|김영사 펴냄|1만2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2~6/2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감사하고 사랑하며	우학	좋은인연
3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4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날을까	성전	마음의숲
5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6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7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8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9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10	명쾌한 깨달음	백창우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불자들 간의 선물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사찰의 각종 행사 때, 불교대학 졸업식 때,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김승동 편저(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1.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2.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 명확 · 풍부하다.

3.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4.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5.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 · 중국 · 한국 · 티베트 · 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 · 원시 · 부파 ·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 · 사상 · 철학 · 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구입 문의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그림 속을 넘나드는 아름다움

오케스트라 연주로 즐기는 가무악극 '화선, 김홍도' 국립극장서 7월 16일까지





'화선, 김홍도'의 한 장면. 풍속화첩을 넘기는 듯한 아름다운 무대가 30인조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악과 한데 어우러져 펼쳐진다.

단원 김홍도(1745~?)는 안견, 장승업과 함께 조선의 3대 화가로 꼽힌다. 이들 중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화가는 김홍도인데 그의 그림 재주는 하늘로부터 타고났다고 할 만큼 모든 화과(畵科)에 능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던 김홍도는 평생의 스승이자 동료인 강세황에게 그림을 배우고, 20살이 되기 전 도화서 화원이 됐다.

김홍도는 그림을 잘 그렸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그려도 아주 우리 맛이 우러나게 그렸다. 당시 문인 사대부들은 모든 것에 중국을 모범으로 삼고 산수나 사군자, 신선도 등 까지도 중국풍으로 그리는 시대였다. 김홍도는 달랐다. 우리 풍속이나 우리 강산을 그린 작품은 물론이고, 중국의 고사인물이나 정형산수 작품에서도 조선 고유의 색을 짙게 드러냈다.

이러한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넘기는 듯한 아름다운 무대가 30인조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악과 한데 어우러져 펼쳐진다.

국립극장(극장장 임연철)은 7월 8~16일 국립극장 국가브랜드 공연인 가무악극 '화선, 김홍도'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무대에서 연다.

'화선, 김홍도'는 김홍도의 그림이 중심이 돼 이야기가 전개된다. 공연의 두 주인공 김동지와 손수재는 김홍도의 그림 속을 헤매며 이야기를 전한다. 김동지는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손수재는 꿈에도 그리는 이를 찾기 위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김홍도를 찾아 나선다. 무대는 '씨름터' '나루터' '장터' 등 마치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넘기듯 한 폭 한 폭 그림 같은 정경이 펼쳐진다. 김홍도의 그림이 활인화(活人畫)로 펼쳐지면서 관객들은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 들게 된다. 또한 22인의 국립국악관현악단과 10인의 서양 실내악, 정가 코러스까지 33명의 연주자가 극의 흐름에 따라 그림 속 악사가 되기도 하고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돼 감동을 배가 시킨다.

국가브랜드 공연인 만큼 국립 예술 단체 3곳이 참여했다.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과 마당극 · 연극의 대부인 연출가 손진책, 안무가 국수호, 작곡가 김대성, 음악감독 엄기영 등 국보급 제작진이 함께한다.

김홍도는 불교에 귀의해 기도로 아들을 낳은 뒤 한동안 불교 소재 그림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모시며 현륭원을 세울 때 현륭원의 원찰인 용주사의 후불탱화 제작에 참여해 조선 후기 불화의 명작 중 하나를 남기기도 했다. 입체감을 나타내는 음영을 넣어 독특하게 표현한 이 불화들은 기존의 화풍을 뛰어넘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공연기간동안 공연과 관련된 김홍도의 작품이 해오름 극장에 영인본으로 전시된다. 전시에는 공연에 등장한 김홍도의 작품 뿐 만 아니라 '무동'에 등장하는 악사들의 악기 등이 실물로 전시된다. (02)2280-4115 이나은 기자

새는 좌우 날개 아닌 온몸으로 난다

선판화가 이철수 작가 30주년 기념전



새는 온몸으로 난다 1.93×125, 2010.

30년 간 목판에 마음을 새겨온 이철수(57) 판화가가 30주년 기념전 '새는 온몸으로 난다'를 마련했다.

이웃에 대한 연민과 시대의 슬픔, 역사의 아픔, 청춘의 사랑, 사람들의 일상을 판화로 풀어냈다. 1981년 첫 개인전을 연 서울 관훈동 관훈갤러리에 다시 작품을 건다. 2006년 이후 6년 만의 개인전이기도 하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목판화가인 이철수는 폭압적인 사회에 보내는 저항의 언어들로, 서정적이면서도 격렬한 선묘판화와 처음 본격화하던 출판 미술운동 등 1980년대 내내 판화를 통한 현실변혁 운동에 매진했다. 그러던 그가 1988년 무렵 자기성찰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판화 영역을 확대해가기 시작했다.

전시에서는 130여 점이 선보인다. 2005년 이후의 신작 55점과 1981~2005년에 만든 58점이 포함됐다. 구작 선정 기준은 그동안 대중이 특히 많이 기억하는 작품, 작가가 마음이 가는 작품, 민주화운동에 활용도와 효용성이 큰 작품 등이다. 전시는 7월 12일 까지. (02)733-6469 이나은 기자

창덕궁, 아름다운 덕을 펼치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문화재청 50주년을 맞이해 8월 28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과 1층 정보검색실에서 '창덕궁, 아름다운 덕을 펼치다'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고궁'을 주제로 한 최초의 특별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의 역사와 의미, 궁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 창덕궁은 건물 중심의 관람이었으나 이번 전시를 통해 창덕궁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창덕궁은 1405년(태종 5) 축조된 이래 조선시대 국정운영의 중심공간이자 왕실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가장 오랫동안 왕의 사랑을 받았던 궁궐이다.

이번 전시에는 창덕궁의 역사, 공간배치의 특성, 영역별 · 전각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 유물 100여 점과 건물내부 사진 및 영상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02)3701-7500 이나은 기자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③

제석의 탄생 1



삽화 김영수

여성과 남성, 인간과 신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제석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제석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매우 자세하고 강렬하게 한다. 인간이 보기에 거의 절대적인 힘과 복을 지닌 신(神)도 한때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언제 읽어도 흥미롭다.

부처님이 제석의 전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펼쳐진 곳은 바이살리다. 바이살리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우기를 보냈던 곳이며 또한 유녀(遊女) 암바팔리가 살던 곳이다. 한때 인간이었으나 감각적 쾌락의 궁극이라 할 수 있는 도리천의 주인이 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불교 경전 속 대표적인 창녀(娼女)가 있다면 단연 암바팔리이다. 하지만 창녀라고 해 그녀가 아무에게나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생각하면 오해이다. 암바팔리는 바이살리 최고의 미녀이자 왕족들만 상대하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본디 고아였다. 망고나무 아래 버려진 것을 정원사가 데려다가 망고를 뜻하는 '암바'를 넣은 이름을 지어줬다. 그녀는 점차 너무나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해 바이살리의 왕자들이 모두 청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왕자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두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누구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왕자들 모두와 공평하게 관계를 맺기로 하고 망고나무 숲에 있는 저택에서 홀로 살면서 궁중에 출근을 하는 창녀가 됐다. 암바팔리의 미모에 대한 소문은 바이살리 뿐 아니라 중인도 전역에 자자했다. 그녀는 부처님의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까지 사로잡기에 이른다. 누구의 부인도 아니었던 암바팔리는 기꺼이 빔비사라왕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기도 했다.

부처님께서 바이살리에 머무시던 어느 날, 암바팔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해 부처님과 스님들을 다음 날 자신의 집에서 공양을 대접할 것을 청했다. 부처님은 그녀의 신분을 알았음에도 기꺼이 초대를 수락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암바팔리를 보고 왕자들은 질투심이 솟구쳤다. 그들은 암바팔리를 방해하기 위해 수만 냥의 황금을 줄 테니 부처님 대신 자신들을 식사에 초대해달라고 했지만 암바팔리는 바이살리를 모두 주어도 싫다고 했다. 흥정에 실패한 왕자들은 암바팔리 대신 부처님을 찾아가 초대를 이틀 뒤로 미루어 줄 것을 부탁했다. 부처님은 이미 수락한 약속을 번복할 수 없다면서 왕자들의 부탁을 거절했다.

다음 날, 부처님은 스님들과 함께 암바팔리의 집으로 가서 그녀가 정성껏 마련한 공양을 먹고, 암바팔리는 기쁨 속에서 망고나무 숲에 있는 자신의 정원을 부처님께 바쳤다. 45년간 부처님은 많은 곳을 다니며 법륜을 굴리셨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 중 암바팔리처럼 특별한 여인과의 인연이 있는 바이살리에서 욕계육천의 주인, 제석의 전생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매우 신기하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으로 재물과 사람을 쥐락펴락했던 암바팔리야말로 도리천이 자랑하는 욕망이 고스란히 인간화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바팔리는 훗날 아라한이 된 친 아들의 법문을 듣고 늦게 출가한다. 그녀는 비구니가 된 후, 위없이 아름다웠으나 부질없이 늙어버린 자신의 육신에 대한 끊임없는 화두를 던지며 수행에 몰두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이룬다.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 썩 괜찮은 인간으로 살았던 제석의 전생은 다음 편에 계속 된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성범스님과 함께 보는 금강경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부처님 말씀 – 밖에서 찾지 마세요.



저자 성범 스님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작은 마음에서 큰마음으로 바뀌어 집니다. 또한 마음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며 그리고 행복하기도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독송하면서 막혔던 부분을 쉽게 풀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이라도 펴서 읽으면 명상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행복은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이치를자세히 밝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불교공부가 재밌어지며 아마도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괴로움이 진실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의 변화에 상관없이 존재해야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괴로움도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만 해도 고통은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고통과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의 감정은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망상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프리미엄급 명품홍삼
하안거夏安居 특별 시은施恩 행사
정수精水와 원기元氣를 보補하는 홍삼紅蔘
藥不活人약불활인 약으로 사람을 다 살리지 못하고
病不殺人병불살인 병으로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며
氣盡命盡기진명진 기운이 다하면 수명이 다 하는 것
是貴養氣시귀양기 기를 기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한다
고품질,소량한정 생산으로
수행정진 중이신 스님에게 한정판매
특별한 대중공양의 소중한인연
엄선된 6년근100% 홍삼주근(몸체)추출진액
(잔뿌리를 넣지않은 순수 주근추출)
맛 · 향 · 효능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품격홍삼
정진중이신 스님들의 피로회복 · 체력증진 · 면역력증진
홍삼진액 제대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特홍삼진액 천天 100ml 60포 87만
홍삼진액 천天 100ml 60포 37만
홍삼진액 지地 100ml 60포 27만
홍삼진액 양良 100ml 60포 17만
※ 5Box 이상 대중공양시 10% 할인
※ 국민은행: 804201-01-210397 기세원 / 농협: 352-0207-2570-93 기세원
名品紅參 氣勢元
6년근 명품홍삼 기 세 원
제품구매 및 문의 053)743-7726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佛祖正脈 불조정맥
Hwa-du 话头 화두
파모보인 선문염송 17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칫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불조정맥 중,영,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화 두 영,중,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지혜의 샘

자타카 이야기 10

-도토리에 놀란 토끼-

구성-김흥인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마하연투어

성 지 순 례

출발확정!!

■ 7월 27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990,000원~~ → 1,790,000원

■ 8월 24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2,040,000원~~ → 1,8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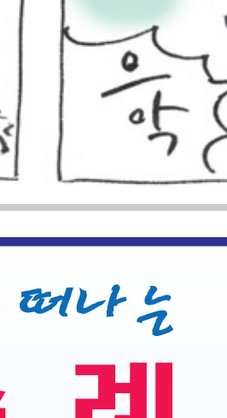
* 모든 경비 포함된 상품입니다.

※ 단체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1,140,000원
출발일 : 7월 20일 / 8월 16,19,24일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7월, 8월 출발 가능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699,000원 부터 ~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 특급 5일. 749,000원 부터 ~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649,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 하 연 투 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風水總論)

오묘불가사의한 현공풍수의
비밀을 완전히 해석한책



- 현공풍수 지리학
- 양균송 삼합수법
- 황제택경 개론

산에 올라 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메는 지사는 참다운 지사가 아니다.形氣를 보고 바로 쫓아 올라가 理氣로 증명하는 한국 풍수학계의 최고봉 장태상 교수의 역작!!

불교TV에서 풍수 강의 중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泰相 책값:37,000원

구입문의 : 도서출판 정산(正山)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온라인 구매 : www.jsbook.co.kr 에서 검색 후 구매 가능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㊲

선시(禪詩), 선문학의 세계

선시는 무아(無我)이어야 한다

선(禪)은 문학이 아니다. 선은 언어도단의 세계로 문자와는 먼 거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승들은 문인(文人)들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선시(禪詩), 선문학을 낳았다. 탈속 무애한 시적(詩的) 영감, 그것은 직관적 사유로부터 발아된다.

깨달음의 세계, 선(禪)의 세계에 대해 읊은 선승들의 게송(偈頌, 싯구)을 '선시(禪詩)'라고 한다. 선문학의 백미는 선시이다. 선시에는 깨달음의 순간을 노래한 오도송(悟道頌), 임종에 즈음해 읊은 열반송(涅槃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선미(禪味)를 느낄 때 읊은 시(詩), 선의 세계를 노래한 시(詩)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선시는 탈속함이 있어야 한다. 해탈한 선승의 입에서 나온 싯구가 그리움 · 이별 · 슬픔 · 고뇌 등 애잔한 감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거나, 중생적인 감성 혹은 음풍농월(吟風弄月)적인 시는 세속의 명시는 될지 몰라도 이른 바 선승의 시(詩)는 될 수 없다. 탈속한 맛이 없다면 그것은 선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세속적 시와 선시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 한편씩 감상한 다음 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하겠다. 모두 다 널리 알려진 명시이다. 먼저 이백(李白; 701~762)의 '정야사(靜夜思; 고요한 밤의 그리움)'이다.

"침상 앞 밝은 달빛 바라보니/마치 땅 위에 내린 서리 같네./고개 들어 산에 걸린 달 바라보다/고개 숙여 고향을 그리워(생각)하네./[床前看月光/疑是地上霜/擧頭望山月/低頭思故鄕]/"

이백은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울분을 안고 평생토록 중국 전역을 방랑했던 그의 심정을 잘 드러낸 대표적인 시(詩)이다. 특히 3, 4구 "고개 들어 산에 걸린 달 바라보다/고개 숙여 고향을 그리워(생각)하네"는 고향,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한 명시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 시 속에는 '그리움'이라는 애잔한 감정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읽고 나면 왠지 마음이 울적, 침울해진다. 수심이 깊이를 더한다.

다음은 고려 후기의 문인인 이규보(李圭報; 1168년~1241년)의 '영정중월(詠井中月; 우물 속의 달)'이라는 시이다. 역시 이규보의 대표작에 속한다."산에 사는 스님 달빛 탐내어/물병 속에 물과 함께 길어 가누나./절에 가면 비로소 깨닫게 되리./물 부으면 달 또한 비고 없게 되는 걸/[山僧貪月色/并汲一甁中/到寺方應覺/甁傾月亦空]" 이 시는 '일체는 모두 공(空)한 것'이라는 것을 달을 통해 묘사해 내고 있다. 산에 사는 스님이 우물에 비친 달빛이 매우 교교해 물과 함께 병 속에 담아 가지만, 암자에 이르러 물을 부으면 달도 함께 텅 비어 공(空)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물의 달을 사랑해 길어가고 싶은 것은 스님이 아니고 아마 이규보일 것이다. 맑고 아름다운 달빛, 보름마다 떠오르면 바라다보면 될 뿐, 탐하면 애착이 생긴다. 애착은 스스로를 구속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되 탐하지 말라는 것이다.

1, 2구는 달빛이 너무 좋아 탐내고 있는 모습은 여느 세속 시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3, 4구에서는 "절에 돌아와 비로소 깨달게 되리./ 물을 부으면 달도 따라 텅 비게 되는 것을"이라며 '일체는 공,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결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이 두 시를 놓고 본다면 이백의 시에서는 번민, 고뇌, 그리움 등 인간적인 애잔함을 불러일으키고, 이규보의 시에서는 애착, 탐욕은 무상하다는 것을 일깨워서 번뇌를 끊게 하고 있다. 이규보의 시는 선시로서도 백미이지만 문학적 가치도 매우 높다. 당송팔대가를 능가하는 시(詩)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선은 '교외별전(教外別傳)의 진리'라서 언어문자를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不立文字] 곧바로 당사자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직시하게 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直指人心, 見性成佛] 그래서 선은 언어의 수식을 뽐내는 시문학과는 강 저편에 있다.

또 다른 선시를 하나 감상해 보자. 남송 때 묵조선 계통 선승인 천동여정(天童如淨; 1163~1228)선사가 지은 반야송(般若頌)이다. '땡그렁 뎅' 하는 풍경 소리가 반야를 노래하고 있다고 한 시(詩)다. 선시 가운데서도 첫째나 둘째를 다툰다.

"온 몸 입이 되어 허공에 걸려/동서남북 바람 가리지 않고/바람과 함께 한결같이 반야를 노래하네/ 땡그렁 뎅, 땡그렁 뎅/[通身是口掛虛空/不管東西南北風/一等與渠談般若/滴丁東了滴丁東]/"

이 시는 선시 가운데서도 '백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풍경소리가 반야를 노래하는 것으로 본 그 자체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시상(詩想)이다. 깊은 직관력을 갖춘 경지라야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소동파(蘇東坡; 1036~1101)는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소리"라고 노래한 적도 있지만, 천동여정의 시는 조금도 가식이나 군더더기를 찾아 볼 수 없다. 매우 문학적이면서도 선의 뿌리인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을 유감없이 읊어내고 있다.

통신시구(通身是口), 처마 끝에 달려 있는 풍경을 올려다보면 그것은 그대로 입 전체다. 무심한 풍경은 동서남북 풍을 가리지 않고 바람과 함께 쉼 없이 반야지혜를 설하고 있다. '땡그렁 뎅' '땡그렁 뎅'. 깊은 산사의 풍경소리는 니르바나로 향하는 반야의 소리, 무명 번뇌를 정화한다.

천동여정선사의 문하에서 수학한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영평사 도원(道元; 1200~1253)은 이 시가 선시로서 단연 최고의 격을 갖췄다고 했다. 도원은 이 선시에 감동돼 여정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선승의 입에서 나온 게송, 즉 선시는 탈속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문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선과 시(詩)의 결합체가 선시이기 때문이다. 선시는 조금도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자기가 있어서도 안 된다. 또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도 안 된다. 선시는 번뇌 망상을 제거해 주는 언어라야 한다. 무아(無我)이어야 한다. 다시 한 구를 더 보도록 하겠다.

"천 척의 낚싯줄 곧게 드리우니/ 한 물결 일자마자 만파(萬波) 따라 인다./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서 고기 물지 않고/ 청아한 달빛 속 배 가득 허공 싣고 돌아오네./[千尺絲綸直下垂/一波載動萬波隨/夜靜水寒魚不食/滿船空載月明歸]"

이 시는 당대(唐代)의 선승인 선자덕성(船子德誠, 미상) 선사의 시이다. 너무나 유명한 선시라서, 남송 때 선승인 야보선사가 재음(再吟)한 이후에는 마치 야보송처럼 알려져 있다. 1구는 무심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2구는 만법일여의 경지, 3구는 고요, 적멸의 경지, 4구는 공(空)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1~4구까지 뭐 하나 번뇌 망념이 끼어들 틈이 없다. 감상적인 것 같은데도 그렇지가 않다. 특히 "맑은 달빛 아래 배에 가득 허공을 싣고 돌아온다[滿船空載月明歸]"는 결구는 이 시의 압권이다. 또 하나의 선시를 감상해 보자.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 밑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 하나 없네./[竹影掃階塵不動/月穿潭底水無痕]"

이 시는 〈금강경 오가해〉에 있는 야보선사의 게송인데 아주 문학적이다. 그러면서도 절묘하게 무집착의 세계, 공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대나무 그림자가 계단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적멸(寂滅)의 경지를 나타낸 것이다. 번뇌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마음을 건드려도 조금도 티끌이 일어나지 않는다. 달빛이 연못 속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 그것은 곧 공(空)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공의 세계에는 흔적이 있을 수 없다. 있다면 그것은 공이 아니다.



제주 법화사에 2006년 건립된 탄허 스님 선시비.

선시, 선문학의 대표적 장르

탈속한 맛이 있어야 선시

이규보, 국내 대표적 문인

번뇌 · 망상 제거하는 언어 중요

엄우 "선과 시의 목적은 묘오"

70년대 중반 국내 문학으로 정착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대나무가 섬돌을 쓸어도"라고 해야 맞는데, 지금 야보선사는 상식과는 달리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쓸어도"라고 읊고 있다. 부사의(不思議)한 경지이다. 그림자와 달빛, 지금 이 둘은 분명 있지만, 실체는 없다. 무집착이고 공(空)이다.

선승들이 읊은 시라면 모두 선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논한다면 선의 경지, 선지(禪旨)를 드러낸 시(詩)가 아니면 '선시'라고 할 수 없다. 공, 무아, 무집착, 무소유, 불이(不二) 일여(一如), 일체유심조, 언어도단 등 선의 세계를 드러낸 시가 아니면 그것은 일반적인 시(詩)일 뿐, 선시는 아니다. 현대 스님들의 시도 마찬가지이다.

선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는 선시이다. 선과 시(詩), 시와 선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천착한 사람은 남송 말기의 이론가인 엄우(嚴羽; 1197?~1253?)이다. 그는 〈창랑시화(滄浪詩話)〉에서 "선의 목적은 오직 묘오(妙悟)에 있다. 시(詩)의 목적도 묘오에 있다[禪道惟在妙悟, 詩道亦在妙悟]"라며 선과 시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묘오(妙悟)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문학사에서는 '시선일여(詩禪一如)' '시선일치(詩禪一致)'라고 한다. 또 그는 선승들의 시는 성당(盛唐) 때까지가 가장 뛰어나고(第一義), 만당(晩唐) 이후는 격이 떨어진다[第二義]고 평하고 있다.

한국 현대문학에서 '선시(禪詩)'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때부터 문학에서 조금씩 '선시(禪詩)'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문학의 한 장르로 정착하게 된 것은 석지현의 〈선시(禪詩)〉(1975, 현암사)이다. 그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중국, 한국 선승들의 시를 모아 번역을 하고 선적(禪的)인 해설을 달아 출간했는데, 한 때는 이른바 선객이나 시인치고 선시 한두 편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후 승려들의 현대시도 모두 선시로 불리기도 했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일주일 철야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계 철야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철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펴실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으며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 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어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선생님의 공부 방편을 그대로 계승하여 현재까지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 법문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위해 백봉선생님의 법문 녹취집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 래

■ 일 시 : 2011년 7월 28일(목) 오후 8시부터
2011년 8월 3일(수)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선원 서울선방 (서울 종로구 부암동 185-30)
■ 회 비 : 일반 10만원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모든 초록버스 이용. 하림각앞 하차.
5호선 광화문역 2,3번 출구 교보빌딩 앞 초록버스 탑승. 하림각앞 하차.
(초록버스 : 0212, 1020, 1711, 7016, 7018, 7022)
*하림각 오른쪽 담을 따라 100m 올라와서 중앙하이츠에서 우회전 지장암 근처

보 림 선 원 서 울 선 방 청 봉 합 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한국구술인물사⑪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시퍼런 빵끼통서 볼일을 봤어요”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전재성 회장은 1974년 8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될 때까지 석달 가까이 수감됐었다.

“그 때는 그 강창일 그 지금 국회의원인 강창일 선배하고 고 다음에 강창일 선배 또 대학원 선배가 있었어요. 황인범이라고. 황인범씨가 있었는데 그 참 그 인물이 아주 수려하고 어 뭐라 그럴까 사회과학이론에 상당히 밝았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몇 차례 대 여섯 차례 모임을 가졌던 거 같애요. 그러고 나서 긴급조치 4호가 발동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 한 학생 1000명 이상이 구속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00명 이상이 그 때 입건이 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저는 그 몰랐어요. 관련됐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나중에 그 긴급조치 4호가 터지고 나서 3개월인가 있다가 제가 (감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중에 간 게 됐죠. 나중에 (알았는데) 강창일 선배가 먼저 용산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다시 용산경찰서 철창 안에서 만나게 된다. 2층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한 전재성은 허약한 체질 때문에 고생했음을 털어 놓는다. 화장실 문제가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독방 생활과 함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답답했다고 한다. 이 때 강창일 선배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뒤 전재성은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됐다.

“화장실이 따로 없으니까 시퍼런 빵끼통 이렇게 장독대만한 그런 플라스틱통이 있었어요. 프라스틱통에다가 소변도 봐야 되고 대변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쪽에서. 그러니까 뭐 그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때 여름에 들어갔던 거 같은데 하여간 그 근데 들어와 가지고 첫날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첫날에 문을 따줘 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세수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세수를 시키더라고요.”

서대문형무소의 감방 생활을 비교적 자세하게 구술했다. 좁은 방에서 6명이 함께 기거하면서 칼잠을 잤다고 고생담을 털어놓는다. 그 방은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前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수감됐던 곳이었다. 당시 민청학련을 주도했던 김지하가 2층에 수감됐으며, 김병곤이 1층에 있었다. 그리고 제2인혁당 사건으로 처형당한 여정남 또한 맞은편 방에 수감돼 있었다. 중범 취급받았다고 전재성은 회상한다.

마룻장을 뜯으면 아래에 통로가 나타나는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일제시대 밀정이 그 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한다. 전재성이 수감됐을 당시에는 잡범들이 담배를 유입해 판매하는 통로로 이용됐다고 한다. 과거에는 시체를 숨겼다가 점검 때 앉혔다가 다시 마룻바닥 밑에 감추다가 발각됐다는 일화도 구술한다.

“긴급조치 4호 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가벼웠던 사람들은 일차 석방이 됐어요. 8월달인가 그래서 그 때에 제가 서대문에서 석방이 됐는데 석방이 되면서 보니까 그 때 박석운이 지금 노동운동하던 박석운이라고 서울법대 출신인데 법대 우리가 같이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사실 전재성은 당시 민청학련이나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거의 몰랐었다. 집회 때 참가했다는 이유로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체포됐을 때 함께 구속된 것이다. 전재성은 1974년 8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 될 때까지 석달 가까이 수감됐었다. 석방되면서 노동운동가 박석운을 만나 반가웠음을 말한다. 이로써 전재성은 서울대 학내는 물론 대불련에서 지명도를 높이게 된다.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⑬

해우소는 바쁜 마음 쉬고 근심 내려놓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을 되새겨보면 깊은 뜻을 간직한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쓰는 ‘근심을 푸는 곳’인 해우소(解憂所)라는 말이 있다. 화장실을 지칭하는 말로, 이는 경봉 스님께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스님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통도사 극락암의 화장실(그때는 변소라고 했다) 이름을 새롭게 지었다. 소변을 보는 곳은 휴급소(休急所), 대변을 보는 곳은 해우소라고 했다. 극락선원을 찾은 대중들은 이 표현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 했다.

어느 날 경봉 스님은 법문을 통해 뜻을 설명했다.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일이야. 그런데 중생들은 급한 일은 잊어버리고 바쁘지 않은 것은 바쁘다고 해. 휴급소라 함은 쓸데없이 바쁜 마음 쉬어가라는 뜻이야. 해우소라고 한 것은 쓸데없는 것이 뱃속에 있으면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데,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야. 휴급소에 가서 급한 마음 쉬어가고 해우소에서 걱정을 버리면 그것이 바로 도(道)를 닦는 거야.”

이제 사찰에서는 ‘해우소’라는 말을 어느 곳이든지 볼 수 있다. 일반 음식점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 바쁜 마음을 잠시 쉬고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일상생활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라는 생활법문인 것이다.

한편, 가수 조용필 4집 앨범 타이틀곡은 ‘못찾겠다 꾀꼬리’이다. 이 노래는 1980년대 초반 대마초 사건으로 방황하던 조용필이 경봉 스님을 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탄생했다.

“뭐하는 놈인고?”

“가수입니다.”

“그러면 네가 꾀꼬리구나. 무슨 말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걸 찾아보아라.”

이렇게 해서 ‘못찾겠다 꾀꼬리’라는 노래가 완성됐다. 노래의 일부를 보면,

“못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 나는야 오늘도 술래 / 못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 나는야 언제나 술래 / 어두워져 가는 골목에 서면 / 어린 시절 술래잡기 생각이 날꺼야….”

그런가하면 통도사 극락암에서 음력10월 29일 봉행되는 ‘삽삼조사재(卅三祖師齋)’도 경봉 스님이 시작한 행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이 행사는 부처님 법을 이은 가섭존자로부터 인도 28조사(祖師)와 중국의 6조사를 더해 33인의 조사(祖師)를 기리는 의식이다. 33인이 되는 것은 인도의 28조사인 달마대사가 인도로 와서 1조(祖)가 되었기 때문이다.

통도사 극락암은 소나무숲으로 둘러 쌓여 있다. 큰스님 향기가 서려있어 많은 선방스님들이 찾아와 안거기간뿐만 아니라 해제철에도 수행정진을 열심히 하는 도량이다.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에서 30년을 머물며 전국 각지 선방스님 등을 제접하며 삶의 지혜를 안내해주셨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㉞ 감은사지3층석탑

민중 속에 꽃핀 원효의 정토신앙



통일신라 전기의 고선사지탑

통일신라의 불교는 왕실의 막강한 후원을 중심으로 유지됐다. 불교는 중생구제를 목적을 두지만, 당시 불교는 통일과정에서 지친 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 때 원효 스님과 더불어 혜공, 혜숙, 대안 스님들이 불교를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원효의 삶은 승려이기 보단 거사에 더 가까웠다. 이미 깨달음을 완성한 그는 요석공주와의 혼인을 통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속세로 돌아가 기신론을 비롯한 화엄사상인 정토신앙을 설파했다. 높은 위치가 아닌 낮은 곳에서 중생의 입장을 바라보고 진정한 정토의 세계에 대해 알렸다.

원효는 낮은 곳에서 진정한 정토세계 알려
부석사는 원효가 펼쳤던 서민불교의 증거

원효 스님의 행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분황사이다. 스님은 분황사에서 많은 저술활동을 했다. 분황사는 선덕여왕 때 조성됐으며, 모전탑을 지닌 사찰이다. 모전탑은 본래 간다라 지역에서 발견되며, 벽돌모양의 돌로 쌓아올린 형태이다. 분황사는 1탑 3금당을 지닌 사찰이었다.

원효 스님의 입적 후, 스님에 대한 비문이 남아 있는 사찰은 고선사다.

〈삼국유사〉 ‘의해편’의 원효 스님 전기 중에는 사복(蛇福)과의 일화가 기록돼 있는데, 이때 고선사가 등장한다. 이로 미뤄보아 고선사는 원효 스님이 만년에 잠시 머문 사찰이었던 듯하다.

현재 고선사 터는 덕동호 수몰로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다. 독특한 통일신라 전기의 석탑으로 유명한 고선사지 탑은 1975년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세워 놓았다. 탑은 2단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쌓아 놓은 모습으로 통일신라시대 석탑양식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사찰은 탑 신앙이 중심을 이루며, 통일신라시대 7세기 후반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탑은 통일신라 특유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으로 옮겨지는 초기 과정을 잘 보여준다.

고선사지에서 서당화상비 잔편이 발견됐으니,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원효와 대면 할 수 있다. 서당화상비는 하단부와 상단부가 따로따로 발견됐다. 하단부는 1915년 5월 9일에 고선사지터에서 조선총독부 참사관실에 근무하던 일본인에 의해 3편으로 조각난 채로 발견됐다. 상단부는 1968년 9월 초 경주에서 발견됐다.

본래 이것은 일제강점기 고물수집에 취미를 갖고 있던 일본인이 자신의 제지공장에 보관했던 것이었는데, 해방 후 공장을 논으로 변경하면서 다시 재발견돼 보관됐다.

원효의 정토 신앙은 의상 스님이 세운 영주 부석사에도 나타난다. 영주 부석사의 주불전이 비로자나불이 모셔진 대적광전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보신 무량수전이라는 것은 신라의 불교가 서민대중들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주 부석사를 세운 의상 스님은 원효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이므로 이러한 신앙의 흐름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원효 스님의 사람들에게 열린 신앙의 흐름이 통일신라를 거대한 불국토로 만든 것이 아닐꺼라고 생각해본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과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6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외곽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마산
- 법당 : 17평
- 요사 : 55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8천

- 위치 : 인천
- 법당 : 50 평
- 요사 : 45평
- 부지 : 420평
- 가액 : 1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선원 및 토굴 (밀양)

- 총대지 : 약 2,000평(종교용지 포함)
- 법당 및 용왕, 산신, 요사
- 심산유곡, 선방자리 최고
- 가액: 4억 5천만원

지리산 무릉도원

- 대지: 2,100평
- 법당 30평, 요사 40평, 토방 10평
- 주차장: 300평 (버스 진입 가능)
- 사계절 계곡물 철철
- 야생화 만발, 마당 넓은 사찰
- 가액: 6억 3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임 법 당 안 내

- 위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 대지 50평, 건평 30평
- 법당, 접견실1, 방3, 부엌2개
- 총액: 1억 6천 5백만원 (6천5백융자)

010-4908-25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천구 신월동 곰달래길
- 4층중 2층 사용
- 현재 운영중 (뜸, 대체의학 , 상담)위주로 하실분
- 삼존불,탱화,에어컨구비되어있음
- 시설비 無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6425-38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 3층 건물 2층
- 약 70평, 시설 A급, 위치 최상
- 5존불, 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4368-45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 건물에 2층, 에어컨 3대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모든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소재 매우 오래된 사찰
- 평수 : 종교용지 1800평
- 절묘한 도량으로 산기운이 강한 기도터이므로 신심이 돈독하신 분으로 마음공부나 기도정진하실분 외에는 전화사절 합니다
- 지병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 가액: 8억 6천만원

010-2034-7799

도심사찰(급)포교원안내

- 용인 죽전동(분당과 경계) 아파트 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분양-평당 매매 300만 이상
- 1억이상 원목, 단청함-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 최고지-현재 운영잘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분께 양도
- 4억 3천(절충가능)
- 빠른 연락과 직접 오시어 확인 요함

017-265-93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중심
- 3층건물 3층 (옥상 단독 사용)
- 평수 50평, 방3, 주방1, 거실 등
- 시설: 아미타불, 108약사소불 108탑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시청, 시외터미널, 홈플러스등 교통요지로써 접학가능 스님이나 종단사무실 요망

010-5258-114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80평, 요사채 25평
- 법당 15평, 시설 완벽함
- 몸만 오시면 포교가능함
- 가액: 1억 8천만원 (가격절충불가)

011-792-89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총 2천평
- 현재 불사중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8천만원

010-8681-157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40평
- 방1, 공양간, 법당
- 삼존불봉안(미타, 관음, 지장)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6227-596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1억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근교
- 토지: 무상임대 약 700여평
- 건물: 법당 20평(등기)
- 요사 방2개, 식당방 1개
- 산을 끼고 물좋은 마당까지 차량 진입
- 가액: 1억
- 꼭하실분만, 장난전화사절

010-2692-5967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 3층 건물 2층
- 약 70평, 시설 A급, 위치 최상
- 5존불, 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후결정

010-4368-4569

납 골 공 원

- 위치 : 전남 장성
- 면적 : 9500평
- 법당 27평, 요사 29평
- 납골허가기수 15,000기
- 가액 : 20억

062)431-848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고등학교 옆
- 평수 : 총 30평
- 방2, 법당1, 삼존불, 소불60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850만원

010-4531-3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 시내중심가
- 평수 : 50평. 3층건물중 2층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4119-3057

암자 별장 터

- 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전117-1번지 925평은 지방도와 암반계곡 접. 항시 맑은물 철철 울창한 국유림 내 확트인 동향
- 희망하면 전화 주세요

010-3538-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소재
- 총부지 : 대지230평,텃밭500평
- 법당17평,요사30평,창고1동
- 삼존불 외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만원

054)744-5767
019-506-576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평수 : 100평, 삼존불
- 월세5만원/시설비 700만원
- 몸만오시면 됨
- 꼭 하실분만 전화 주세요

010-7476-9002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171평,건물단청,수미단,영단
- 법당,종무소 : 20평씩 2층건물 1동
- 요사채,공양간 : 30평씩 2층건물 1동
- 마을 산아래 조용하고 깨끗한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 1억7천5백만원(융자1억포함)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동 (공원 앞, 명당터)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 즉시법회가능,집기일체양도

010-3572-8426

66년 된 토굴(무허가)

- 위치 : 부산
- 법당1동,공양간1동, 요사채1동, 산신각, 나한전 각각1동

※법당에 약물 나오는 용궁 있음

010-7309-730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녹번동
- 평수 : 10평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475-73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2억 5천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매물접수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층 요사채 30평
- 2층 요사채 24평
- 3층 법당 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 82평

010-2637-6144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70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1-1703-27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126-1525

포교원 및 명상원(급)안내

- 위치 :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층건물 3층
- 평수: 80평
- 보증금: 4,000만원 / 월70만원
- 약만이천세대 아파트밀집지역에 있는 메인 대상가.
- 포교활동 최상급 지역(주변 불자 많음)
- 인연되시는분 상담후 형편에 맞게 절충 가능

010-2425-04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 50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 남녀 화장실 별도
-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010-4668-7380

전원주택 및 토굴 안내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가격절충)

010-3337-9736

조용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 : 600평, 임법당 60평
- 공양간 30평, 창고 10평
- 방 4개
- 가액: 2억 5천만원

010-4775-27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27-4747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 시내중심가
- 평수 : 50평. 3층건물중 2층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4119-30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고등학교 옆
- 평수 : 총 30평
- 방2, 법당1, 삼존불, 소불60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850만원

010-4531-3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1억 8천만원됩니다)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 건물에 2층, 에어컨 3대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모든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80평, 요사채 25평
- 법당 15평, 시설 완벽함
- 몸만 오시면 포교가능함
- 가액: 1억 8천만원 (가격절충불가)

011-792-89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총 2천평
- 현재 불사중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8천만원

010-8681-157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전117-1번지 925평은 지방도와 암반계곡 접. 항시 맑은물 철철 울창한 국유림 내 확트인 동향
- 희망하면 전화 주세요

010-3538-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연화산 도량 연화산 IC 3분거리
- 평수 : 대지 약120평,텃밭약간 건평 1~2층 65평 심야전기보일러,그림같은 토굴 법사,보살,비구니스님 적격
- 가액 : 1억 4천 8백만원 (융자 4500 포함)

010-8846-709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 대지 면적 약 2500평
- 건물평수 50평짜리 2동
-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
- 국유지 약 2만평 인접
- 산책로로 사용가능
- 가액: 건물포함 평당 95만원 (융자 10억)
- 중환자 숲속, 요양의집으로도 적격

011-726-4711

아주 싼 등록된 포교원

- 구조 : 법당1, 사무실겸 방1 (살림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100~200만 협의)
- 인연 : 스님, 법사, 보살 선착
- 참고 : 역학비법지도 30년중 14년

02)904-3375
010-2693-77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근교 (4호선 당고개역 이용)
- 평수 : 70평,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에 3층
- 법당,방3,사무실1,공양간,욕실,창고
- 삼존불및후불,산신,칠성탱화
- 지장, 관음, 호신불 각 108위
- 보증금 2천만원 월 1백만원
- 시설비 절충
- 꼭 하실분 전화 상담

010-3422-257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 법당(목조토기와) 20평
- 시멘트벽돌 슬라브 40평
- 38평(2동) 외 2동(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 8억(조절가능)

010-3822-456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 40평. 4층건물 3층
- 법당, 방3, 주방, 삼존불 및 각종탱화 외 소불 52불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6310-3335

대형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세권
- 대형포교원(10년 운영)
- 4층중 2개층 사용, 140평
- 옥상 80평 (지소대, 텃밭, 창고)
- 차고 有, 주차 100대 可
- 現불교대학, 서실, 다실운영중
- 큰방 5(초 특급)생활불교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6천만원(가격절충)

010-6797-3223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서자

수리아의 검-Ⅲ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8)


삽화 · 김홍인

"그래. 들키지 말고!"

무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하며 일어서던 남카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두 사람 쪽을 향해 말했다.

"저기 말이야."

무니와 난다가 '응?' 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남카를 바라봤다.

"너희들을 가둔 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정말 너희 계획대로 용을 물리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을 돕겠다고 나서줘서."

잠시 말을 멈춘 남카가 계속 말했다.

"물론 말 그대로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사람들이 이런 서로의 모습을 기억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하지만 그냥 모두 전처럼 집에서 나와 함께 놀 수 있으면 좋겠어. 전과 똑같지는 않아도 말이야. 그렇게는 되겠지?"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무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남카는 쑥스럽다는 듯 뒷머리를 긁적이더니 사뭇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멈춰서고 말았다. 뒤따라 일어났던 난다와 무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등불로 옥수수 밭을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세 소년과 마을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맞서고 있는 듯한 상태로 그렇게 잠시 멈춰 서 있었다.

"내가 움직이면 너희들은 아까 우리가 빠져나왔던 지하로 쪽으로 다시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일단 마을 사람들을 막은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말을 너희에게 보낼게."

남카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들 표정 보니까, 그럴 거 같지는 않은데?"

무니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남카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보기 시작했다.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저런 표정은 한 번도 본 적 없어.' 남카는 무서웠다. 저 중에 남카 자신의 부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랬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다시 희미한 열기가 느껴졌다.

"아무튼 그럼 거기서 보자."

남카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난다는 그런 남카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관두고 무니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 사람은 서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남카가 뛰기 시작하자, 이윽고 그들도 몸을 뒤돌려 뛰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 쪽의 등불도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리고 몸을 낮추고 옥수수 사이를 빠르게 헤쳐 가는 소년들을 뒤쫓았다.

잠시 후, 밭을 빠져나온 무니와 난다는 일단 숲 쪽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였다. 지하통로 입구 바로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남카를 붙잡은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다른 두 소년을 시야에서 놓쳐버려 눈을 부릅뜬 채로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든 등불에 그들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마다 드러나는 표정은 섬뜩했다. 이기심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을 저렇게 만든 것일까. 무니는 마히샤들이 떠올랐다. 그들에게서는 욕구나 감정을 찾을 수 없었다. 무엇이 더 무서운 걸까. 사람들은 점점 숲 쪽으로, 그들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희미하게 느껴졌던 열기는 이 순간에도 점점 현실화되어가고 있었다. 불길은 잠시 멈춘 거 같았지만, 용은 확실히 마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거 같더니 주민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마을 광장으로 모여요!"

여기저기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왜냐고 물어보는 거 같았는데 대답은 잘 들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모두 숲을 떠났다.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무니와 난다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남카가 보내준다고 했던 말은 올 거 같지 않았다.

"설마, 저 사람들 남카를…. 그런 일은 없겠지?

무니가 말했다. 난다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겠어. 기왕 이렇게 된거, 그냥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서자."

무니가 비장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하는 거야?"

"어차피 용하고 부딪쳐야 하는 건 같잖아."

난다는 "그렇지만,"이라고 말하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래, 뭐. 이래도, 저래도. 후후. 너 아까 옥수수 밭에서 남카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때 문에 생각이 바뀐 거지? 모두 집 밖으로 나와 함께 놀고 싶다는 말."

"그런 거 아니야!"

무니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아무튼 그럼 나 혼자 남카에게 갈게. 넌 그냥 이대로 칸타카 있는 데로 가. 그 잠 오는 약초나 이리 줘."

무니의 말에 난다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혼자 간다고! 너 왜 그래?"

"용 같은 거 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 약초를 들고 용의 뱃속으로 들어가 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말고 내가 들어가는 게 맞아. 난 죽지 않을 테니까."

무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 짓지 마."

난다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걸 언제 알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아무튼 그 계획엔 두 사람이 필요해. 누가 용 뱃속에 들어가든 밖에서 용에 맞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 너만 그리로 보낼 수는 없어."

난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난다는 그래도 "안 돼!"하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용을 잠재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안전하다구.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내가 어제 먹 어 봐서 알잖아."

무니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난다는 계속해서 고개를 젓고 있었다. 결국 무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난다의 어깨를 툭 쳤다. 두 소년은 함께 마을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무니와 난다가 마을 광장에 도착했을 때, 촌장과 남카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당연히 촌장이 이 일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잡아놓은 아이들을 놔준 것도 남카라는 것이다. 기세등등한 그들의 위협에도 촌장은 남카의 어깨를 꽉 쥔 채, 사람들과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이제까지 촌장의 역할은 밭이나 경작물에 관해 드물게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거나, 정기적인 마을 회의를 주최하는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이런 경우에도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볼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아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지나갔다. 아들의 떨린 어깨를 감싼 촌장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른 쪽을 향했다. 도망쳤던 소년들이 제 발로 걸어오고 있었다. 촌장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버린 남카는 무니와 난다를 쳐다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소년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그들을 커다란 말에 매달았다. 촌장과 남카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마치 미리 준비되어있었다는 듯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신속하게 준비를 마친 말은 사하라 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년들을 태운 말은 숨 한번 내쉬지 않는 듯 달렸다. 멀리 잠시 잠잠해진 듯한 불길 위로 조금씩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 녀석이 아까 남카가 말했던 그 빠른 말인가 봐."

난다가 힘들게 말을 꺼냈다.

"우리 칸타카보다 빠를까?"

"글쎄. 하지만 앞으론 칸타카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이 될 걸."

"무슨 말이야?"

무니와 난다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 난다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말이 한층 더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니와 난다는 묶인 두 손으로 말고삐를 더욱 세게 붙잡았다. 점점 그들 시야에서 숲이 사라지더니 잿더미가 날리는 황량한 평야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막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회색의 사막. 이곳도 아마 나무가 많은 평화로운 마을이었을 것이다. 이틀 전 그들을 위협했던 바로 그 불의 결과는 그렇게 처참했다. 무니와 난다의 콧속으로는 말이 달리면서 일으킨 먼지가 마구 들어오고 있었다.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빨리 왔는지 알아? 아직도 다 안 떴어."

이윽고 사막을 빠져나오게 되자 무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말은 잠시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응. 지금 우리 칸타카보다 확실히 빠른 거 같아. 도대체 무슨 종이지?

"나중에 책 찾아봐."

두 사람은 말의 속도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하자 또 입을 닫았다. 무니는 이젠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빨리 용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였다. '휙! 휙!' 하는 소리를 내며 귀를 스쳐지나가던 바람 소리가 그치는가 싶더니 말이 멈춰섰다. 정신없이 실려 오던 무니와 난다는 한참이 지나서야 매달려 있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또 사막이었다. '되돌아온 건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던 두 소년의 눈에 작은 불티들이 땅 위에서 춤추듯 흩날리는 게 보였다.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843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 2,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 3억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9901-353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밀양시 단장명
- 총평수 : 5필지 (2,464평)
(답, 임야, 전답)
- 가액: 평당 23만원

010-8265-0045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⑫**

갈대와 게



단원 김홍도(1745 ~?)의 해탐노화도(蟹貪蘆花圖). 게(蟹: 해)가 갈대꽃을 탐한다는 그림으로 과거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장원급제를 기원하며 그려주던 전통적인 그림이다.

옛날, 가난한 농사꾼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급히 약방으로 달려갔다.

약방 주인은 "열을 내리는 데는 영양각이 좋은데, 은(銀) 10냥은 있어야 줄 수 있다네."

농부는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눈물만 뚝뚝 흘렸다. 이 때 한 거지가 그 집에 밥을 구걸하러 들어왔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농부에게 물었다.

농부는 거지에게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영양각 말고도 열을 내리는 데 좋은 약이 있습니다." 농부는 거지를 따라 갈대가 무성한 저수지로 갔다. 거지는 갈대 뿌리를 캐서 농부에게 주었다. 농부는 갈대 뿌리를 푹 달여서 아이에게 먹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열이 떨어지면서 정신이 바로 돌아왔다.

농부는 "어떻게 갈대 뿌리가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 줄 알았나?" "저희들은 열이 나면 갈대 뿌리를 달여 먹습니다. 우리는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에 걸리거나 열병에 걸리는 수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갈대 뿌리를 달여 먹으면 신기하게 낫습니다."

그 뒤로 갈대 뿌리는 열을 내리는 약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한다.

게는 늦여름과 초가을에 이르면 매미처럼 허물을 벗어 해(蟹)라 한다. 근해의 계간과 호수에서 나는데 여덟 개의 다리와 두 개의 가재 다리로 굴곡, 횡행하는 까닭에 일명 과해(跨蟹)라고도 한다.

갈대와 게를 함께 그린 김홍도의 그림은 1916년 테라우치총독(寺內正毅)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그림 중에 포함돼 있다. 물풀을 배경으로 한 쌍의 게를 수묵(水墨)으로 표현한 그림은 김홍도의 작품 외에도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이나 최북(崔北; 1712~1786경)의 소품들도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에는 갈대가 아닌 일반 물풀에다가 송사리 등 작은 물고기들을 함께 그린 것들도 있는데 중국 명(明)나라의 서위(徐渭; 1521~1593)를 모방해서 그린 작품과,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배관기(拜觀記, 남의 글·편지·작품·소중한 물건 등을 공경하는 뜻을 가지고 보고 기록한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갈대는 한자로 '로(蘆)'다. 게가 갈대를 물어 전하면 '전로(傳蘆)'인데, '전려(傳臚)'란 말에서 나왔다. 로(蘆)와 려(臚)는 우리말 음으로는 달라도 중국음은 모두 '루'다. 전려는 예전 과거시험을 볼 때 합격자를 발표하던 의식이다.

예전 과거 시험은 각 지역 향시(鄕試)에서 합격한 사람만 중앙으로 올라가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발해(發解)다. 해(解)와 게를 뜻하는 해(蟹)는 음이 같다. 그래서 게와 갈대를 함께 그린 그림은 과거에 합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에서는 과거 합격을 기원
부부해로, 자손번창 의미 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와 갈대 그림의 의미는 위와 같은 데, 갈대와 게그림은 후대에 그 의미가 변한다.

글자 그대로 게는 해(蟹), 갈대는 로(蘆)인데, 두 글자가 합쳐서 해로(偕老), 즉 부부가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변한다.

'해로(偕老)'는 〈시경〉에 나온 말로 〈패풍〉의 격고편에 고향을 등지고 멀리 떨어진 전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한 병사가 집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애절함이 묻어있는 시다.

"죽거나 살거나 함께 고생하자 당신과 굳게 언약하였지. 고운 손 꼭 붙잡고 오순도순 늙어가자…[死生結闊 與子成說 執子之手 與子偕老]"라는 뜻이다.

게가 낳는 수많은 알은 자손번창을 뜻한다고 한다.

한 가지 그림이 가진 의미는 이렇게 세월에 따라 변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하기도 한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6** 마지막 북소리



하루가 저무는 시간. 산문에서 북소리가 들려온다. 저녁예불이다. 부처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 모두 부처라 했던가. 각자의 앞에 서는 시간이다. 오늘은 내 앞에 서있는 나를 볼 것인가. 잔잔한 호수 위에 바람이 물결을 그리듯 한 줄기 북소리가 가슴을 흔든다.

북소리가 시방(十方)으로 날아가고 부처들이 쏟아내는 뜨거운 목소리가 법당을 태운다. 부처를 만나지 못한 부처들이 두 무릎으로 다시 법당을 짓고, 흔들렸던 가슴은 내일의 북소리를 기다린다. 내일을 기다리는 일은 간절하고 간절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북소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마지막 북소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내일'은 모두가 기다리는 '오늘'이고, 오늘은 간절히 기다렸던 '내일'이다. 내일 다시 북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⑯ 조선 소요태능 선사의 '계우 법사에게 보임(示繼雨法師)'**

사량하고 분별해선 깨달음에 이를 수 없어

火裡紅蓮落故衣 (화리홍련낙고의)
木童收拾滿筐歸 (목동수습만광귀)
古曲無音誰敢和 (고곡무음수감화)
溪邊石女笑微微 (계변석녀소미미)

불 속의 붉은 연꽃 옛 옷에 떨어지는데
땔감하는 아이는 광주리에 가득 주워 가네
옛 곡은 소리가 없는데 누가 감히 화답하랴.
시냇가 돌여인이 빙그레 미소 짓네.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 스님은 대규모 불사를 통해 가람을 조성했으며 대중을 모아 후학 양성에 진력하는 등, 선에 근거한 정법 중흥과 종단과 불법수호를 자신의 역할로 삼았다. 기도 등을 통해 중생구제를 간절히 염원키도 했는데, 스님이 법문하는 자리에는 원숭이도 와서 머리를 숙이고 뱀이 법문을 듣고 허물을 벗는 등 이류중생에게도 그 감화가 미쳤다.

소요태능 스님의 문집인 〈소요당집(逍遙堂集)〉에는 후학에게 법을 보인 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시는 화두를 통한 깨달음을 읊은 시로 선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상징과 역설을 사용하고 있다. '불속의 연꽃' '석녀'라는 시어는 언어도단, 이언절려(離言絶慮)의 경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무영수(無影樹), 무현금(無弦琴), 석녀(石女), 전삼삼후삼삼(前三三後三三), 철우(鐵牛), 니우(泥牛) 등도 주로 쓰이는 선어이다. '불 속에 핀 연꽃을 목동이 주워 담는다' '석녀가 웃는다' 등은 초논리적이다.

이러한 상징과 역설, 초 논리의 수사법은 선시의 중요한 표현 방법으로 선시에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는 선사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저 읊었을 뿐이기도 하겠지만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깨달음에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 획일적이고 동일한 선어와 수사법은 일견 선시의 문학성을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으로, 화두로 깨달음을 이룬 수행자가 있다면 이러한 기법의 선시는 필연적으로 작시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법희선열을 맛보거나 그 가르침을 엿보는 안목은 수행자와 독자의 몫일뿐이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주)현대에너텍 2011년 최신형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평 ~ 20평까지

건조기(11채반) 건조기(22채반) 건조기(33채반)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불자 세상보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교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가 미국 남동부해안을 강타했을 때 미국에 1년 반 동안 체류한 적이 있다. 그때 많은 미국사람들이 '21세기 미국에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자성과 비탄이 있었다.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태풍 메아리가 스치고 간 흔적들을 보면서 '21세기 한국에서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게 된다.

장마철이 되면 무엇보다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대책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 하천, 제방, 골짜기 등 현장주변 장마철 취약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이나 급경사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전점검이 필수적이다. 산중에 위치한 많은 사찰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지형성 강우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험여부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태풍, 지진,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에 대한 인간의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기에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지혜만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장마와 태풍피해에 대한 걱정이 많다. 전국 주요 하천이 공사 중이다 보니 적은 양의 비에도 온통 흙탕물로 범벅이고, 웬만한 큰 비가 아니면 공사 중단 없이 연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마철이 되면 일반 공사들도 안전문제로 기본적인 보강공사 후, 잠시 중단하거나 장마철이 지난 후 공사를 재개한다. 그렇지만, 올해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4대강사업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구제역사태로 인한 매몰지 문제로 큰 비가 올 때마다 전국이 비상상황이다.

잘 알다시피 4대강사업은 겉으로는 녹색성장과 강 살리기를 이야기하지만, 충실한 사전점검도 없이 속도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며 파괴사업이다.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라 고 말하면서도 많은 절차들이 무시된 상태로 무모하게 추진됐다. 이는 민주주의 붕괴이며, 사전에 충분한 과학적 검토 없이 진행돼 언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그런 상황에서 과대한 준설로 결국 왜관철교가 붕괴됐고, 제방이 무너지고, 지류들의 침식이 일어나는 등 여러 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원인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설계와 급속도의 시공 작업이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점검 후 공사를 재개한다는 소식은 감감한 실정이다. 정부는 공사만 끝나면 된다는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또 하나는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및 유실문제이다. 애초부터 급작스레 동물들의 사체를 매몰시켰기에 제대로 된 매몰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비에 씻겨 유실되거나, 고인 침출수들이 일시에 빗물에 씻겨 유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애초부터 충분한 대처 없이 미봉책으로 추진되다보니 충분히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드러난 매몰지만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수천 곳의 매몰지에 대해서는 문제만 안생기면 된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것 같기에 많은 우려가 든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21세기 과학의 시대라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이 점에서 4대강사업과 구제역사태는 경제적 가치와 인간위주의 편리만을 생각하는 우리 시대 또 다른 인재(人災)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반생명적 가치로 전도된 세상을 다시금 일깨우는 생명평화를 위한 큰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부터라도 4대강사업과 구제역사태를 통해 우리시대 반생명적 문화를 지양하고, 온전한 생명체들이 다 함께 공존하는 세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21세기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세상은 생명파괴의 사회가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공존하는 생명평화의 시대가 되기를 고대하게 된다.

사부대중 칼럼

내게 태풍이 분 적이 있던가?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본래 메아리는 자취가 없건만 많은 흔적을 남긴 태풍 메아리의 뒷모습을 보며 태풍에 대해 생각해본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태풍(颱風)의 어원은, 1634년에 편집된 〈복건통지(福建通志)〉 56권 〈토풍지(土風志)〉에 '태(颱)'라는 글자가 중국에서 처음 사용된 예이며, 영어의 typhoon이란 용어는 1588년에 영국에서 사용한 예가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1504년 typhon이라 했다. 이밖에도 아랍어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의미하는 tūfān이 타이푼으로 전화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1946년까지는 난양[南陽]이나 남중국해상 등에서 발생해 필리핀 · 중국 · 한국 · 일본 등으로 올라오는 맹렬한 폭풍우라고 정의했을 뿐 확실한 기준은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세계기상기구(WMO)는 최대풍속에 따라 4계급으로 분류하며, 열대성폭풍부터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데, 한국과 일본은 열대성폭풍 이상을 태풍이라고 한다. 주로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동부로 불어온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한반도에는, 나에게는 어떤 태풍이 있었을까?

내 20대까지의 기억 창고에는 태풍이라는 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기억창고를 여기저기 뒤져보고 검색 해봐도, 내 유년과 소년과 청년기를 훑고 지나간 태풍의 흔적이 겨우 몇 개, 사위어 가는 불빛에 비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떠오를 뿐이다. 그 정도다. 그게 전부인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라고 왜 태풍이 없었겠는가. 그 때도 큰 태풍이 몰아닥치고 큰 사건들이 많았을 터였다. 그러나 태풍에 대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것은 내 자신이 직접적이고, 커다란 피해를 입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또한 통칭 제 몇 호 태풍 등으로 불리거나 이름도 생소하고 뜻도 알지 못하던 영어로 명명된 것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여겨진다.

태풍의 이름, 명칭부터가 나와 동떨어진 것이었고 또한 나의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30대 이후의 내 기억창고에서는 엉성하기는 하지만 태풍이라는 단어와 데이터, 정보, 컨텐츠가 비교적 쉽게 검색된다. 시기적으로 보면, 아시아태풍위원회에서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관심과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제출한 10개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다. 우리나라와 북한도 각각 10개씩 된 태풍 이름을 제출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안해 선정된 태풍 이름은 개미 제비 나리 너구리 장미 고니 수달 메기 노루 나비 등 10개이고, 북한이 제안한 이름은 기러기 소나무 도라지 버들 갈매기 봉선화 매미 민들레 메아리 날개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우리말로 된 태풍이름 20개가 작명이 된 셈이다.

2003년 9월 6일 발생해 9월 12일 경부터 제주도 경상남북도 울릉도를 관통하며 9월 14일 소멸한 '매미', 2005년 9월 우리나라와 특히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나비', 2006년 제5호 태풍 '개미', 2007년 9월에 상륙한 '나리', 2004년 8월과 2010년 10월의 '메기', 그리고 가까이는 올해 6월 하순에 발생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 중 서해에서 유일하게 북서진한 태풍으로 기록된 '메아리'도 떠오른다.

그리고 그런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얼마나 발생했으며, 또 그 태풍이 남긴 각종 기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금씩 검색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뭔가 허전하다. 뭔가 께름칙하다.

아무리 30대 이후 내가 겪고, 만났으며, 알고 있는 태풍의 기억을 덧붙여서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해도 "나는 태풍을 만나지 않았다 아니,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 분명 한반도에는 수많은 태풍이 쓸고 지나갔고, 나도 겪었고,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나는 한 번도 태풍을 맞은 적이 없는 것이다.

숱한 태풍이 한반도 상공과 지상 위로 경천동지할 위력을 뽐내며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머리 위에서, 내 몸 밖에서 지나간 바람에 불과했던 것이다. 저 깊은 가슴 밑바닥에서 시작되어 내 영혼의 대지에 불어 닥친 태풍을 맞아본 적이 없는 것이다.

밖에서 불어와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나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엎어버리고, 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그리하여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태풍은 아직 내게 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진짜 태풍을 기다려보는 것이다, 시방.

社說

불교문화콘텐츠 방향설정부터

조계종이 추진 중인 민족문화수호운동이 바르게 진행되려면 단순히 빛바래거나 이끼 낀 문화재가 망실되지 않게 지키는 소극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불교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시키는 차원에 그쳐서도 안된다.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은 필수이다.

이런 가운데, 6월 30일 불교문화콘텐츠 종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불교문화콘텐츠의 방향설정과 불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발표자의 의견처럼 불교문화콘텐츠의 방향설정은 중요하다. 불교문화콘텐츠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지, 문화포교를 펼질지, 문화공공재로서의 역량을 높일 것인지부터 결정돼야한다는 말이다.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계획이 나올 수 없다. 반듯한 결과물도 나올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불교문화 콘텐츠에 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 조계종에서 불교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기관은 총무원 문화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다. 두 기관이 교차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불교문화콘텐츠가 주무가 아니다보니 서로 미루다 이도저도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불교문화 콘텐츠 업무를 전담할 기관의 불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는 설립돼야 한다. 그래야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인재도 모일 수 있다. 조계종의 민족문화수호운동의 활로는 불교문화 콘텐츠에 달렸다.

반대 전문가부터 설득시켜라

한국생태학회 등이 6월 29일 개최한 국립공원정책포럼에서는 "자연공원법 개정은 불교계에 대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불교적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조차도 "불교계에 대한 특혜이고, 특정 종파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사찰을 옥죄던 관련 법령의 개정은 45년간 해묵은 불교계의 염원이었다.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찰나, 거북한 소리가 들려온다.

전문가들의 지적은 입장료 징수 등 관리주체가 불교계에 한정됐다는 점과 불교 신행을 위한 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찰 보수를 불사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불만도 있었다.

불교계로서는 이들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지적을 귀담아 듣지 못한다면 자성과 쇄신은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연공원법이 개정을 앞둔 것은 분명 불교계의 경사이다.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치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와 조계종간의 밀월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이럴 진데, 대다수 국민의 시각은 살피지 않아도 뻔하다.

불교계는 45년 해묵은 염원의 해소에 도취돼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된다.

반대하는 전문가부터 설득시켜야 자연공원법 개정이 온전해진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풍 · 수 · 로 · 풀 · 이 · 하 · 는
청와대 입지의 재조명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많은 외침과 역경에서도 나라를 지켜온 민족이라고 자위하기보다는 침략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부국강병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地政學的 불리함을 地理的 이로움으로 승화시켜 작지만 강한 나라 초일류국가를 지향하는데 풍수가 기여할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화려함에 감춰진 치명적인 毒을 간과하고 있다.
◆ 갈등과 논란을 겪는 세종시 입지를 국내외 역사적 도시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다.
◆ 우리의 국토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이 곳곳에 있다.
◆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 전국토의 명혈을 모두 찾아 쓴다 해도 36홀 골프장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 지종학 지음 / 신국판 / 328쪽 / 정가 2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상권 · 하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 · 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상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하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 스님 지음/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옻가네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안타는 제품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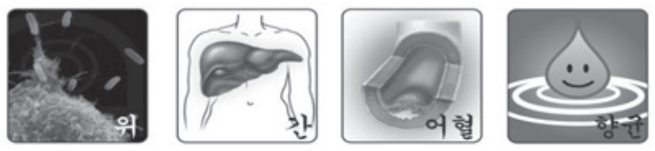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전 KBS 아나운서 이창호입니다.
잦은 방송으로 지친몸, 옻가네 참옻진액으로
언제나 활기차고 거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옻타지 않는 옻으로 유명한 옻가네 참옻진액
자신있게 권합니다.
전 KBS 아나운서 이 창 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20년 동안 진행)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거래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은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무릎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때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근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시길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다는 마음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길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되어 좋아 하셔서 주변에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와 같은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옻 닭" 무더위로 지친 현대인이 즐겨찾는 우리들의 전통보양식!

옻닭요리는 우리의 전통요리로서 중년이상이 즐겨 애용하는 보양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옻요리가 몸에 좋은 것은 알고 있으나 옻 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은 국내 연구진이 3년동안 연구개발하여 식약청에서 안전성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증명되었고,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정 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옻닭요리입니다.



[특징]
1. 닭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사라지며, 고기가 부드러우면서도 졸깃할것입니다.
2. 옻이 지병을 분해하여 기름기가 1/3 줄어들어 다이어트Diet(음식으로 치료)도 됩니다.

[요리방법]
1. 토종닭 한마리에 옻액을 500ml~1000ml 넣을 경우, 물은 100ml~500ml 를 추가하고 천일염 1/2 ts넣고 압력솥에서 17~20분간 익힌다.
[예 : 옻액 1000ml +물 500ml / 옻액 700ml +물 800ml / 옻액 500ml + 물 1000ml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배합비율이 가능하고 한약재를 넣고 만드셔도 됩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